

제 출 문

진천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진천공예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

문화예술로 힐링하는 마을

진천공예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Contents

제 1장

서론

1. 연구배경 7
2. 연구방향 7
3. 과업범위 8

제 2장

담론

1. 문화와 예술경영 11
2.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17
3. 공예 개요 24
4. 공예 정책 31
5. 100년 가게의 비밀 37
6. 국내·외 사례 47

제 3장

조사분석

1. 일반현황 분석 71
2. 관광환경 및 주변자원 분석 77
3. 진천 공예마을 현황 분석 102

제 4장

콘텐츠 전략

1. 비전과 목표 115
2. 사업 대상지 116
3. 주요사업 117
4. 세부사업 119

제 5장

운영 전략

1. 예산계획 185
2. 예산확보 방안 187
3. 운영방안 188
4. 네트워크 구축방안 188
5. 당면과제 191
6. 기대효과 192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향
3. 과업범위

1 연구 배경

- 지역문화의 시대, 예술의 시대, 소확행+힐링콘텐츠의 시대를 맞아 차별화된 문화정책 수립 시급
- 진천군은 공예의 전 장르 망라된 국내 유일 공예마을 <진천공예마을>위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주변의 농다리, 송강사 등 역사문화 공간 연계협력 및 콘텐츠 네트워크, 중부권 대표 문화관광벨트 구축 요망
-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문화 특화정책 등과 연계 추진, 공간 활력·콘텐츠 활력·커뮤니티활력 등 100년 가는 문화정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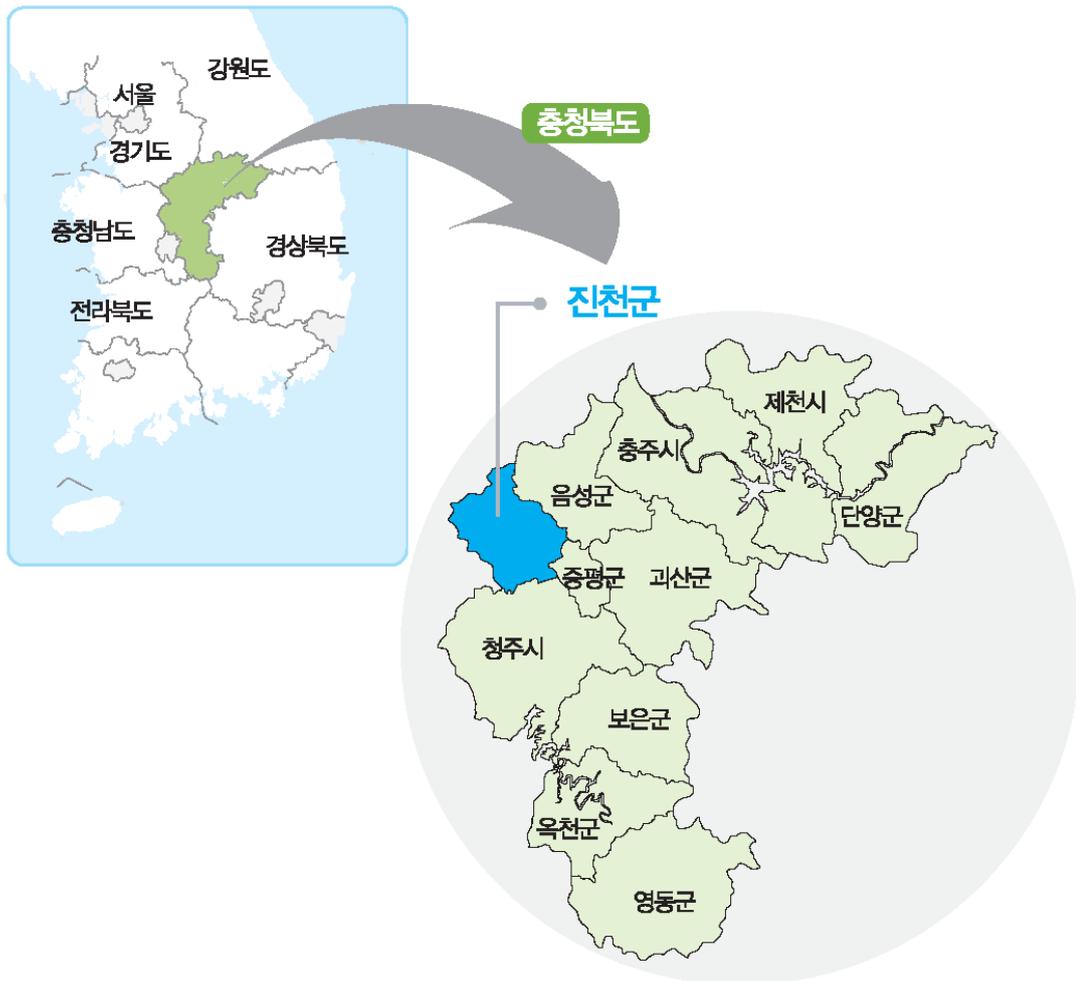
2 연구방향

- 공예문화, 관광산업,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의 시대적 트렌드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방향 모색
- 진천공예마을의 주요 현황 및 실태 종합분석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특화된 발전전략 수립
- 농다리, 송강사 등 주변의 역사자원 및 문화공간 등의 자원 분석을 통해 연계협력 방안 마련, 중부권 대표 관광환경 조성
-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 및 공모사업 선제 대응을 통한 체계적 사업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성과 극대화
- 문화콘텐츠 및 체류형 체험프로그램 발굴 중부권을 대표하는 ‘예술+힐링’ 클러스터 조성전략 수립



3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24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일원
 - 핵심공간 : 문백면 공예촌길 진천공예마을
 - 연계공간 : 송강사(문백면 송강로), 농다리(문백면 구곡리) 일원
- 내용적 범위
 - 1) 공예문화 및 관광콘텐츠 연구
 - 2) 공예문화 및 관광콘텐츠 국내외 사례
 - 3) 진천공예마을 활성화 전략(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공유경제 등)
 - 4) 송강사~공예마을~농다리 연계협력 전략
 - 5) 홍보마케팅 방안
 - 6) 예산확보 및 사후관리 등



제2장 담론

1. 문화와 예술경영
2.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3. 공예 개요
4. 공예 정책
5. 100년 가게의 비밀
6. 국내·외 사례

1 문화와 예술경영

<1> 문화란?

-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Culture)는 라틴어의 ‘경작하다’, ‘마음을 돌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Cultus’에서 유래했다.
- 따라서 문화는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과 국가를 형성하고 강건케 한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도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자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가 온전하고 강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문화, 중국문화, 서구문화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국의 문화, 우리의 문화가 있는 것이다.
- 현대에 와서는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가 가속되면서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범위도 새롭게 정의 되고 있다. 각기 다른 문화가 융합하면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고 있고 문화다양성, 지역문화의 세방화(Glocalization) 등이 주목 받고 있다.



<2> 예술이란?

- 문화가 다양한 삶의 양식이라면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및 그 활동의 결과물이다.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갖고 있다. 회화, 조소, 노래, 춤, 영상, 문학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사유토록 하며 새로운 성찰과 꿈을 가져다 준다
- “예술은 인간의 이성적 의식을 감정으로 옮겨 놓는 인간 생활의 한 기관이다. 오늘날 만인에게 공통된 종교적 자각은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는 생각과 인간 상호간의 결합이 곧 행복을 의미 한다는 생각이다. 예술은 폭력을 배제해야만 한다. 예술은 동포애와 타인을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을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대중 예술은 각각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그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화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기쁨을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은 인간 상호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폭력 대신 신의 세계, 즉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예술의 사명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만인의 동포적 결합을, 사랑으로 실현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톨스토이

<3> 문화예술경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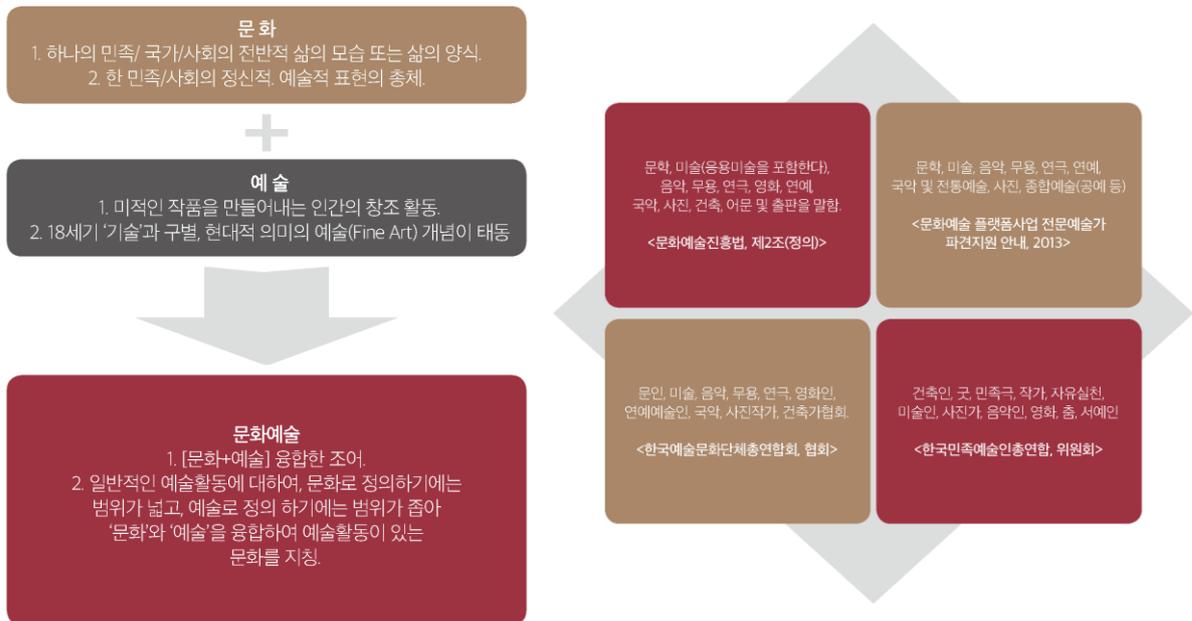
- 문화예술경영이란 다섯 가지의 전통적 기능, 즉 계획하고(Planning), 조직하고(Organizing), 직원을 두고(Staffing), 감독하고(Supervising), 통제하는(Controlling) 활동을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의 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예술가의 작품을 관객에게 제시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다
- 창조적 과정과 관객에 대한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경영하는 것은 한편으로 공적 기구의 일이며, 동시에 비영리단체(문화예술분야)와 사회적 기구, 상업적 기구, 수익 예술단체(화랑, 극장 등)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일이다. 세계 공공정책 및 행정 대백과사전

로버트 루빈스타인

<생각의 탄생> 13가지 생각의 도구

- ① 관찰 ② 형상화 ③ 추상화 ④ 패턴인식
- ⑤ 패턴형식 ⑥ 유추 ⑦ 몸으로 생각하기
- ⑧ 감정이입 ⑨ 차원적 사고 ⑩ 모형만들기
- ⑪ 놀이 ⑫ 변형 ⑬ 통합

* 레오르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피카소, 마르셀 뒤샹, 버지니아 울프 등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가는 창조적 사고와 행동, 지식의 대통합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했음.



■ 문화예술의 정의

○ 유네스코

문화활동의 공공 재정에 관한 통계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권고(1980). <국제규범>

- 문화 분야의 카테고리(11) : 문화유산, 인쇄물과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와 사진,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회문화적 활동들, 스포츠와 게임들, 자연과 환경, 문화행정과 위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카테고리	내 용
시각예술	회화, 조각, 장식, 혹은 공예품 등의 형태로 시각예술 작품을 창작, 생산, 보급하기 위한 활동. 시각예술 작품의 창작, 시각예술 작품의 발표와 제작, 시각예술 작품의 전시, 시각예술의 보급과 판매,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시각예술 작품의 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자료 및 기기의 생산과 판매 등의 기타 보조활동들.
영화와 사진	영화 창작(영화 필름의 제작, 영화 배포, 영화 상영, 사진,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영화와 사진에 필요한 기타 보조 활동들(필름, 스크린, 촬영기, 사진기, 음향기기, 영상기 및 영화 상영에 이용되는 건물의 제작과 보급)
라디오와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방송과 텔레비전에 필요한 여타 활동들. (송, 수신장치 및 방송망의 생산과 판매)
사회문화적 활동들	사회문화적 발의, 지역사회 문화센터 및 아마추어 활동의 장려. 시민들의 전문적인 모임, 여타 사회, 문화적 활동들(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혹은 철학적 신념과 관련있는 양식들과 사회적 기능들),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사회, 문화적 활동에 필요한 여타활동들.
스포츠와 게임들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단체들, 스포츠 장비의 생산, 운동장과 여타 시설의 건설과 유지,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자연과 환경	자연공원, 천연적 휴양지, 공공 해수욕장, 산림 산책로, 도시공원, 나무들, 어린이 오락시설 등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및 위 다른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들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음악당, 영화관 혹은 회의장으로 사용되는 다목적홀, 위의 카테고리도 분사할 수 없는 여타 활동들.

○ 정책적 정의(두 가지 원칙을 축으로)

개 념	내 용
수월성 (Excell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으로 탁월한 예술 작품의 육성 목적 • 창작자(공급) 관점 • 정책대상 : 재능 있는 예술가 발굴 지원 • 프로페셔널 - 전문예술 • 전문 창작역량의 발전 → 예술적 발전
접근성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목적 • 수요자(소비) 관점 : 시민 수혜 • 정책대상 : 예술 접근과 향유의 기회 확대 • 아마추어리즘 - 생활예술 • 예술적 성과 ->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

<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 창의적 인재 양성

- 소프트웨어와 기술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강조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문학적 지식과 창조적 시선을 중시하고 있다.
- 공교육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한계가 있어 대안 교육, 창조교육, 생각교육, 자연교육 등이 전개되고 있다.

※ <1만시간의 법칙>을 실천한 아웃라이어(outliers, 걸물)

- 자신만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기량을 갈고 닦으며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피겨의 여왕 김연아,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설치미술가 강익중 등)

※ 독일 자연학교

- 독일은 1,300여 개의 자연학교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문학인, 음악인, 미술인, 철학자, 과학자 등을 배출하고 있음

○ 장르간 융복합 콘텐츠

-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장르의 경계와 벽이 허물어 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융합하고 하나가 돼 새로운 문화예술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 특정한 재료, 기술, 장르 중심의 순수예술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자연과 과학, 공예와 회화, 음악과 영상, 디자인과 건축, 미술과 문학 등 융·합형 콘텐츠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4차 산업으로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다.

※ 콘텐츠코리아랩

- 스토리, 아이디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합 콘텐츠를 창작하고 교육하며 스타트업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음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

- 한국의 전통적 문화원형을 아날로그적인 퍼포먼스와 디지털 미디어,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드론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시켜 새로운 감동을 만들면서 문화 올림픽의 새 장을 열었음

○ 지역+문화+자연의 조화

- 모든 문화는 변방에서 시작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변방은 곧 지역을 일컫는다. 나라 안팎으로 변방(지역)의 문화와 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자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특화하며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 지역특화콘텐츠 발굴 사업

- 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 교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며 특화하는 사업
- 지역의 자원을 애니메이션, 공연, 영상, AI, VI, 홀로그램 등으로 특화

※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의 인재, 자원 등을 발굴하고 특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정부기관
- 지자체간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상생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 공동체적 성찰과 활동

- 산업사회, 자본시장,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주의와 익명성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 이에 따라 공익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적 놀이, 학습,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 고도원의 아침편지 재단

- 고도원 씨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매일 아침마다 회원(380여만 명)들에게 시와 메시지를 배달하고 있으며 충북 충주에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충주의 아침편지 웅달샘에서는 인문학, 교양, 심신수련 등 50여 종의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5만여 명 이용하고 있음

※ 월드컬처오픈(WCO)

- 갈등과 대립의 지구촌을 문화로 하나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비영리 국제조직(위원장 홍석현)
- 컬처디자이너 발굴 사업, 세계문화대회, 창조학교 등 세계 각국의 공익활동가 발굴 및 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생산적, 경제적 활동

- 문화예술을 창작과 향유의 논리, 가진 자의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견인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활동이 필요하며 문학, 미술, 공연, 축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

-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 문화와 예술, 건축과 디자인 등의 조화로 세계의 파리로 주목
- 박물관, 미술관, 공공디자인, 생태디자인, 음식과 공연, 패션과 쇼핑 등의 융합 콘텐츠로 체계적인 지원 및 운영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 베니스비엔날레

- 1895년 처음 개막한 세계 최초의 비엔날레로 옛 조선소 공장 등을 활용해 2년 마다 개최하면서 베니스를 관광도시, 미술의 도시로 도약
- 매회 비엔날레 개최할 때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순수 관람객이 100만 명이며 입장료 수익만 300억 원에 달함



<1> 문화산업이란?

-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서비스사회를 거쳐 현재는 문화산업사회와 4차 산업사회의 중심에 서 있다.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 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

※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것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 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 상품의 생산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 된 산업

- 영국은 산업혁명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산업 진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문화적 개념에 창의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장르간 융·복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업이다.

※ 문화산업 관련한 용어의 정의

- <문화상품>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體化) 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 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포함)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 <콘텐츠>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
- <문화콘텐츠> 문화적 요소가 체화 된 콘텐츠
- <디지털콘텐츠> 부호·문자·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한 것
- <디지털문화콘텐츠> 문화적 요소가 체화 된 디지털콘텐츠
- <멀티미디어콘텐츠>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
- <공공문화콘텐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 <에듀테인먼트>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차별화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 문화산업의 정의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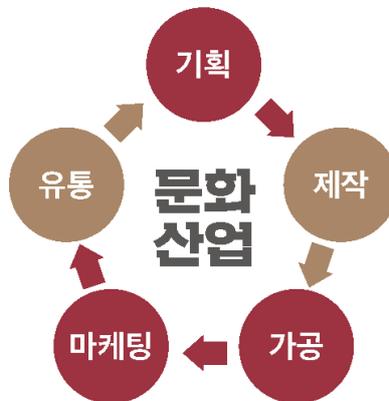
- 문화의 대중화 현상 또는 예술의 경제화 과정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개념.
이윤 창출 목적으로 문화예술을 도구화 비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관계를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대립항(이분법적)으로 본 시각.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협의] 오락(fun)적 요소가 상품의 부가가치 형성에 큰 역할 하는 산업.

[광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창작되거나 문화상품화 되어 소비되기까지 모든 단계의 산업
(기획·제작·가공·마케팅·소비유통)

- 상징적 의미와 재미(fun) 및 표상(Image)을 파는 산업으로, ‘상징산업’이자 ‘감성기반산업’
- 문화유산, 생활양식, 아이디어, 예술적 감성 등 문화적 요소들을 기획과 기술을 통해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유통시키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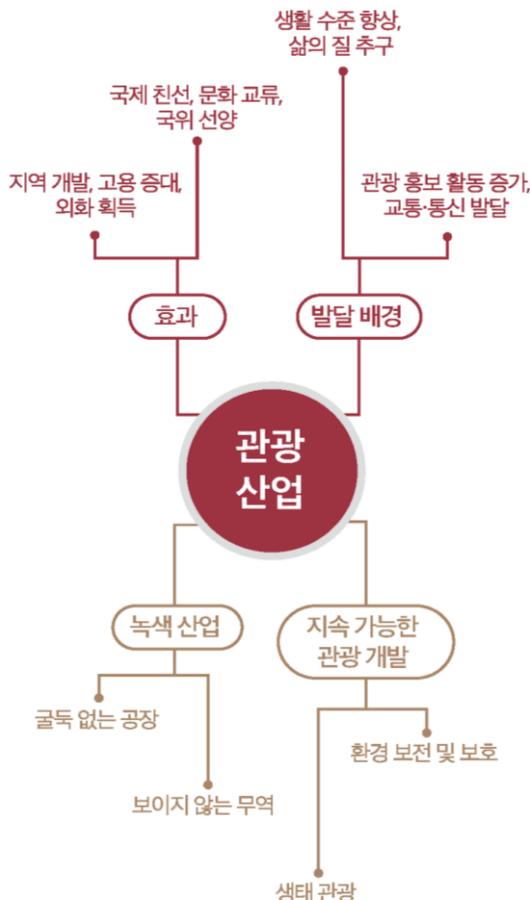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문화예술	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의 영감에 의한 순수 예술활동 • 생활예술 등 문화예술 참여와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생산 / 소비의 시장경제에서 문화상품의 상업화를 위한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적, 문화적 가치 추구(비산업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 추구(산업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지원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보호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구매반응에 결정되므로 상품의 개발과 유통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원작(Origin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복제

<2> 관광산업이란?

-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방문해 보고 체험하며 즐기는 행위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을 관광이라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을 관광 자원이라고 한다. 관광 산업은 이러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교통, 숙박, 음식, 오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관광 산업의 성장 요인으로는 업무 자동화에 의한 근로 시간 단축,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여유, 교육수준의 향상, 관광 홍보 활동의 증가, 관광 기반 시설 확충, 교통 및 대중 매체 발달,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보 통신 발달로 인한 여행정보 수집용이 등이 있다. 관광 산업의 발달은 국민 소득 향상 및 소득 증대, 외화 획득, 국제 친선, 국위 선양, 문화 교류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고용 불안정, 전통 문화유산의 훼손, 생태계 파괴 및 환경 오염, 외부인과의 문화 충돌 등은 관광 산업 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최근에는 테마가 있는 관광, 체험 중심의 관광, 힐링 및 치유의 관광, 소규모의 작고 확실한 행복을 찾는 관광(소확행)이 인기를 끌면서 공정여행이 각광받고 있다.
- 따라서 관광산업을 육성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국민의 의식 수준, 그리고 관광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의 개발을 추구해야 하며, 지역 고유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 관광을 상품화해야 한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확장

- 영국 <창조산업> 사례
- [확장된 문화산업 =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기초예술, 관광 등 각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
- *핵심동력은 창조자(Creator)



○ 공간의 가치, 지역의 가치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랑도 사라진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문화콘텐츠 생산 기술은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소는 지역에 있다.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건축 등의 자원, 그 지역에서만 보고 즐기며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문화 산업으로, 관광자원으로 특화하고 있다.

※ 전북 전주

-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원의 경기전, 풍남문, 오목대 이목대 등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옥체험, 음식체험, 전통문화체험 등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

※ 경북 안동

- 유교정신과 양반문화의 산실, 하회마을과 주변의 고택을 중심으로 색다른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안동의 유교문화를 디지털로 체험케 하면서 낡고 고루한 이미지 탈피하고 가족단위 체험지 인기

○ 역사의 가치, 문화의 가치

지역의 역사적 자원,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와 축제행사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 시키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정부의 정책 또한 보존 중심에서 활용과 공유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역사에 대한 재인식 및 역사문화가 삶에 스미고 물들며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 정동야행

- 조선시대 왕이 머물던 덕수궁을 비롯해 근대 서양문화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던 곳 정동. 지금도 각국의 외교공관을 비롯해 이화학당,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등이 100여 년의 세월을 버티며 정동의 생생한 역사문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곳에서 야간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정동야행의 인기에 따라 경주, 군산, 강릉,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행 프로그램 운영 중

○ 자연의 가치, 생태의 가치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자연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예술 행위는 자연을 닮아가는 행위다.”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연처럼 즐기며 치유의 길을 찾는 자연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자연이 주는 생태적 특징과 주변의 환경을 활용한 정원, 올레길, 둘레길 등과 이와 연계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다

※ 전남 순천

- 국가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순천의 자연주의를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도약했다. 정원 속에는 자연과 생태, 문화와 예술, 역사의 숨결 등이 오롯이 담겨있음

※ 제주 올레길

- 제주도가 치유의 섬, 힐링의 섬, 낭만의 섬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며 전국 각지에 둘레길 열풍을 만들기도 했음

○ 스토리텔링과 SNS의 가치

- 기술의 시대에서 디자인의 시대로, 다시 스토리텔링의 시대로 들어섰다. 기업의 상품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공간과 문화콘텐츠에 스토리를 입혀야 상품성이 높아지며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도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러가 시대의 화두다.
- SNS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콘텐츠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수많은 SNS 매체를 통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요동친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SNS가 대세가 된 것이다.

※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 이탈리아 베로나에 위치한 곳으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것에 착안, 스토리텔링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킴

※ 군산 근대문화유산 거리

- 오랫동안 버려지고 방치된 일제의 잔재 등이 근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과 음식콘텐츠 등 SNS의 영향으로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음

○ 융·복합 콘텐츠의 가치

뭉쳐야 산다. 하나의 장르, 하나의 콘텐츠만으로는ダイナミック한 세계에서 주목 받을 수 없다. 스토리와 디자인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장르의 창조적인 콘텐츠와 문화상품을 만든다. 도시의 경우도 그렇다. 공간의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융합 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의 이슈가 된다. ‘창조하는 작은 거인(크리안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융·복합콘텐츠 유형

- 산업융합형콘텐츠 미디어아트콘텐츠(미디어파사드 등), 디지털패션콘텐츠, 헬스케어 콘텐츠
- 장르융합형콘텐츠 소셜콘텐츠(카카오토리 등), 공연예술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 기술융합형콘텐츠 입체/실감콘텐츠(영화 아바타 등), 체험감성콘텐츠, 인터랙티브콘텐츠

※ 강원도 강릉

- 바다가 있고, 단오놀이가 있는 강릉에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거리. 전통(단오), 현대(커피), 자연(바다, 소나무)의 조화와 스토리텔링으로 문화도시, 힐링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 감성+체험의 가치

“체험케 하라. 감동을 주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기술을 뛰어넘어 소비자가 직접 체험토록 하고 감성에 젖고 물들며 감동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냉정하다. 오감이 행복하고 추억과 감동으로 빛나는 그 무엇을 만들어야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 보령 머드축제

- 지역의 자원(바다+머드)을 직접 체험하며 즐기면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축제로 전개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외국인이 참여하고 싶은 축제가 됨

※ 서울 익선동 한옥거리

-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즐비한 거리에 게스트하우스, 카페, 공방, 먹거리 등이 즐비 하며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주목됨

※ 안동 유교랜드

- 유교문화의 도시 안동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유교랜드에서 스토리텔링+영상+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특화 시켜 새로운 체험과 감동을 만들고 있음

3 | 공예 개요

<1> 공예란 무엇인가

공예(工藝)는 ‘공작에 대한 예술’ 또는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직물, 염직, 칠기, 도자 따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로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다.

공예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아름다운 쓰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금속, 도자, 목칠, 섬유, 유리 등의 현대공예와 오랜 세월 계승돼 온 전통 공예가 서로의 존재가치를 발휘하면서 상생하고 있다.

공예는 두 번의 운명을 겪게 된다. 첫 번째는 자연에서 소재(재료)를 얻어 인간의 지혜와 솜씨, 미적 감수성과 다양한 기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창작자로서의 운명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공예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운명이다. 공예품은 이를 만든 사람의 손길을 거쳐 누군가에 의해 특별한 쓰임을 가짐으로써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예야말로 인간의 손이 만들어 낸 가장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이며 지역과 국가의 문화 DNA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미학이자 철학이고 과학이며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공예는 소재와 장르와 시공을 뛰어넘어 창의의 자양분인 문화를 비옥하게 하고, 창의의 흙씨인 예술을 널리 퍼뜨리며, 새로운 미래비전을 디자인하는 문화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공예의 역사

문자도 활자도 없던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으며, 보다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갈망해 왔다. 그 아름다움과 욕망을 담기 위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인간은 공예라는 그릇과 함께 역사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유용한 농기구를 만들었으며, 삶이 풍요로웠던 시대에는 단순한 기능미를 뛰어넘어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써의 공예품이 제작되었다. 암울한 시대에는 장식미 보다는 기능미에 초점을 두었다. 신라의 금관, 고려의 청자, 조선의 백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예품을 보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온기가 서린, 실용과 탐미가 어우러져 싱싱한 생명력을 발하는 공예의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금관(국보 191호, 신라, 국립중앙박물관)

▶ **생활과 신앙으로서의 공예 선사시대**

한반도에선 약 250만년 전인 구석기시대부터 도구가 제작 되었다. 도구를 만들면서 사냥을 하고 집을 짓는 등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B.C. 6000년경인 신석기 시대 부터 농사가 시작되었다. 유목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각종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실용적인 토기가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B.C. 10세기경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으로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잉여 생산물의 증가로 부의 축적에 의한 계급이 발생되었다. 이 시기에는 동검, 창, 거울, 의기(儀器) 등이 생산되었고, 철제 농기구도 본격적으로 생산 및 활용 되었으며 전쟁을 위한 무기도 생산되었다.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마제석기
(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주먹도끼
(구석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잔무늬거울
(초기철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반구대암각화 선사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유추되는 울산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10개의 바위에 그려져 있는 바다동물, 육지동물, 사람과 배, 작살 등이 새겨져 있으며 선사인들의 사냥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어 생활에 기반 한 예술적(종교적) 공예의 시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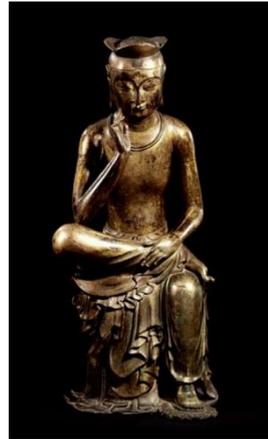
▶ **종교의 이념과 지역의 특성을 담은 공예 삼국·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는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기원후 7세기 중엽까지 한반도 북반부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고구려, 한반도 남서쪽의 백제, 남쪽의 가야, 동남쪽의 신라가 정립하던 때이다. 이 나라들은 각기 점유하고 있던 환경조건과 중국과의 교류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겼으며 불교가 중흥하면서 공예 속에도 자연스럽게 그 정신이 깃들게 되었다. 고구려의 공예는 힘차고 강건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고분의 부장품인 관모, 귀걸이 팔지 등의 장신구는 남성적이며 고구려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평야가 많아 식량이 풍부했던 백제는 은은하면서도 화려하며 섬세하면서도 자연주의를 느낄 수 있다.

국보 제 287호인 백제의 금동대향로는 불교와 도교 문화가 어떻게 꽃피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와 장인집단인 와박사(渦搏士)는 신라와 일본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문물이 유입되었는데 동남방의 안전한 지형 때문에 가장 화려하고 고유한 문화를 발전 시킬 수 있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귀족들의 부를 기반으로 백제·고구려의 문화와 당나라 문물을 수용하면서 문화변영을 구가하던 시기이다. 인화무늬(印花紋)가 크게 유행하였으며, 목조건물의 지붕에 얹었던 기와나 벽과 바닥에 장식하였던 벽돌은 당시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등 삼국의 문화가 다양하게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적 독창성을 공고히 하였다.



금귀걸이
(고구려,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삼국, 국립중앙박물관)



백제 금동대향로
(백제, 국립중앙박물관)



오리모양토기(원삼국,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녹유대접(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인화문이란 전통적인 분청기법 중의 하나다. 도자기 태토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나무나 초벌구이 등을 이용한 도장을 압날하여 그 문양을 새겨 판 뒤 그곳에 태토와 색깔이 다른 흙을 입혀 굽어 내거나 그 상태 그대로 음각의 효과를 준다거나 할 때 사용한다.

▶ 귀족예술의 절정 고려시대

고려시대 문화는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귀족적이고 화려하다. 건국이념으로 숭불정책을 취했을 정도로 불교는 고려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불교는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을 자연스레 계급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고려의 공예가 불교문화와 귀족중심으로 발전하게 했다.

고 사찰의 건축이나 탑, 불상, 그리고 도자공예는 고려의 귀족적이고 화려함의 극치를 엿볼 수 있다.

청자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왔으나 중국의 청자보다 색과 빛이 더 맑고 밝으며 상감(象嵌)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발전시켰다. 또한 불교가 고려인의 생활전반에 깊이 뿌리 내려 정교하고 화려한 불교미술품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청동 범종, 금고, 은입사향완 등 뛰어난 주조술을 자랑하는 금속공예의 명품들이 쏟아졌다. 또 조개 껍질 등을 칠기에 붙여 광택을 내는 나전칠기도 고려시대에 발전했으며 외국 왕실에 선물로 보낼 만큼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했다.



금동제장신구(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상감이란 나무·도자·유리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안에 금·은·나전·흙·보석·자개 등을 넣어 채우는 장식기법이다.

나전칠기란 칠공예 중에서 가장 화려한 기법인 나전칠기는 옷칠을 한 바탕에 자개를 붙이거나 박아 그림과 무늬를 놓는 우리 고유의 공예기법으로 스무가지가 넘는 공정을 짚아야 두 달, 길게는 몇 달에 걸쳐 공을 들여야 하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청자연꽃넝쿨무늬매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물가풍경무늬정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 실용성과 예술성의 조화 **조선시대**

화려하고 장엄한 불교미술과 고고하고 우아한 청자를 낳은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여 청렴하고 담백한 공예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서민적이고 실용적인 공예가 발달한 것이다.

도자공예는 상감의 화려함 대신 백자의 단아함이 눈에 띄고 분청사기 역시 접시, 매병, 향아리 등 실용적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많이 탄생했다. 목공예는 문갑, 탁자, 경대, 필통 등 일반 생활용품이 주를 이루며 흥했으며 십장생 무늬를 넣어 소박한 인간의 염원을 담았다. 나전칠기, 지공예, 자수공예, 짚풀공예 등 수 많은 공예품들이 실용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에 그림자처럼 투영되었다.

그렇지만 조선의 유교는 공예를 서민의 품으로 돌려준 반면에 사농공상은 장인의 능력에 관대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수많은 예술작품과 장인들이 소홀히 다뤄지거나 소멸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백자 매화 대나무 무늬 향아리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청화백자 '祭' 자무늬제기접시
(조선, 강화역사박물관)

십장생이란 십장생이란 민간신앙이나 도교에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이다. 거북(龜)·사슴(鹿)·학(鶴)·소나무(松)·대나무(竹)·불로초(不老草)·산(山)·내(川)·해(日)·달(月)을 꼽기도 하고, 해·돌(石)·물(水)·구름(雲)·소나무·대나무·거북·학·산·불로초를 꼽기도 한다. 동양에서 거북은 학과 함께 오래 사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 휘지 않고 푸르른 상록수인 대나무, 그밖에 자연의 기본 요소이자 인간의 수명장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길상(吉祥)인 해와 달, 구름과 물, 바위를 십장생으로 꼽는다.



나전빗접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역사의 단절과 뼈아픈 상처 일제강점기와 8·15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역사문화를 단절시키고 정신까지 황폐화시켰다.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산하고 시대정신으로 꽃피워야 할 문화가 최대 고비를 맞은 것이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끊임없이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해 가고 도공을 끌고 갔으며, 심지어는 조선의 정신까지 왜곡 및 말살하려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국보급 각종 문화재 수탈과 민족문화말살이 극에 달했다. 현재 조선총독부 등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만 6만여 점이 되며 이중 도쿄국립박물관에 914점, 영락미술관에 260점이 소장돼 있다.

8·15해방 후에는 이 같은 뼈아픈 역사를 보듬을 틈도 없이 산업화의 틈바구니에 접어들어야 했으며 6·25전쟁을 통해 또 한 번 우리의 문화가 상처를 입어야 했다. 산업화는 대량생산과 물질화를 양산 하면서 수공예가 퇴색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와중에 유학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구의 공예 사조가 들어오면서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간극이 생겨났다.

전통과 현대, 순수공예와 생활공예, 디자인과 산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의 문화재 한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는 일본 궁내청이나 도쿄, 교토의 국립박물관, 도쿄대, 와세다대 등 국공립 대규모 시설 57곳과 도쿄의 사찰 조조지(増上寺)나 교토의 지온인(知恩院) 같은 사찰 등 145곳에 흩어져 있고, 개인 48명도 한반도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소유 중이다. 대다수는 서적류와 도자기 등이지만 도쿄 오키라 호텔 뒤뜰에 세워진 오층석탑 같은 탑이나 불상 등도 포함 돼 있다. 조사된 것만 6만여 점이며 최대 30만여 점이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한국의 무형 문화재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계승 및 보존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 및 문화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공예분야에서는 500여 명의 전승자(匠人)들이 활동하고 있다.



- ▶ 도자공예 사기장, 옹기장, 옥장, 재와장
- ▶ 금속공예 조각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유기장, 입사장, 금속활자장, 주철장
- ▶ 목공예 나전장, 낙죽장, 악기장, 궁시장, 채상장, 소목장, 전통장, 소반장, 완초장, 각지장, 목조각장, 화각장, 윤도장, 칠장, 염장
- ▶ 섬유공예 갓일,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 셋골나이, 곡성 돌실나이, 망건장, 탕건장, 자수장, 명주짜기, 침선장, 누비장, 염색장, 화혜장, 금박장
- ▶ 지단형 불교공예 단청장, 불화장

<4> 한국의 현대 공예 & 디자인

현대인들은 단순한 기능성과 성장지상주의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실용미학으로서의 공예를 뛰어넘어 삶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미래가치를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정신을 갈망하고 인간의 서정과 온기, 자연의 숨결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으며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생활예술과 디자인의 조화 및 통섭과 융합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재료 중심의 장르가 파괴되고 전통과 현대와 함께 만나며 공예와 공예 밖의 다양한 장르가 통섭 및 융합하고 있다.

고려청자, 이조백자, 분청사기의 도자문화에서부터 금속, 목칠, 섬유 등 한국의 공예문화는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인의 서정과 자연을 품고 있으며 미래를 밝히고 생활 세계를 섬기는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 한옥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자연의 멋을 품고 있는 것도 공예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는 한지장, 금속활자장, 필장, 배첩장 등 수많은 장인들의 땀과 열정과 기예의 결정체가 아니던가. 우리 몸 속에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장인의 DNA가 흐르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미래를 공예문화에서 찾으려는 지혜와 열정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에서부터 최첨단 IT·BT·CT 산업에 이르기까지 공예로 통(通)하는 나라만이 희망이 있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옛 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하려는 발상의 전환, 생태와 지역문화가 조화로운 공예 크루즈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모색과 가치의 확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4 공예 정책

<1>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2015년 11월 19일 공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 법제정 목적 및 정의

<목적> 공예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 공예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이바지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는 수작업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공예품이란> 실용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 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 기법을 활용한 현대공예의 제품

<공예문화산업>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 창작, 제작, 유통, 전시, 소비, 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 시행령 핵심내용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전임교수 요원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바닥면적 총 100㎡ 이상의 교육시설)의 교육 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강사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 자재비를 지원할 수 있음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 조사, 연구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우수공예품의 지정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공예품으로서 제작 기술, 시장 경쟁력, 안전성 등의 기준을 갖춘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 공예품의 브랜드화 및 시장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기타사항>

-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지원
- 전통과 현대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 발전
-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창업 및 제작지원, 기술개발 지원

<2> 무형문화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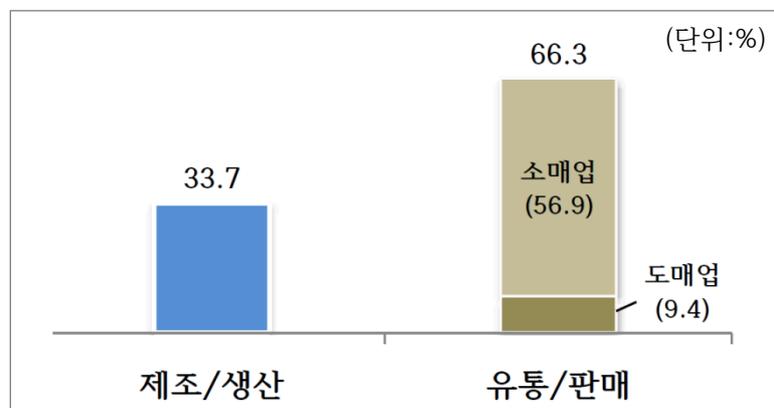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법 제정 및 운영 중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 무형문화재 교육 및 인력양성
 - 무형문화재 조사, 기록, 정보화 사업
 - 무형문화재 국제화 사업 등
 -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사업(정부)
 - ※지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사업(각 지자체)

<3> 대한민국명장

- 공예와 일반 산업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에게 정부(중소기업청)가 지정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숙련된 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자 또는 성과가 뛰어난 자
 - 산업화, 현대화 실적이 뛰어난 자
 - ※명장패 수여, 일시 장려금 지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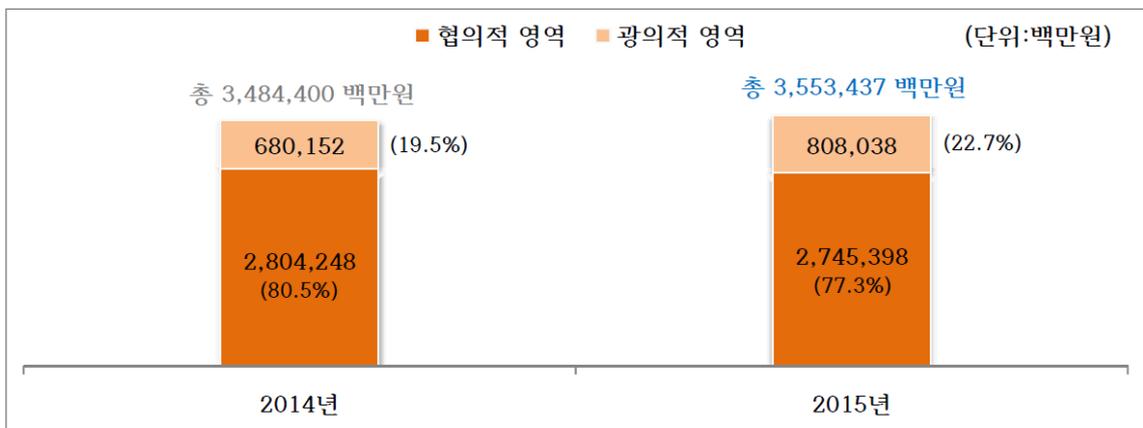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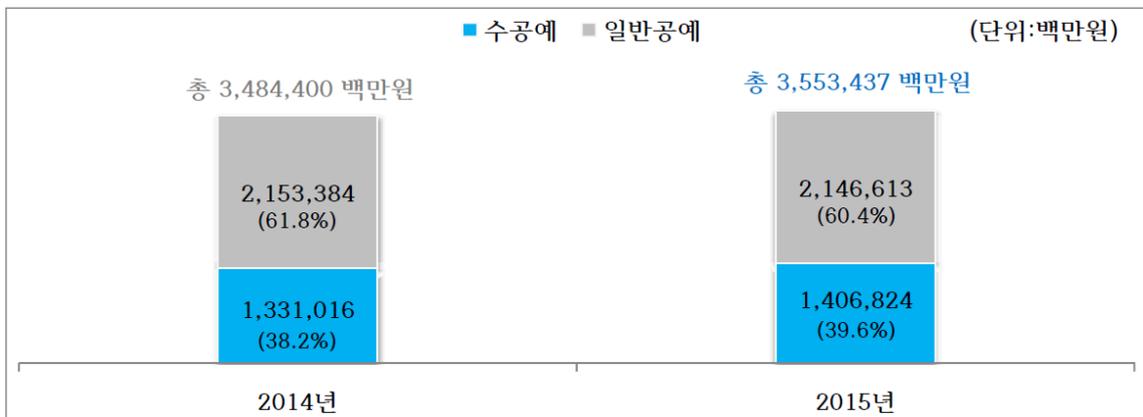
<4> 국내 공예산업 현황 (2017년 1월 31일 공예산업실태조사 참조)

- 공예산업 구성
 - 전체 공예사업체 중 제조/생산이 33.7%, 유통/판매가 66.3%를 차지
 - 업종별로는 수공업이 41.9%, 일반공예 58.1%를 차지



○ 2015년 공예산업 규모

- 수공예를 중심으로 하는 공예산업의 총 매출액은 1조 4,068억 원, 전체 종사자는 26,284명 수준으로 추정
- 기계공예 및 도매업 등을 포괄한 전체 공예산업의 총 매출액은 3조 5,534억 원, 전체 종사자는 67,698명 수준으로 추정
- 업종별 총 매출액은 제조/생산이 1조 2,967억 원, 유통/판매가 2조 2,568억 원으로 추정됨
- 종사자 수는 제조/생산이 25,792명, 유통/판매가 41,906명으로 추정 됨
- 종사자 1인당 연간 총 매출액은 평균 5,250만 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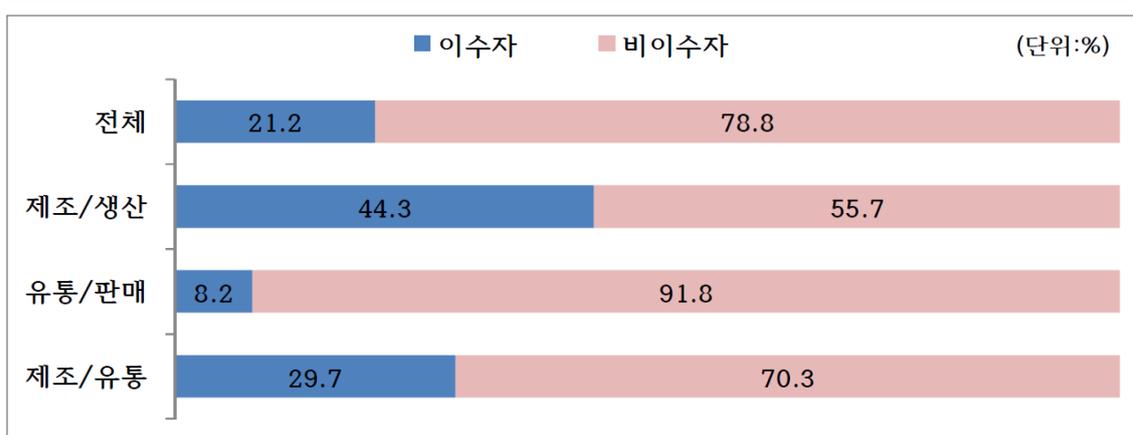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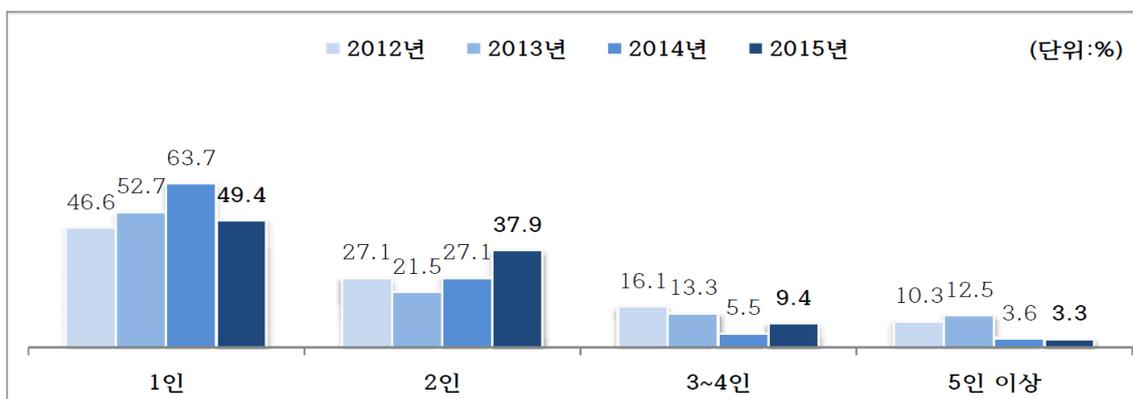


【 2015년 세부 시장 규모 】

구분		매출액(백만원)	%	
총매출액		3,553,437	100.0	
업종	제조/생산	제조	902,963	83.5
		유통	151,125	14.0
		수출	7,248	0.7
		교육	20,116	1.9
	유통/판매	내수	2,237,117	99.1
		수출	19,634	0.9
사업체당 매출액		104.0		
1인당 매출액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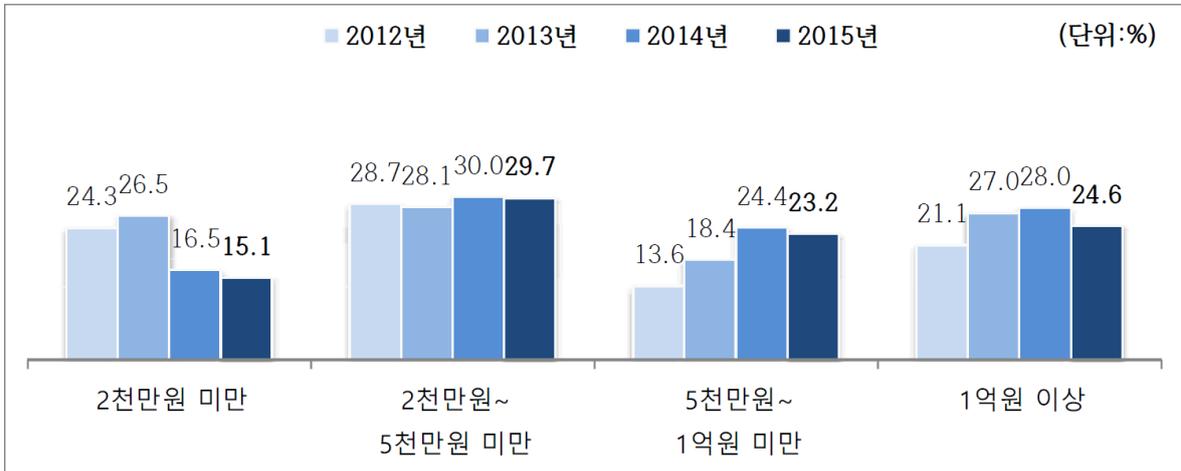
○ 인력 현황

- 공예사업체의 평균 종사자는 1.8명으로 대부분 1~2인 사업체로 운영
- 여성 종사자가 50.3%, 남성 종사자가 49.7%로 나타남
- 1인 49.4%, 2인 37.9%, 3~4인 9.4%, 5인 이상 3.3% 순
- 공예사업체의 종사자 중 공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는 21.2%로 나타남
- 그 중 제조업/생산의 종사자 44.3%, 유통/판매 종사자 8.2%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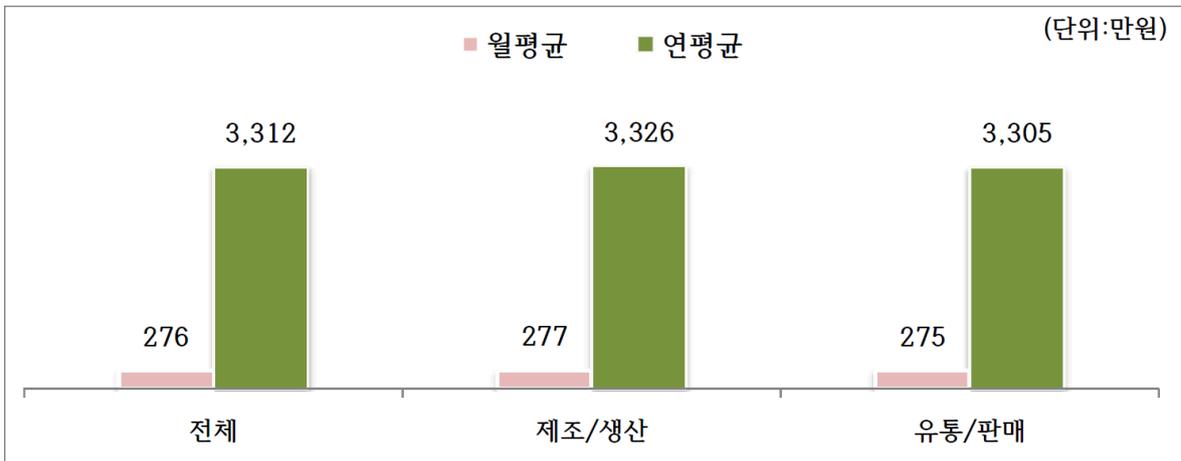
○ 2015년 매출액

- 공예사업체의 2015년 평균 매출액은 월간 866만원, 연간 10,397만원
- 매출액 구간별 2천만~5천만 원 미만(29.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억 원 이상의 고 매출 구간이 24.6%로 나타남



○ 매출 순이익

- 공예사업체의 순이익 평균은 월간 276만 원, 연가 3,312만 원 수준
- 제조/생산의 경우 월간 277만 원, 연가 3,326만 원으로 나타나며 유통/판매의 경우 월간 275만 원, 연간 3,305만 원으로 나타남



【 주요 선진국의 디자인·공예부문 문화지원방식 】

국가	문화지원방식	
	디자인 부문	공예부문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관 및 지자체 중심의 분권 관리체계 ▶ 디자인 문화적 측면 강조 ▶ 산업부/문화부 이원화된 진흥 정책 ▶ 문화부 중심의 전시회와 디자인상 재정, 디자인에 대한 관심 고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문화 조직을 갖춘 문화부 모델로서 산업부 소속 ▶ 공예산업 담당 부서과 관할 ▶ 실질적 행정업무는 DECAS에서 담당 ▶ 자국문화를 알리는 역할로 공예를 선택, 이에 대한 시각과 지원은 문화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짐
	창작활동 기반의 디자인, 공예문화산업을 통해 자국문화를 알리고 도시별 다양한 문화정책 시행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진흥기관 디자인카운슬을 중심으로 디자인관련 유관부처, 지방 정부, 지역개발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 산업체가 참여하는 협력체제 하에 공동 진흥 사업 추진 ▶ 창조산업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인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와 산화기관인 Art Council에서 관장, 실질적인 업무는 영국의 공예관련 대표적인 기관인 영국공예총(Crafts Council)이 수행 ▶ 국가적 공예산업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부흥활동 ▶ 창조활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 환경마련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역량강화, 포괄적 창조활동을 포함한 공예 산업 촉진, 부흥활동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와 국제디자인 교류협회가 디자인진흥의 중심기관 역할을 하며, 주요 지역별로 지역 디자인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다양한 디자인 정책을 시행 ▶ 지방자치제, 지역 경제단체 등과 협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공예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다양하고 계획적으로 전개 ▶ 전통공예산업진흥을 위한 공예산업 진흥협회 설립 ▶ 산지 진흥의 지도사업, 전통적 공예품의 계몽보급, 콩쿠르/전시회의 개최, 각종 정보의 제공, 교육사업
	전통문화를 통한 디자인 정책으로 국가 브랜드 구축, 전통공예 육성 지원정책 활성화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디자인 진흥기관인 디자인 카운슬과 지역별 지역디자인센터가 상호보완적인 디자인 진흥 활동을 전개 ▶ 지역 정부 주도의 디자인 진흥사업 수행 ▶ 지방분권과 전문 분야의 분화에서 나오는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심의 전통공예산업 ▶ 독일 전역 16개 주정부가 각각 다른 공예 진흥정책을 가지고 실시 ▶ 지역 문화에 부합하는 수공예를 특정 지역에서 활성화
	지역 문화에 적합한 디자인, 공예의 진흥 활동의 전개	

5 100년의 가게 비밀

① 마음을 담은 뉴욕의 맛

미국 정통 스테이크하우스
올드 홈스테드



“손님들이 그동안 이곳에서
맛본 것을 알기에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한다.”

올드 홈스테드 4대 사장, 그레그 셰리



성공비결

1. 최고의 소고기를 고집한다

올드 홈스테드는 세 곳의 도축장에서 고기를 공급받아 거래처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며 최고 중의 최고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가장 중시하는 고객이 되었다. 사장이 도축장에 가서 직접 고기를 검수하고 가게에 들어오면 총주방장이 한 번 더 엄격하게 살핀다.

2. 가족같은 신뢰감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손님과 직원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가족 같고 친구 같은 친근한 분위기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기분 좋고 편안하게 만든다. 직원과 손님, 직원과 사장 사이의 신뢰야말로 절대적인 경쟁력이다.

3. 숙련되고 전문화된 직원들

직원들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20~30년간 일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는 직원들이 오래 일하며 노하우를 갈고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결과다.

4. 신중한 도전 정신

전통과 변화 사이의 밸런스는 어렵고도 중요하다. 올드 홈스테드는 쉽게 맛이나 질을 바꾸지 않지만 손님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진화를 계속한다. 100년 이상 된 메뉴를 유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궁리한다.

② 행복이 담긴 살아있는 초콜릿

프랑스 수제 초콜릿 가게

이르상제르



“초콜릿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뿐이다”

이르상제르 4대 사장, 에두아르 이르상제르



성공비결

1.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장인의 기술

1900년 창업 당시부터 내려온 제조 비법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현재 4대 사장인 에루아르 씨 역시 ‘프랑스 최고 장인상’을 수상한 초콜릿 장인이다.

2. 신선한 친환경 재료

현지 지역 농가에서 직접 공급받은 재료와 제철 과일을 사용하며 잼과 향신료도 직접 만들고 방부제를 일절 넣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15일밖에 되지 않지만 그만큼 건강하고 신선한 초콜릿을 제공한다.

3. 차별화된 맛을 추구

많은 양을 만들기보다 훌륭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쓴다. 50여 가지의 다양한 맛을 제공해 손님들이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르상제르만의 맛을 선보인다.

4. 신제품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전히 새로운 맛을 창조하기 위해 연구하여 매년 신제품을 내놓은 노력은 에두아르 사장을 장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가게의 명성을 보다 널리 알리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③ 세계를 녹이는 터키의 달콤함

터키 디저트 가게

카라코이 굴류올루



“우리 가게의 손님들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대를 이어 찾아온다.
3대째 이어오는 손님들에게 똑같은 맛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카라코이 굴류올루 5대 사장, 나디르 굴류

성공비결

1.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반죽

바클라바의 맛은 얇은 피인 유프카, 견과류인 피스타치오 그리고 버터에 의해 결정된다. 0.01 밀리미터 두께로 글씨가 비쳐 보일 정도로 얇은 유프카는 10년 이상 일해온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다. 피를 만들고, 피스타치오 가루를 뿌리고, 자르는 등 여러 과정에서 수작업이 필수인 제조 과정을 숙련된 장인들이 맡아 맛있는 바클라바를 만든다.

2. 좋은 재료를 고집한다

모든 재료는 가지안테프에서 난 것만을 쓰며 바클라바의 향을 좌우하는 피스타치오는 가지안테프에서 온 1등급만을 쓴다. 또한 마가린이 아닌 질 좋은 버터를 사용해 맛과 향을 좋게 한다. 재료 하나하나 신경 쓰고 철저히 체크하는 것이 맛의 비결이다.

3. 어떤 일이 있어도 품질을 지킨다

군사정권 때 바클라바를 반값에 팔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카라코이 굴류올루는 그 가격에 맞추려면 질이 떨어질 것이라 보았고 결국 바클라바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다른 디저트를 만들어 팔았다. 어떤 위기에도 품질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4. 장인을 존중하는 정신

카라코이 굴류올루에서는 10년마다 이름표에 별 하나씩을 단다. 이런 별을 4, 5개씩 달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만큼 오랜 장인들이 있는 이곳에서는 설거지부터 시작해 최소 10년 이상을 일해야 반죽을 할 수 있고, 판매만 20년 넘게 하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판매 담당 장인이 있다. 오랜 경력의 장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에 바클라바의 맛은 처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④ 546년, 전통의 복원

체코 전통 하우스맥주

우 메드비드쿠

“우리가 하는 일은
맥주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체코 전통 맥주의
매력을 여는 것이다.”

우 메드비드쿠 사장, 안 고에텔



성공비결

1. 천연 재료로 만드는 신선한 맥주

우 메드비드쿠 맥주 맛의 비결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오직 체코에서 난 물, 맥아, 홉, 천연 효모, 이 네 가지 재료만을 사용해 화학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생맥주를 제조한다.

2. 신선한 맥주를 제공한다

우 메드비드쿠의 맥주는 멸균을 하지 않는다. 신선하고 좋은 맛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보관 기간이 다른 맥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며 한 달이 지나면 즉시 폐기한다. 이곳의 맥주가 더욱 특별한 맥주로 인정받는 이유다.

3. 새로운 맥주 개발

우 메드비드쿠는 천연 하우스맥주를 기본으로 발효시간을 조절해 다양한 도수의 맥주와 맥주 초콜릿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독한 맥주로 손꼽히는 알코올 함량 126도의 '엑스 비어 33'이나 맥주를 줄여 만든 초콜릿도 인기가 높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진화해가고 있으니, 멈추지 않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4. 최고의 맥주를 만드는 전통의 기술력

맥주를 제조하는 기술부터 잔에 따르는 기술까지, 전통 방식으로 오크통에서 숙성시키고 신선한 맥주를 손님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우 메드비드쿠 직원들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다. 맥주의 온도, 거품의 양, 잔에 따르는 속도까지 고려해 손님이 맥주를 마시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맛을 유지하려는 기술이 우 메드비드쿠의 힘이다.

5. 전통을 복원하려는 노력

공산화 시절에 빠졌었던 가게를 되찾은 안 사장이 가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통의 복원이다. 그는 장인을 찾아 배웠고 전통 제조 방식을 복원했다. 가게 건물 역시 옛날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고 복원했다. 가게 안 소품 하나하나까지 모두 문화의 일부이고 역사이며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우 메드비드쿠를 찾아와 체코를 느끼고 간다.

⑤ 세월의 멋을 지키다

이탈리아 수제 가죽 가방 명가

보올라



“우리의 가방에 만족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든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가방을 만드는 우리의 의무다.”

보올라 3대 사장, 세르지오 보올라



성공비결

1. 최고의 가죽을 고른다

보올라는 20년째 피사에 위치한 제혁 공장의 가죽만을 구입해 사용한다. 천연 소가죽을 가공하는 업체는 가죽의 부패를 막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가공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아닌 식물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탄닌을 사용한다.

2. 장인이 만드는 견고한 가방

보올라는 기계들을 이용해 판에 박힌 듯이 가죽을 재단하지 않는다. 서류 가방, 여행 가방, 핸드백 등 각각의 가방마다 만들어놓은 종이 본을 이용해 장인이 직접 가죽을 재단한다. 이후 재봉질, 커플을 다는 작업 그리고 로고를 새기는 작업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한다.

3. 합리적인 가격과 수선 서비스

보올라는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지만 적절한 가격을 책정한다. 사용된 재료의 양을 정확히 계산한 뒤, 그 금액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57퍼센트를 더해 판매한다. 거품 없는 가격은 중요한 경쟁력이다. 또한 수십 년이 지

난 오래된 가방을 지금도 수선해주는 고객 중심의 철학도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비결이다.

4.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내는 가족들

보올라 가족은 각자 고유의 활동 영역에서 제 몫을 하며 가게를 지킨다. 3대 사장이다 아버지인 세르지오는 가방 디자인과 제작 총괄, 장남 프란체스코는 판매 담당, 차남 로렌조는 홍보 담당, 딸 비바라는 제품 생산을 맡는다. 1대에서 4대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106년의 긴 세월을 이어온 보올라의 숨은 힘은 가족 경영이다.

4. 연구를 거듭해 진화한다

3대 세르지오 사장은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넘겼지만 여전히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며 신제품을 만든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는 물세탁과 다림질이 가능한 가방을 탄생시켜 혁신을 이뤄냈다. 또한 보올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⑥ 자연에서 얻은 105년의 깊은 향

프랑스 천연 비누

랑팔 라투르



“우리의 작은 비누는
하루하루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랑팔 라투르 6대 사장, 장 루이 플로



성공비결

1. 인위적 천연 재료를 고집한다

랑팔 라투르의 비누는 천연 원료만을 사용하기로 유명하다. 비누의 재료들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것만을 사용하며 포장까지도 나무 포장재를 사용한다. 올리브유 함유량이 높고 라벤더 등의 꽃에서 직접 추출한 향을 사용하여 만드는 랑팔 라투르의 비누는 마을 주민에게뿐 아니라 영국, 벨기에, 미국 등으로 수출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2. 비법의 비누 베이스

프랑스산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공수한 원료로 만드는 비누 베이스는 랑팔 라투르만의 방식에 따라 만든다. 가장 중요한 비법은 비누 베이스와 에센스의 배합 기술이다. 이 기술 덕분에 랑팔의 비누는 향이 오래 지속되고 끝까지 비누의 생명력을 유지한다.

3. 유기농 천연 비누 시장을 개척

장 플로 사장은 3년간 유기농 인정을 준비해 천연 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전의 랑팔 비누는 품질은 우수했지만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도 왜 좋은지를 몰랐다. 그래서 장 플로 씨는 랑팔의 비누를 위한 브랜드를 만들어 '랑팔 라투르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4. 전통에 대한 고집과 미래를 위한 혁신

랑팔 라투르는 전통을 지키면서 한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비누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세안용 비누, 가루비누 개발 등 끊임없는 신제품을 개발해왔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오며 발전을 위해 혁신을 창조하는 경영철학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비누 명가로서 랑팔 라투르를 이끌어온 경쟁력이다.

⑦ 희망을 담은 100년의 불빛

스페인 양초 회사

세라스 로우라



“양초는 아주 작지만
어울리는 곳에 두면
공간을 바꾸는 힘이 있다.”

세라스 로우라 4대 사장, 사비에르 로우라



성공비결

1. 좋은 재료와 기술로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

세라스 로우라는 양초의 품질에 대한 고집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어왔다. 정제된 양질의 파라핀만을 사용해 연기가 나지 않고 촛농이 흐르지 않는 초를 만든다. 또한 색을 배합할 때도 1그램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며 비율을 엄수한다. 원하는 색과 향을 내기 위해 철저히 작업하고 수작업과 기계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만든다.

2. 용도와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초를 생산

세라스 로우라는 종교용 양초를 기본으로 파티용, 이벤트용, 실내장식용, 크리스마스용, 밸런타인데이용 등 다양한 장식용 양초들을 만든다. 고객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양초를 제공하는 신념으로 양초의 종류나 모양 또는 색상까지 다채롭게 디자인한다. 각 용도와 장소에 맞는 초를 직접 장식하고 촬영해보면서 디자인에 반영한다.

3. 기능성 양초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한다.

종교용 양초로 시작한 세라스 로우라는 장식용 초로 시장을 넓혔고 최근에는 기능성 초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공장에 연구실까지 마련하고 모기 퇴치 기능이 있는 향초, 마사지용 양초 등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도 매년 30여 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4. 생생과 공존을 실천한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세라스 로우라의 양초 포장은 장애인 센터의 직원들이 맡아왔다. 세라스 로우라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응 훈련과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양초 박람회, 양초 사진 공모전 등 지역민들과 함께 회사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자주 마련한다.

⑧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이탈리아 수제 우산

마리오 탈라리코



“오로지 품질로
승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인이다.”

마리오 탈라리코 4대 사장, 마리오 탈라리코



성공비결

1. 팔로리코 우산만의 독특한 아름다움

다양한 디자인과 사슴뿔, 흑 소뿔, 멧돼지뿔 등 특별한 재료로 만든 멋스러운 우산 손잡이는 마리오 탈라리코 우산의 개성을 나타내는 포인트다. 한눈에도 단단해 보이는 우산대 역시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우산대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어 한눈에 봐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2. 튼튼한 우산을 만든다

마리오 탈라리코의 우산은 보통 우산과는 달리 수명이 더 오래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152년간 밤나무, 벚나무, 올리브나무, 자두나무 등의 최상의 천연 목재를 사용한다는 마리오 탈라리코의 철칙 때문이다. 견고하고 오래가는 우산을 만든다. 또한 하나의 통나무를 사용하며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을 살려 만든다. 때문에 튼튼하고 수명이 길어 고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3. 단 하나밖에 없는 우산을 만든다

이곳의 모든 우산은 각각 단 하나의 디자인밖에 없다. 마리오 탈라리코 우산은 세계 유명 인사부터 나폴리의 아름다움이 담긴 자연경관 등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나폴리의 아름다운 경치에서 주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는 마리오 탈라리코는 자신의 손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산을 완성한다. 우산 천 역시 무늬를 직접 주문해서 만든다.

4. 모든 공정이 수제작

마리오 탈라리코는 우산대를 만드는 작업부터 천을 재봉하는 과정까지 모두 손으로 제작한다. 때문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우산은 고작 서너 개지만 양보다 질이라는 신념으로 우수한 우산을 만든다. 단 한 번도 환불하러 온 손님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훌륭한 수작업은 최고의 경쟁력이다.

⑨ 전통으로 시대를 앞서 가는 감각

독일 넥타이 명가

에드쇼어 크로넨



“좋은 제품은
자신의 열정을
100퍼센트 바쳤을 때
완성된다.”

에드쇼어 크로넨 5대 사장, 안 헨리크 세퍼 슈투케



성공비결

1.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다

에드쇼어 크로넨은 매년 두 번의 컬렉션을 선보이며 신제품 개발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매 컬렉션이 진행될 때마다 디자이너가 직접 이탈리아 직물 공장에서 3~4개월의 작업 기간을 거쳐 약 800~1000가지의 새로운 디자인의 넥타이를 세상에 선보인다.

2. 103년 전 수작업 방식 그대로

재단부터 재봉, 심 넣기, 포장 작업까지 넥타이를 만드는 전 과정이 20~30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들의 손에서 완성된다. 수작업의 장점을 살린 에드쇼어 크로넨의 넥타이는 고객 요구에 맞춰 고객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준다.

3. 혈연이 아닌 능력을 택한다

에드쇼어 크로넨이 5대를 이어온 전통에는 원칙이 있다. 바로 혈연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이가 회사를 이끄는 것이다. 슈투케 사장 역시 그 원칙에 따라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었다. 그는 젊은 사장으로서 회사의 변화를 이끌며 세계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

4. 사장이 곧 걸어 다니는 광고 모델

슈투케 사장은 회사 광고 모델로 활동한다. 또한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그의 사진이 담긴 꼬리표가 부착되어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사장의 얼굴을 기억하는 동시에 에드쇼어 크로넨을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 각인 효과를 높였다. 젊은 사장을 내세운 적극적인 홍보 전략 덕분에 예전보다 독일 젊은이들이 넥타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5. 직원을 배려하며 능력을 높인다

에드쇼어 크로넨에는 20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 넥타이를 많이 만들수록 임금을 많이 받아 가기 때문에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며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해 효율이 높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직원들과 모임을 가지며 사장은 항상 오랜 직원들을 선배로 여기고 그들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

⑩ 혁신으로 이어온 천 년의 전통

일본 주물 명가

덴라이 코보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혁신의 연속이다.
그때그때 변화하면서
살아남은 것이 결국 전통이 된다.”

덴라이 코보 사장, 하시토모 카즈요시



성공비결

1. 시대에 맞는 첨단 재료와 구조 기술

실외 장식은 물론 정원 장식 분야까지 진출한 덴라이 코보는 청동보다 가볍고 다양한 질감 표현에 좋은 알루미늄, 강화유리플라스틱 등의 재료 도입으로 시대에 맞는 장식을 만들었다. 주물 재료가 바뀔 때마다 개발한 신기술은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2. 정품 정량, 정수치! 3정 정신

매일 아침 직원들이 체조를 하고, 입사 1년 동안은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 덴라이 코보의 원칙이다. 단순히 환경 정비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이 관리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객을 제대로 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방침이다. 좋은 제품과 고객 우선 생각을 생각하는 덴라이 코보의 자세는 몸과 마음, 환경까지 관리하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서 비롯된다.

3. 전문화된 협력 업체

생산성이 떨어지는 주물도 버리지 않되, 그 분야 최고의 협력 업체에게 맡겨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이들의 경영전략이다. 시대의 변화를 무시한 채 단순히 전통을 잇는 것은 감성적인 태도이며, 전통에 반하는 혁신이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전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회사의 철학이다.

4. 품질 지상주의

최상의 품질과 완성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작은 불량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며 시제품은 엄격한 자체 테스트를 거쳐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필리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정원용 제품도 국내 못지않게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들어온다.

■ 통영 12공방

○ 개요

- 통영 12공방은 조일 전쟁(임진왜란)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감. 이순신이 남긴 『난중일기』에는 통제영 주변에서 배를 짓고 무기를 만들었으며, 소금을 굽는 가마솥, 고기 잡는 그물과 종이 같은 물품 등을 자급자족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기술을 가진 공인들과 승려들, 병사들 할 것 없이 차출되어 일했던 것이며 조일 전쟁이 끝난 지 6년 후인 1604년 당시 통제사인 이경준이 통영 땅인 두룡포로 삼도수군통제영을 옮겨 설치. 통영으로 옮긴 이후 이경준은 전국의 공인들을 불러들여 공방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통영 12공방의 시작임

○ 성과

- 전성기 때 12공방에선 부채, 옷칠, 장식, 그림, 가죽, 철물, 고리짝, 가구 및 생활용품, 금은 제품, 갓, 자개 등을 만들었으며 이를 계승 발전시킴
- 통영시에서는 역사(이순신, 12공방), 공간(통영 동피랑), 음악(윤이상), 문학(김춘수, 박경리, 유치환), 음식(충무김밥, 해산물), 자연(바다) 등의 문화 자원과 연계한 글로벌 콘텐츠로 특화 시켜 나가고 있음



■ 삼례예술촌

○ 개요

- 전북 완주군의 옛 농협창고건물 6개동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재생, 전국적으로 주목 받고 있음(일제시대 쌀 저장창고, 새마을운동 당시의 농협 창고건물 등)
- 다양한 공예 및 문화예술인을 전략적으로 유치, 창작+전시+판매+교육 등 프로그램 다각화로 관광자원화 촉진(목공방, 미디어아트관, 디자인관, 근대인쇄관, 카페공간 등 건물마다 특화)
- 완주 로컬푸드 특화, 전주와 군산 등의 인근 관광지 네트워크 추진

○ 성과

- 폐공간의 문화재생 성공사례로 주목 받고 있음
- 전국 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 등 관광자원화



<2> 공공디자인사례

■ 진안 백운면 '간판마을' 프로젝트

전주대학교 도시환경미술과가 주축이 되어 진안군 백운면의 34개 간판을 대화와 소통, 이야기가 있는 간판으로 재 탄생시킴. 이로 인해 이 마을은 '간판마을'로 유명세를 타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함



■ 서울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도시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10개 원칙 제시하고 우수디자인 인증제 도입



<3> 해외사례

■ 일본 전통공예마을 호쿠리쿠

○ 지역 특화 요소

- 가가지역 전통가옥+전통음식+자연 치유힐링 융합된 공예 체험 테마파크
: 도자, 금박, 염색, 칠기, 화지(和紙), 유리 등의 공예 관련 전시·체험·판매시설과 차·과자 판매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곳의 시설에서 총 50종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예마을 구성요소

- 11곳 전통공예 분야별 전시, 관람 및 50종의 체험이 이어질 경우 체류시간이 하루 이상 되도록 계획적인 시설배치
- 동선 상에 연못, 정원 등 힐링 공간과 찻집, 과자가게, 전통음식점 등 편의시설 및 외부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갖춰 관광융합 테마파크의 공간구성 모델 제시

○ 지속 가능성

- 단순 볼거리가 아닌 전통공예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분야별 공간 재현
- 11곳 공방마다 생산 기능보다 체험 중심의 50종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민간자본의 투자, 다양한 수익모델의 발굴과 적극적인 관광 융합

테마파크에 충실한 운영시설의 수익 모델

기념품 판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강제 동선 출입부에 배치. ▶ 각 공방과 달리 중·저가의 전통공예품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로 지역과의 교감도 고려함
갤러리 유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방작가 포함, 유명 공예인 및 예술가 기획전 등 운영 ▶ 갤러리 관람 시 1,000엔으로 기본 입장료에 추가 요금을 더하여 받음
찻집, 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찻집과 메일국수 전문점, 찻집 및 과자가게 등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배치 함 ▶ 특히 메일 전문점의 경우 화지(종이) 체험과 연결시킴.



■ 일본 기타노 공방마을

○ 지역 특화 요소

- 폐교활용, 다양한 생활공예체험공방, 관광융합, 지역민 문화적 휴식공간
: 2015년 연간 방문객 100만 명 돌파, 춘절(春節)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의 급증
연중 꾸준한 한국 및 동남아 관광객의 방문객 172.5% 증가로 내국인 증가
127%를 상회

○ 역사성, 정체성

- 18세기 개항된 고배
- 혼합의 역사와 문화배경
- 100년 역사 초등학교 재활용한 인위적 공방 시설

○ 지속 가능성

- 다양한 세대의 기호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생활공예로 폭 넓은 타깃
: 실용적인 생활공예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 방문객들에게 방문 당일에 체험하고
완성품을 기념품으로 가져 갈 수 있게 하는 수요자 맞춤형 투어 콘텐츠 특히
명품쇼핑 위주의 중국 관광객이 생활 공예품을 파는 소박한 공간의 방문은
체험 관광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음
- 민간 기업이 마스터리스 임대 후 공방 입점, 지역 문화 체험공간의 정체성
: 민간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물을 통째로 빌린 후 이를 재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 방식인 마스터리스 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의 확보

구 분	내 용
시설(면적) 개요	▶부지면적 5,135㎡ / 건물 708㎡/ 연면적 2,061㎡
층별 공간 활용	▶1층, 2층 : 공방과 갤러리 / 3층 : 체험 및 다목적 강당 405㎡
기반시설(주차장) 특징	▶관광버스 16대, 승용차 33대, 주차장에서 면적과 시내투어 버스와 연결
입점 공방 / 운영방식	▶20여 공방 / 마스터리스 계약, Master Lease에 의한 재임대
영업시간(휴무)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연말연시 휴무)
사업주체(민간)	▶마스터리 계약, Master Lease



■ 프랑스 비오 유리공예

○ 지역 특화 요소

- 쇠퇴하는 비오 도자, 관광산업과 융합, 판로 모색(주력 분야 도자기)
: 자가품에 적합한 토양과 올리브유 담은 용기로 19세기 말 대량 생산 등 도자 산업 정점
- 현대 유리 공예가의 주요 활동 무대
: 현재 세계 현대유리공예의 주도적 중심지
유리공방의 비법 전수를 통해 현대 유리공예의 정점
자신의 브랜드 갖는 대표적인 유리공예 작가 배출

○ 역사성, 정체성

- 국립 미술관 등 예술도시
- 프랑스 공예협회 회원 비오 도자컬렉션 유명
- 현재 유리 공예 활발

○ 지속 가능성

- 세계적 공예가 다수 배출한 <상상력의 도시>
: 비오는 '상상력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각양각색의 재능을 가진 예술가를 배출하며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에리니 로베로, 베리 디 사바 등 세계적 작가들이 비오의 명성을 높임
- 경쟁·협력·협업 통한 공유가치 창출 모델 주목
: 비오 지역에서 경쟁과 협력하며 국제적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동시에 경쟁의 시너지 및 연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모델>을 주목할 필요 있음



■ 프랑스 도매닐대로 공방거리

○ 지역 특화 요소

- 도심유희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공예공방·문화예술거리 조성

: 고가다리 아래 공예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 공예가들에게 전시, 판매공간을 제공
 디자이너숍을 두어 젊은 디자이너를 육성, 악기상점, 가구점 및 카페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 입점으로 시민들이 산책하며 문화적 여가를 보내는 살아있는
 공간을 재탄생

○ 역사성, 정체성

- 1969년 이후 폐 철도 구간 고가 공원 아래 예술 육교
- 공예가를 위한 전시, 판매공간
- 도시 유희 공간 활용 롤모델

○ 지속 가능성

- 공예갤러리 공간에 공예가를 입주시키고 전략적 지원(문화적인 장소성 창조)
- : 최초의 고가도로 위 공원 조성, 뉴욕 하이라인 파크 등이 벤치마킹 하는 등
 명소화로 방문객 증가



■ 영국 벨리랜즈 공예 공방촌

○ 지역 특화 요소

- 생활공예 중심의 체험 교육 테마파크

: 농장체험+공예공방체험을 특화 함

50가지가 넘는 공예분야 망라한 시설과 콘텐츠를 구비(가마유리공방, 맞춤 금속공방, 직물자수공방, 목공방, 도자공방)하고 있으며 입점한 공방 대부분이 실용적인 생활 공예의 비중이 높음

- 작가 위한 스튜디오로 연중 무휴 운영

: 다양한 분야의 개방형 스튜디오는 작업공간 필요한 작가 및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차별화된 운영 콘텐츠

- 수익 창출 환경 인기(심사 후 공방 입주)

○ 역사성, 정체성

- 대도시 런던 외곽

- 주 고객 층 : 어린이 및 가족

- 농장체험, 공예공방 체험 생사 등 지역 커뮤니티 구심점

○ 지속 가능성

- 배후 대도시 수요기반과 지역 커뮤니티

: 테마파크 운영에 있어서 배후 대도시 런던 수요기반은 매우 중요한 지속 가능 요소이며,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점도 중요한 요소



■ 영국 뉴튼디 캠프힐 공동체 마을

○ 지역 특화 요소

- 혈연중심 돌보기의 대안 <사회적 가족>

: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인적 구성

캠프힐의 가정이란 울타리에는 하우스마더와 하우스파더(장기간 장애인과 생활하는 직원 등 비장애인), 코워커(비정주 자원봉사자), 빌리지(정주장애인)가 함께 생활, 소속감 갖게 하는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냄'

- 공예의 전문적 복지 프로그램 정착 시도

: 뉴튼디 공동체는 공예의 사회적인 영역을 확장함

공예를 복지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

공예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봉사과 기술적인 부분에 도움을 줌

○ 역사성, 정체성

- 스코틀랜드 애버딘 1939년 23개국, 100곳 공동체

- 자급자립형 생활공동체

○ 지속 가능성

- 공예품 제작,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 가장 돈이 많이 지출되는 곳은 목공예, 수공예, 직물공예 등의 워크숍 및 주거 시설과 운송 시설 건물의 개·보수 등

운영경비를 조달 위해 마켓 운영과 장애인들이 만든 수공예 기념품 판매 등으로 수익 창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이란 의미 외에도 장애인들이 만든 생활 공예품을 방문객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구매한다는 사실은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임

- 봉사자를 위한 투자와 산학협력

: 장애인을 돌보는 봉사자 교육에 매년 투자를 지속

봉사자가 애버딘 대학에 진학 할 경우 뉴튼디에서 봉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숙식과 전액 장학금을 제공, 젊은 공예인을 고용하고 의미 있게 육성 하는 방안으로 검토



■ 독일 에르츠 목공예 마을

- 지역 특화 요소
 - 크리스마스 마을
 - : 250년 전, 지역의 풍부한 나무 자원을 활용한 목각공예 장난감 시작
 - 현재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을’로 성장
 - 세계인의 애호품
 -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형이 된 호두까기 인형, 말 타는 꼬마병정, 담배 아저씨 등 세계적 애호품 팔각형의 자이펜 교회 조각 위로 옛 광산지역의 정체성 담긴 아치형 촛대<슈비보겐>은 독일 가정의 성탄 애장품
- 역사성, 정체성
 - 광물, 산림자원 풍부
 - 낙후된 폐광촌
 - 일자리, 생업 위해 목공예 가내수공업
- 지속 가능성
 - 호두까기 인형 스토리텔링
 - :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과 다양한 동화 주인공 스토리텔링
 - 에르츠 목각 장난감 공예품은 세계적 명석 속에 신규 수요 창출
 - 견고한 성탄 특수 지속
 - : 일본에도 <가루이자와 에르츠토이 뮤지엄>, 명성 확산에 도움이 되는 추종 개발형태와 매년 견고한 세계적인 성탄 특수 지속



■ 몰타 타알리 공예마을

○ 지역 특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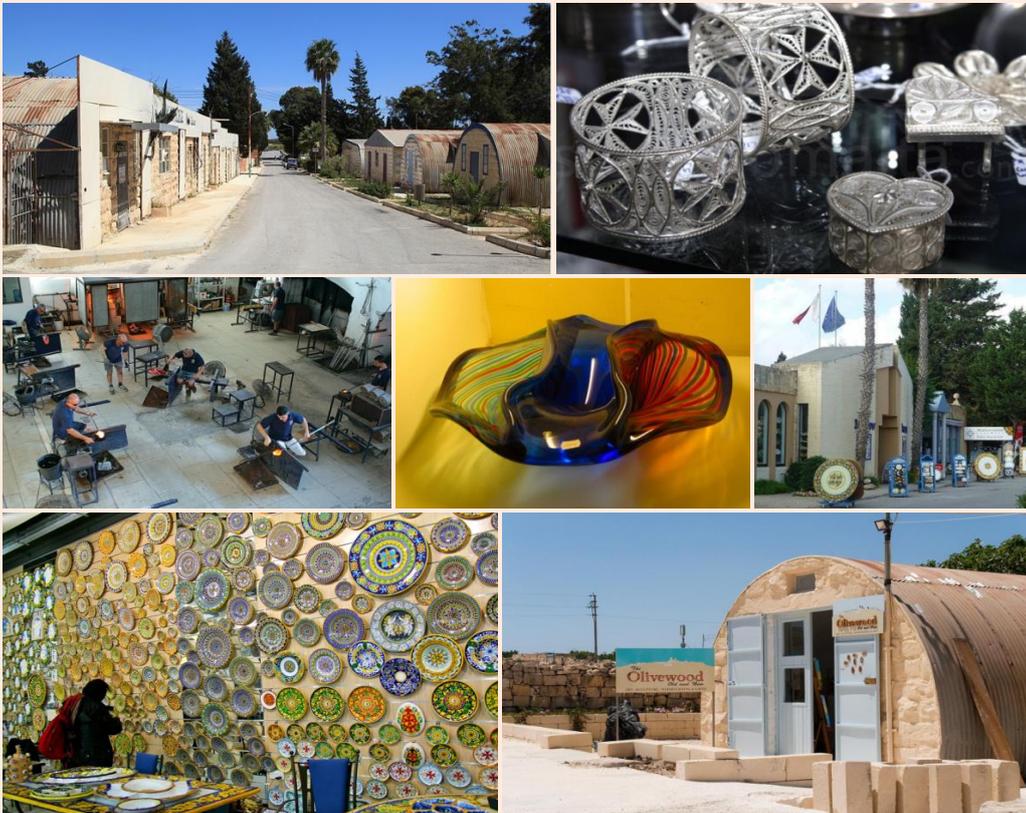
- 〈문화의 교차로〉 지정학적 위상, 방치 유희시설, 군막사의 재활용
- 직물염색, 레이스, 귀금속 세공, 도자, 유리공예 등 발달

○ 역사성, 정체성

- 몰타신전, 세계문화유산
- 지중해 문화의 교차로
- 중세부터 면화 생산지

○ 지속 가능성

- 적극적 관광산업 융합 모델
: 지역의 특화된 공예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가 높아 관광객들에게 공예 기념품이 인기가 지속
- 유희시설 활용한 공예공동체
: 낙후시설 활용, 알찬 공간 활용
‘유희공간과 시설이 재활용된 공예마을 공동체’ 측면에서 주목



■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 민속공예마을

○ 지역 특화 요소

- 문화와 통상의 합류지(合流地), 고용인구의 10%가 문화예술인
: 유럽인 본격 이주 전 인디언과 멕시코 원주민 물물교환 장소
스페인, 멕시코 무역 최북단 거점지역
1822년 멕시코 독립 후 본격적인 국제무역 시작
고용인구 6명 중 1명이 창의산업 종사
예술분야 매출 2억 달러로 미국 내 3위의 문화도시
※산타페시의 창의산업 고용 중시 : 경제발전에 있어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 산업을 경제발전의 최우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예술과
문화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

○ 역사성, 정체성

- 7만6천명 인구 소도시
- 예술가 선호이주지역
- 인디언·히스페닉 문화융합과 민속공예

○ 지속 가능성

- 어도비 양식, 정체성 중시, 유네스코 창의도시간 네트워크 선도
: 정체성 지키며, 2005년 선정 후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네트워크 활성화 주도적
역할
※Adobe Structure : 1950년부터 도시 개성 유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축
건물은 어도비 양식으로 짓도록 규제하는 법을 제정
높이도 3층 이하, 외부 벽의 색도 어도비 색으로 규제하는 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 국제민속예술연맹 IFAA의 명료한 비전
: 민속 예술가들에게 세계 최대 규모 마켓 제공_세계 시장의 과제 풀어갈
프로그램 추진
작은 풀 뿌리 조직이 연중 무휴로 국제 민속예술가 돕는 비영리 단체로 성장
※수공예에 깃든 인간성 중시와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 및 세계의 민속예술가들의
품위 있는 작업생활 영위 등



■ 중국 경덕진 도자지 마을

-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예마을로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20,0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방 등에서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도예가들이 몰려와 100,000여 명이 창작, 전시, 판매, 교육, 관광 등 도자기 분야 최대 규모 클러스터 형성
- 전통공예에서부터 창작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과 디자인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으며 분업화, 협업화, 국제화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곳임
- 도시 거리, 공원, 건축물 등에 다양한 디자인의 도자기 조형물과 공공미술로 특화시켜 도자기의 본고장임을 과시하고 있음



■ 중국 닝보 무형문화재박람회

-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도시로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무형문화재박람회 개최 (2016.4)
- 3일간의 전시기간 중에 17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한중일 3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다양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 마련



<4> 기타 공예도시 및 브랜드 사례

■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 디스트릭트'

헬싱키의 디자인 스팟을 모아놓은 디자인 클러스터. 2005년 디자인포럼 주최로 탄생. 헬싱키 시내 중심부 25개 거리에서 180여 업체 디자인 디스트릭트 헬싱키 협회에 가입. 협회원은 '디자인 디스트릭트 헬싱키'라고 적힌 표식을 매장 앞에 붙임. 협회는 디자인 디스트릭트 지도와 매장 목록, 소개 책자를 관광객에게 제공



■ 일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가나자와'

전통(공예, 음식, 건축물), 생태, 현대미술 등의 조화와 장인들의 기술을 현대의 산업과 연계 시키면서 인구 45만의 도시에 연 600만 명 관광객이 방문 도시로 명성을 얻음.



■ 중국_다산쯔 798 예술특구

옛 군수공장지대를 2002년부터 예술가들 입주, 전위예술 문화를 이끌어 가는 곳으로 탈바꿈.



■ 캐나다_밴쿠버 그린빌아일랜드

옛 조선소 건물을 활용, 아트숍, 창작센터, 쇼핑시설, 미술 전문대학 등을 운영해 관광명소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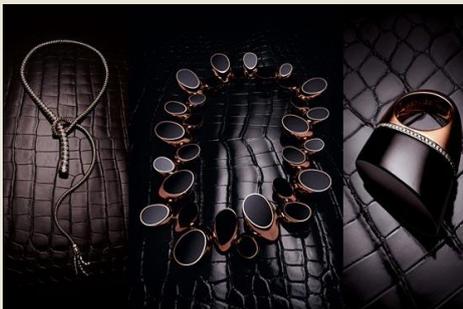
■ 세계 최고의 명품 라이터업체 '듀폰'

- 금세공사, 금속공예가, 가죽공예가, 에나멜 전문가 영입을 통한 명품가방, 화장품 케이스 제작 판매
- 2차 세계대전 후 주력업종을 “소리나는 라이터”로 변경, 자연산 옷칠을 입힌 라이터 제조 판매(중국 장인 채용)
- 이후 파라디움을 이용한 명품 필기구 개발
- 현재는 라이터, 필기구 뿐만 아니라 가죽제품, 시계, 키홀더, 커플링스, 선글라스, 남성 의류 등 토털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



■ 150년 전통의 가죽명품 업체 '에르메스'

- 상위 10% 품질의 가죽만을 소재로 제품 제작
- '장인의 손'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 풍토
- 에르메스만의 150년 전통의 도구 사용(그리드, 송곳, 바늘)
- 가죽 장인학교 운영(3년과정) 수료 후 수련기간 2년 이수자 채용



<5> 마을디자인 사례

■ 이탈리아 북부 아시아고시

알프스 인접한 산골마을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속에 전통과 현대, 문화와 생태적인 공간 구성이 돋보임. 매년 '아름 다운 집' 경연대회를 통해 자발적인 도시가꾸기 전개



■ 영국 헤이온와이

탄광지역의 마을로 탄광이 폐쇄되자 마을까지 흉물로 전락. 주민들이 유럽 최초의 책 마을 만들고 책마을축제 등을 개최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됨



■ 프랑스 리옹 벽화마을

프랑스 남부지방 리옹의 아파트촌 일원의 재개발을 대형 공공미술 및 벽화프로젝트를 통해 특성화. 세계의 화가들이 아파트 전역에 벽화를 그리고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을 통해 유럽을 대표하는 미술도시로 탈바꿈



<6> 스토리텔링 사례

■ 이탈리아 베로나 '줄리엣의 집'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탈리아 여행할 때, 베로나에 전해지던 한 여인의 슬픈 전설에서 착상을 얻어 지어낸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특화시켜 세계적인 관광 상품화 성공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

- 모차르트 생가, 거주지 등 15개의 모차르트 연계 관광지 개발
- 세계문화유산 지정(1996),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라는 기존의 명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

■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 동부 구도심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구·신시가지의 단절과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화합과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한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전파

■ 일본 동경 롯폰기힐즈

- 롯폰기(六本木)는 소나무 6그루가 있었다고 해서 유래
- 군 부대시설과 이에 따른 사창가 등으로 밤 문화 성업 중이었으나 1980년대 말 경기불황과 군 부대 이전 등으로 쇠락
- 첨단 건물, 쇼핑, 문화, 생태, 조형작품 등의 융·복합 콘텐츠로 특화 하면서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타운으로 변신

<7> 교육콘텐츠 사례

■ 헬싱키 '안난탈로'

헬싱키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세운 비정규 예술교육기관

50여 명의 교사는 모두 현역 디자이너 또는 예술가. 디자인을 '학습'하기보다 디자이너와 더불어 진행하는 '작업'경험. 교실과 현장의 경계가 없는 디자인교육

※ 핀란드의 기본교육과정인 '공예과목'

: 정규교과목인 공예과목을 통해 공예의 재료와 다루는 기법을 익힘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드는 습관을 키우며 전공과 관계없이 성인이 된 후에도 창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음

※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활발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교사가 창의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킴

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대학, 전문가들이 파트너십 발휘. 적극적인 상호작용

■ 런던 'Urban Design London'

○ 런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교육을 통해 더욱 잘 디자인된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네트워크 조직. 모범사례공유 및 교류, 교육

○ 광범위한 훈련프로그램 운영, 정기네트워크 이벤트 개최

■ 런던 '에코디자인챌린지'

영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개념과 가치를 알리는 친환경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중

학교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발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전문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쳐 현실화 하면서 학생들의 디자인제안의 완성도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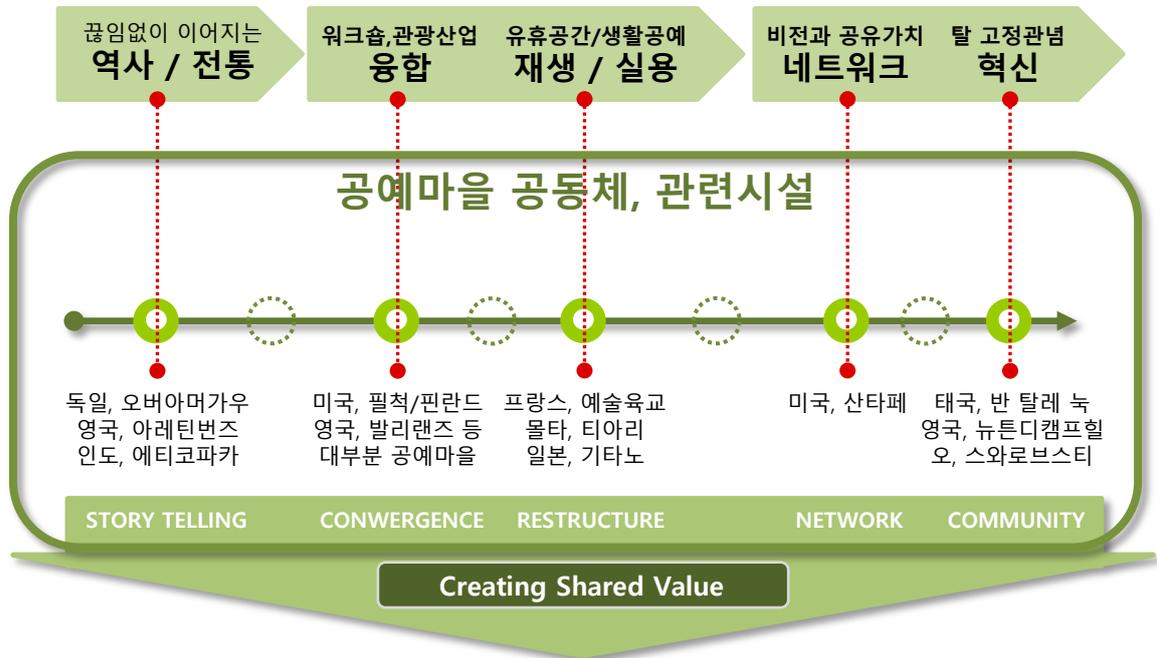
■ 요코하마 '창조도시 프로젝트'

도시 외관을 디자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부에 담길 콘텐츠와 인력을 함께 양성하여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하는 프로젝트

근대건축물을 매입해 예술교육시설, 아트스튜디오, 갤러리 등을 재생하여 문화거점으로 활용



<8> 해외 공예마을 성공사례 키워드



혁신과 공유 가치 창출 → 지속 가능한 공예마을 공동체

담론에 대한 종합분석

1

문화예술, 자연예술

- 문화의 시대, 예술의 시대,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사회
-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더욱 부각되는 자연주의

2

융복합 창의 콘텐츠

- 장르간의 융복합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지식과 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창조적 사고와 활동으로 전환

3

소확행, 취계

-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 (공정여행)
- 음악, 음식, 공예, 춤, 여행 등 생활 속 hygge(여유롭고 소박한 삶) 문화

4

문화공동체, 문화나눔

- 공유, 공감, 나눔의 가치 확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넛지 Nudge

5

공간의 가치, Dark tourism

- 지역의 고유한 삶과 멋, 공간의 가치 중시
- 아픔의 역사를 문화예술로, 관광산업으로 특화

6

평화무드 / 지구촌시대

- 남북화해, 남북 평화의 새로운 시대 진입
- 지역과 세계가 하나되는 로컬 + 글로벌 시대

7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 지역재생, 지역 활력 핵심정책
-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들기 및 생활공간의 안전화, 선진화

8

인생 이모작, 인생 삼모작

-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일자리 + 건강 + 행복을 추구하는 환경

디터 램스

디자인 10계명

(Dieter Rams, 독일의 세계적 디자이너)

1.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2. 좋은 디자인은 심미적이다
3.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4.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5.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6. 좋은 디자인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는다
7. 좋은 디자인은 오래 지속된다
8.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까지 철저하다
9. 좋은 디자인은 친환경적이다
10. 좋은 디자인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한다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Daniel H. Pink, 미국의 세계적 미래학자)



제3장 조사분석

1. 일반현황 분석
2. 관광환경 및 주변자원 분석
3. 공예마을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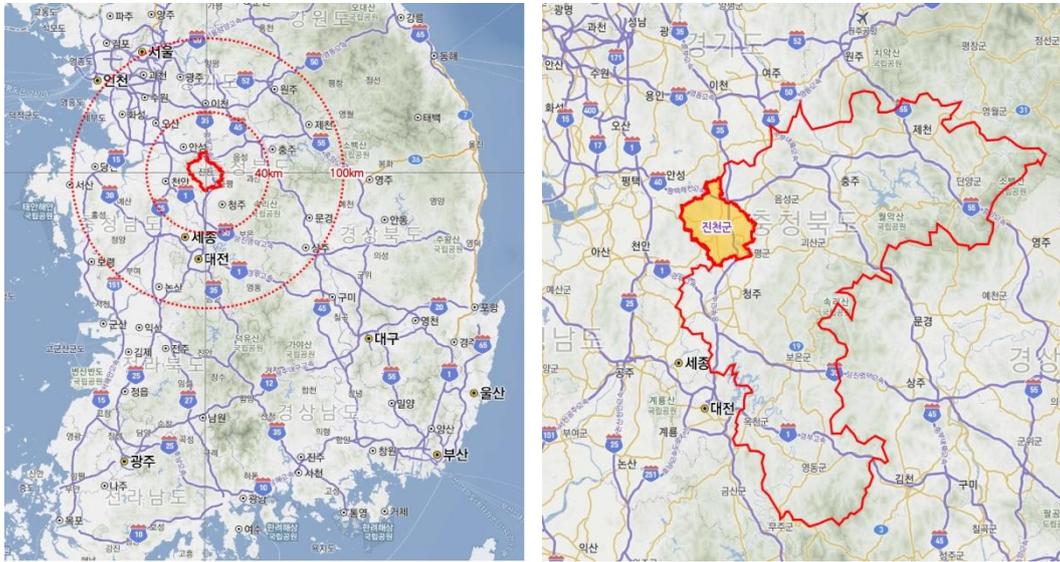
1 일반현황 분석

<1> 입지여건 및 자연환경

1) 위치 및 면적

□ 위치

- 진천군은 국토 중부에 위치한 내륙도시로, 서울, 수원, 대전 등 대도시권이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
- 반경 40km 내에는 청주, 천안, 안성, 음성, 괴산 등이 위치함
- 충청북도에서 중부 서측에 위치하여 서울, 경기권과 가장 인접한 지역임



<그림> 진천군 위치도

□ 면적

- 진천군은 1읍 6면으로 총 면적은 407.25km²(2015년 기준)로 전국 대비 0.4%, 충북도 대비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

[진천군 광역 면적 비교]

(단위 : km², 개소)

구분	진천	충북	전국	전국점유율(%)	
				전국대비	도대비
면적	407.25	7,407	100,266	0.4	5.5

- 읍·면 면적을 살펴보면 백곡면이 80.1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초평면, 진천읍, 문백면 순으로 나타남

[진천군 읍면 면적]

읍면	면적	동리		반
		법정	행정	
2017.3.13. 개정기준	407.2 (100%)	83	292	885
진천읍	70.5 (17%)	20	78	347
덕산면	35.1 (9%)	12	37	111
초평면	76.2 (19%)	12	35	78
문백면	60.2 (15%)	11	34	69
백곡면	80.1 (20%)	9	27	58
이월면	55.2 (13%)	12	47	105
광혜원면	29.9 (7%)	7	34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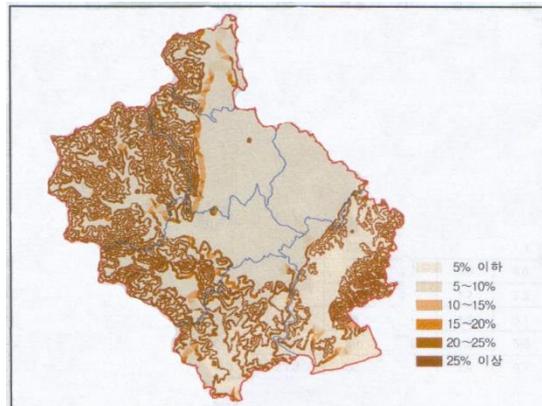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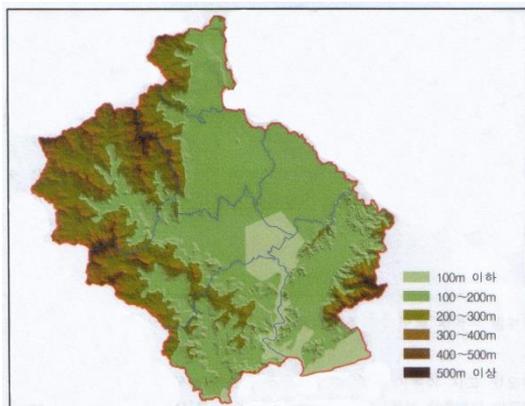


[진천군 읍면 면적]

자료 : 진천군청 홈페이지, 2017

2) 지형·지세

- 진천군 북서부 지역은 금북정맥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남동부는 해발 400m이하의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부는 길게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U자형의 지형을 보이고 있음
- 서측과 동측이 높고 중앙이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음
- 지형은 대부분 구릉지로 표고 200m이하가 5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평지는 시가지와 논으로 이용되고 있음



[진천군 표고분석도 및 경사분석도]

3) 수계·수문·경관

- 미호천은 길이 89.2km, 유역면적 1,860.9km²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 있는 마이산성에서 발원하여 충북 청주시·진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거쳐 남서류하면서 백곡천·보강천·무심천·천수천·조천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함
- 미호천은 상류부에 진천분지, 중·하류부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청주·증평 일대에 걸친 광대한 청주분지를 이룸
- 미호천, 백곡천, 초평천 3대 하천과 지류인 30여개의 소하천이 분포하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호수들 중에서 초평호와 백곡호는 낚시터로 유명함
- 진천은 주변의 구릉성 산지에 의해 위요된 경관을 형성하며 산재한 호수등에 의해 수변경관이 형성됨



[진천군 3대 하천]



[진천군 호수]

<2> 인문환경

1) 인구 및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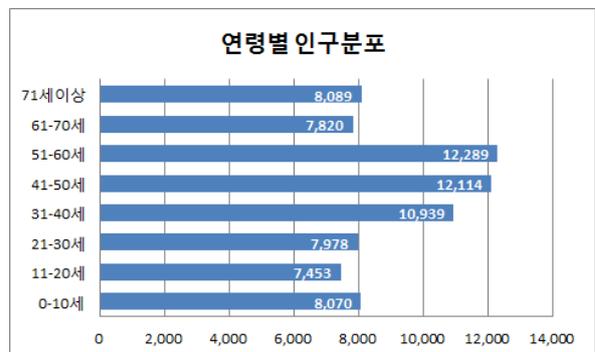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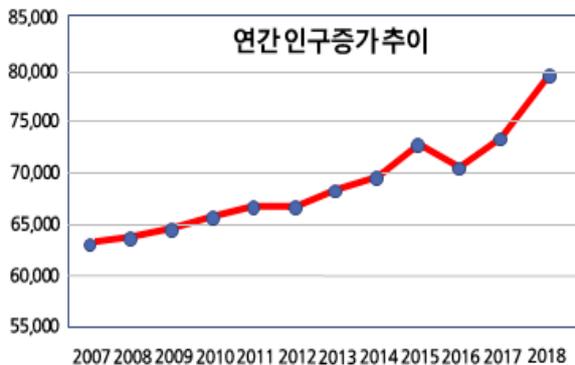
- 진천군 인구는 2019년 10월 기준 80,942명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42,292명, 여자가 38,650명으로 나타남
- 세대수는 36,955가구이며 전년도 대비 679가구가 증가함

[진천군 인구추이]

구분	세대수	계	남(명)	여(명)
2013	27,750	68,218	36,212	32,006
2014	28,285	69,564	37,089	32,475
2015	29,750	72,828	38,821	34,007
2016	30,746	69,950	36,387	33,563
2017	31,775	71,866	37,393	34,473
2018	36,276	78,218	40,839	37,379
2019. 10	36,955	80,942	42,292	38,650

자료 : 진천군 통계연보 및 진천군 홈페이지 (2019.10월 기준)

-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간의 자료를 보면 진천의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다소 주춤하였으나 다시 상승세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63,579명이었으며, 2018년 기준 78,218명으로 14,639명의 인구가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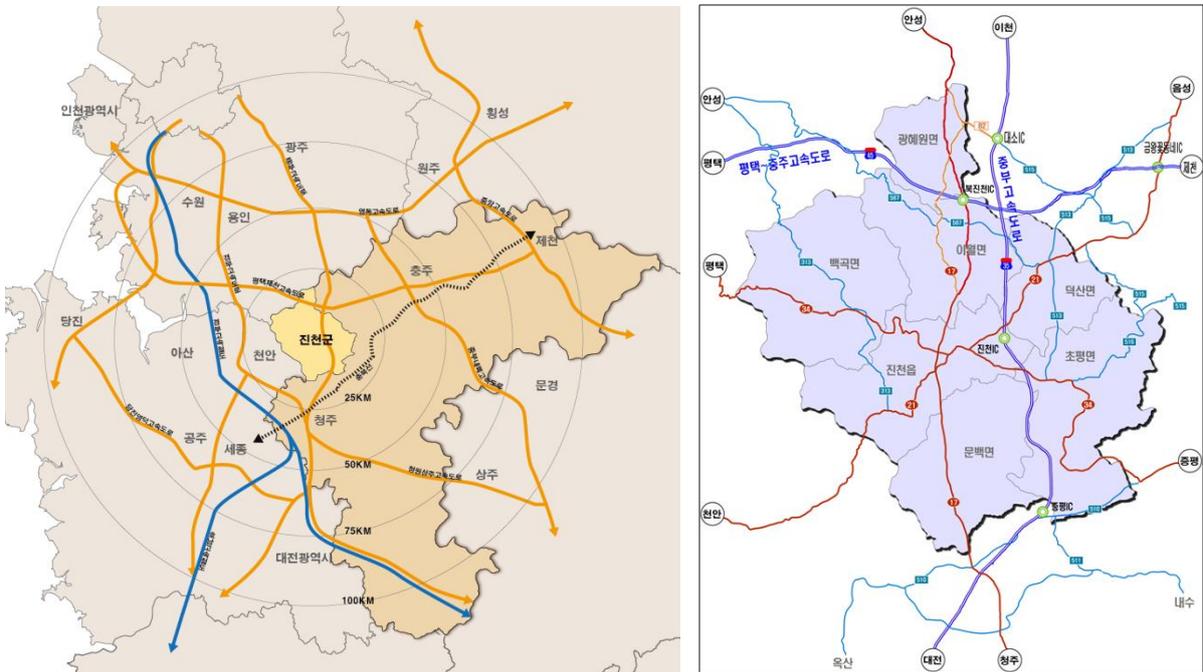


[진천군 연간 인구증가 추이 및 2018년 3월 기준 연령별 인구분포]

자료 : 진천군 통계연보(2017) 및 군 홈페이지 인구현황

2) 교통여건

- 남북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진천군을 통과하고 있으며, 진천군 북부지역의 동서로 평택~제천고속도로 통과, 남부지역의 동서로 당진~울진간 고속도로가 확정되어 향후 동서남북의 사통팔달로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근접하여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의 중간적 위치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와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요구됨에 따라 진천군의 지리적 위치는 그 무한한 잠재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됨
- 지역간 도로로 국도 17번(청주~죽산)과 21번(서천~장호원), 34번(당진~영덕)이 진천군 도심에 서로 교차하여 교류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가능케 함
- 철도는 경부·호남고속철도의 오송역이 진천군과 50km 떨어져 있으며 소요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며, 충북선 오근장역은 25km로 20분 정도 소요됨
- 진천읍 동측에 중부고속도로(진천IC)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평택~제천을 잇는 평택~제천 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북진천 IC가 위치해 있어 광역적인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 공항·항만의 경우 청주국제공항과 25km로 20분, 평택항과 65km로 50분 정도 소요됨



[진천군 광역적 교통망 및 내부 교통망]

<3> 생활환경

1) 학교

- 총 43개교 10,797명의 학생이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는 39명으로 충북 33명보다 많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9명으로 충북 18명 보다 적음

[학교 현황]

(단위 : 개, 명)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유치원	16	45	750	388	362	77	-	77	9.7
초등학교	15	232	4,604	2,387	2,217	351	114	237	13.1
중학교	7	95	1,862	965	897	170	56	114	11.0
고등학교	6	91	2,152	1,095	1,057	228	101	127	9.9
대학교	1	14	1,537	1,091	446	465	51	15	30.1
진천군	45	477	11,061	6,059	5,002	931	297	626	11.9
충북	880(16)	10,759	329,249	184,873	144,373	20,293	8,369	11,924	16.2

주 : ()는 분교수이며 학교수에 미 포함

자료 : 진천군 통계연보(2017), 충청북도 통계연보(2018. 4. 1 기준)

2) 공원

- 자연공원은 없으며 도시공원은 총 53개소(면적 1,860.3천㎡)로 어린이공원 16개소, 근린공원 20개소, 체육공원 3개소, 기타공원(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11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가 있음
- 읍·면별로는 덕산면이 29개소, 진천읍 13개소, 광혜원면 7개소 순임

[공원현황]

읍·면별	합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진천읍	13	5	3	1	1	1
덕산면	29	10	10	1	8	-
초평면	1	-	1	-	-	-
문백면	1	-	1	-	-	-
백곡면	-	-	-	-	-	-
이월면	2	-	2	-	-	-
광혜원면	7	1	3	1	2	-
진천군	53	18	20	3	11	1

자료 : 진천군 통계연보, 2017

2

관광환경 및 주변자원 분석

<1> 문화재 현황

○ 진천군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 등록문화재 2개소, 지장지정문화재 36개소 등이 분포함

[진천군 문화재 현황]

유형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천연곡리석비(보물 제404호)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551호)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사적 제511호) ▶진천 김유신탄생지와 태실(사적 제414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제13호)
등록문화재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성공회 진천성당(등록문화재 제8호) ▶진천덕산양조장(등록문화재 제58호)
지방지정문화재 (3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천농다리(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 ▶진천향교(지방유형문화재 제101호) ▶진천 이시발 신도비(지방유형문화재 제142호) ▶진천 지암리 석조여래입상(지방유형문화재 제216호) ▶진천 영수사 신중도(지방유형문화재 제317호) ▶신잡 초상(지방유형문화재 제45호)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지방유형문화재 제124호) ▶진천 정철 신도비(지방유형문화재 제187호) ▶홍정명 지식(지방유형문화재 제241호) ▶진천 태화4년명 마애여래입상(지방유형문화재 제91호) ▶진천 용화사 석조여래입상(지방유형문화재 제138호) ▶진천 노원리 마애여래입상(지방유형문화재 제189호) ▶홍우경 초상(지방유형문화재 제245호) ▶진천 용몽리 농요(지방유형문화재 제11호) ▶진천 길상사(지방기념물 제1호) ▶진천 홍우경·정인옹주묘소(지방기념물 제78호) ▶진천 송인 묘소(지방기념물 제91호) ▶진천 이집 묘갈(지방기념물 제104호) ▶진천 김덕승 효자각(지방기념물 제134호) ▶진천 정송강사(지방기념물 제9호) ▶진천 남지 묘소 및 신도비(지방기념물 제80호) ▶진천 이정 묘소(지방기념물 제94호) ▶진천 정철 묘소(지방기념물 제106호) ▶진천 이영남 묘소(지방기념물 제144호) ▶진천 이상설 생가(지방기념물 제77호) ▶진천 대모산성(지방기념물 제83호) ▶진천 이거이 묘소(지방기념물 제95호) ▶진천 석장리 유적(지방기념물 제124호) ▶진천 배티성지(지방기념물 제150호) ▶신화국 백자청화 묘지(민속문화재 제7호) ▶진천 산우물 대동계 문서 및 관련 문서(민속문화재 제21호) ▶진천 신헌 고가(지방 민속자료 제7호) ▶진천 교성리 연화대좌(문화재자료 제40호) ▶진천 금성대군 사당(문화재자료 제10호) ▶진천 강세황 묘소(지방기념물 제83호) ▶진천 산수리 마애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20호)

<2> 진천 관광방문객 수 및 자원현황

1) 진천 관광방문객 수

- 2017년도 진천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진천군의 관광객 수는 약 130만 명으로 파악됨
- 월별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4월, 5월 그리고 8월, 9월, 10월 즉,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진천 연별 관광객 수]

연별	집계관광 지수	총계	방문객수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계	내국인	외국인	
2010	23	1,630,808	442,128	440,871	1,257	1,188,680
2011	23	1,716,477	352,306	352,038	268	1,364,171
2012	23	1,701,485	309,303	308,951	352	1,392,182
2013	22	657,197	319,123	317,814	1,309	338,074
2014	15	1,185,238	559,909	557,531	2,378	625,329
2015	15	1,168,224	531,467	529,416	2,051	636,757
2016	15	1,216,596	546,284	545,365	1,503	670,312
2017	15	1,343,643	678,284	677,641	643	665,359

자료 : 진천군 통계연보(2017)

[진천 2017년 월별 관광객 수]

2017년 월별	총계	방문객수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계	내국인	외국인	
1월	42,786	10,053	10,033	20	32,733
2월	51,484	15,939	15,924	15	35,545
3월	106,502	54,627	54,617	10	51,875
4월	139,616	78,602	78,541	16	61,014
5월	230,833	87,878	87,861	17	142,955
6월	132,519	78,555	78,541	14	53,964
7월	96,805	58,924	58,906	18	37,881
8월	109,818	62,391	62,370	21	46,790
9월	135,901	79,782	79,766	16	56,119
10월	141,220	70,954	70,727	227	70,266
11월	110,027	64,625	64,504	121	45,402
12월	46,769	15,954	15,806	148	30,815
계	1,343,643	678,284	677,641	643	665,359

자료 : 진천군 통계연보(2017)

2) 북서부 권역 (진천읍,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

- 북서부 권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관광지 및 문화재 8개소, 시설 6개소, 골프장 3개소로 총 17개소로 나타남
- 이중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7개소로 배티성지가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

[진천군 북서부 권역 관광자원 현황]

구분	명칭	위치
관광지 및 문화재	진천 종박물관	진천읍 백곡로 1504-12
	주철장 전수교육관	진천읍 백곡로 1504-12
	진천군립 생거판화 미술관	진천읍 백곡로 1504-10
	역사테마공원	진천읍 백곡로 1504-12
	배티성지	백곡면 배티로 663-13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백곡면 명암길 435-135
	명암 산촌생태마을	백곡면 명암길 302
	덕성산	광혜원면 구암리
시설	안골관광농원	백곡면 용암2길 108-36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관	백곡면 사송3길 17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광혜원면 구암길 64-13
	국가기상위성센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진천 선수촌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문강도예캠프	백곡면 상대1길 6
골프	천룡 컨트리클럽	이월면 진안로 347-123
	에머슨 골프클럽	백곡면 배티로 818-105
	히든밸리 골프클럽	백곡면 소토골길 61

□ 진천 종박물관

국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조사된 진천 석장리 고대 철 생산 유적이 있는 진천에 2005년 9월에 개관한 진천 종박물관은 통일신라시대 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종의 수집, 연구, 전시, 보존은 물론 기획 전시, 교육 등 다 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관람객들을 위하여 종에 대한 자료검색과 소리체험, 음향 감상코너를 비롯한 종 문양탁본과 타종 체험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우리 종의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 주철장 전수교육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 선생의 고유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교육공간이다. 2009년 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11년 6월에 완공된 교육관으로 지상 2층 건물에 기획전시실, 기계실, 조각실, 밀랍실, 성형건조실, 숙소 세미나실 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인들을 위하여 한국 종 주조기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2010년 9월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현대판화 전문미술관으로 판화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전시실에서는 판화와 관련된 각종 전시가 열리고, 체험관에서는 판화에 대한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도구와 재료를 이용한 판화체험도 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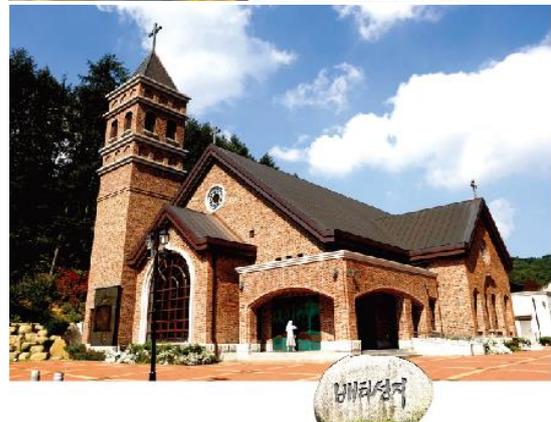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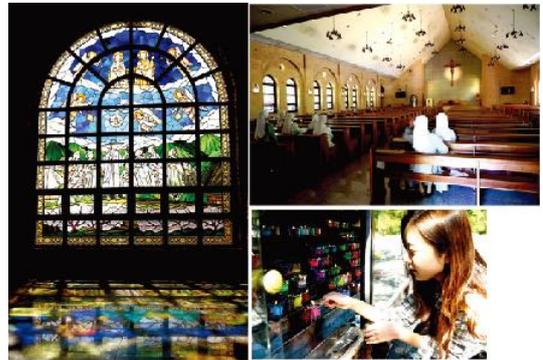


□ 역사테마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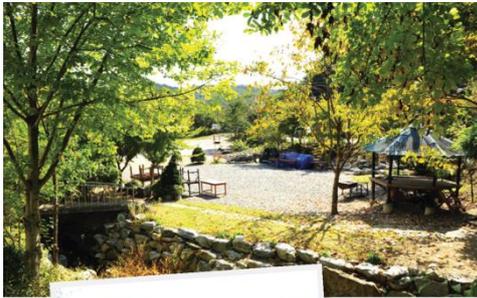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는 곳이다. 여름이면 분수대가 시원스레 뿜어져 나오고, 푸른 잔디로 뒤덮인 축구장, 족구장,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백곡호와 종박물관, 생거판화미술관, 주철장 전수교육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 배티성지

1830년 전후 진천 배티와 인근 지역에 비밀 신앙 공동체(교우촌)가 형성되면서 배티 성지의 역사는 시작된다. 천주교순교지의 숭고한정신을 기리면서 기도하는 장소로 대성당과 조선교구신학교 순교박해 박물관, 교우촌이 있으며, 20여기의 무명순교자 무덤이 골짜기마다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저술활동이 이루어진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며 최근 최양업 신부기념관, 순교박해박물관의 개관으로 많은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고 있다. 지방기념물 제1150호, 로 지정된, 최초의 조선교구 신학교 마을이다.



□ 안골관광농원



차령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깊은 산 속에 위치한 곳으로 계곡의 맑은 물과 자연 호수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시골 텃밭 같이 꾸민 정원 등으로 안락하고 편안함을 제공 하는 쉼터이다. 이 곳에는 숙박시설, 농원식당, 세미나실, 수영장, 등산로, 낚시터 등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가족여행 뿐만 아니라 회사 야유회, 회식, 세미나, 수련회 등 다양한 모임과 행사가 가능한 곳이다.

□ 명암산촌생태마을(명심체험마을)

골짜기가 깊고 향시 맑은 물이 흐르며 바위가 깨끗하며 ‘명암 마을’이라 불리며 다양한 산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산림문화의 중심이 되는 산촌마을을 구현 하고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이다. 군민들과 도시민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문화생활관, 전통체험관, 황토방(찜질방), 명심루, 산채하우스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의 휴식과 체험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산나물 채취, 농작물 수확하기, 농촌 전통 체험 등 다양한 계절별 산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의 무제산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산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한 건강한 휴양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휴양림으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교육, 산림교육장과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 되었다. 12개의 객실과, 세미나실, 다목적 운동장, 등산로, 산림습체원 등과 함께 공동 바베큐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 덕성산

굴참나무, 산벚나무, 소나무 울창한 정상 부근에 조릿대가 무성한 덕성산의 높이는 519m로 요순산, 무위산, 무수산, 국사봉으로도 불린다. 덕성산 남쪽 계곡에 구암리 ‘무술’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진천 태생으로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김유신(595~673)장군이 소년 시절부터 무예 등 화랑도 정신을 연마하였다고 전해진다. 북쪽 골짜기 비들목과 화랑들이 전서구(傳書鳩:훈련된 비둘기)를 길들이던 마을이며, 동쪽으로 내려오면 화랑의 연무대와 병기고 자리에 병무관 마을이 있다. 또한 산기슭 화랑별에 화랑도 수련관 자리가 궁전터라 전해오고 있다.



□ 충북학생교육문화관

학생들에게 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체험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한국 근대문학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1전시실, 충북 대표작가들의 자료를 전시하는 제2전시실이 있으며, 그 밖에 북카페, 체험 활동실, 세미나와 회의가 가능한 사송관, 백곡중역사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전원형 연수시설로 현장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강의실과 숙박공간 그리고 실내·외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곳으로 2011년에 개원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적으로 전무성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산재·고용보험 및 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등 대 고객 공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국가기상위성센터

2010년 6월 27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에서 한반도의 기상을 관측하는 천리안 위성이 발사되어 2011년 4월부터 정규 운영 중에 있는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우리의 기술로 개발된 위성이 우주에서 보내 오는 기상위성 관측 자료를 수신, 분석하여 우주과학, 대기과학, 기후 변화 자료분석 등 국내 기상관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정보로 가공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위성센터이다.



□ 진천선수촌

태릉선수촌의 노후 된 시설과 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으로 2011년 10월 27일 준공식을 가진 진천 선수촌은 태릉선수촌에 이어 국가대표를 육성하기 위한 곳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2개 종목·최대 350명의 선수를 수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2년에 시작된 2단계 사업이 완료 되면 추가로 25개 종목·최대 800명의 선수가 진천 선수촌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 문강 도예캠프

도자기를 모태로 30여 년간 체험활동을 위주로 사회 교육을 전문적으로 한 교육업체이다. 2005년 ‘충북 교육청 지정 과학체험 학습장’으로 지정 되었고 2014년 ‘충북도가 선정한 알짜배기 관광상품 24개 선정’으로 일반인은 물론 교육단체와 기업단체들의 자연 쉼터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캠핑객들을 위한 오토캠핑장도 운영하고 있어 가족들과 캠핑+체험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체험장이다.

3) 남서부 권역 (진천읍, 백곡면, 문백면)

- 남서부 권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관광지 및 문화재 13개소, 골프장 1개소로 총 14개소로 나타남
- 이중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4개소로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이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

[진천군 남서부 권역 관광자원 현황]

구분	명칭	위치
관광지 및 문화재	보탑사	진천읍 김유신길 641
	연곡리 석비	진천읍 김유신길 641
	생거진천화랑촌	진천읍 보련골길 40-4
	연곡계곡	진천읍
	만뢰산	진천읍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진천읍 김유신길 340-38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진천읍 김유신길 170-4
	길상사	진천읍 문진로 1411-38
	정송강사	문백면 송강로 523
	백곡호	백곡면
	물안뜰길	백곡면
	물안뜰체험관	백곡면 백곡로 964
	환희산	문백면
골프	아트밸리컨트리클럽	진천읍 송광로 783-61

□ 보탑사

보련산 자락에 있는 사찰로 996년 고려시대 절터로 전해지는 곳에 비구니 승려인 지광, 묘순, 능현스님이 창건하였다. 보탑사라는 뜻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주는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1층 약사여래불 앞에는 석가탄신일에 수박을 진상하였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동짓날이 되어서 먹는다고 한다.

1992년 대목수 신영훈 선생을 비롯한 여러 장인들이 참여하여 1996년 8월에 3층 목탑을 완공 하였다.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델로 만든 3층 목탑의 높이는 42.71m로 상륜부까지 더하면 높이가 무려 52.7m에 이른다. 목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모두 29개로 강원도산 소나무를 자재로 하여 단 한 개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지어졌다 한다.



□ 연곡리 석비



비의 형식으로 보아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 404호의 연곡리 석비 비석에는 비문이 없어 일명 ‘백비’라고 불리운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좌대는 거북모양이고 이수는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 조각 솜씨가 뛰어나다. 석비 옆에는 석불좌상과 사리탑으로 추측되는 삼층석탑이 남아 있다.

□ 생거진천 화랑촌

진천 지방은 옛날부터 평야가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산물이 풍성하고, 가뭄의 피해와 수해가 별로 없어 농업 경영이 순조로워 사람들의 인심이 좋고 살 만한 곳이기에 생거진천(生居鎭川)이라 하였다. 이곳 생거진천 화랑촌은 35호의 농가로 이루어진 작고 소박한 마을로, 예로부터 효자 효부가 많아 효자마을로 지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충·효·예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농촌 테마마을로, 진천읍 연곡리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유적 탐방, 화랑체험, 공예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민박과 함께 마을에서 생산 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화랑장터가 운영되고 있다. 인근의 문화유적지로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기원하면서 쌓았다는 동양 최고의 목조건물인 보탑사 등이 있다.



□ 연곡계곡

만리산과 연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우거진 숲 사이로 흘러나오는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찾아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과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계곡이다.



□ 만뢰산



천안시와 경계한 높이 611.7m의 진천의 거봉 만뢰산은 일명 금물노산, 만노산, 금노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인근에 보련마을이 있어 보련산이라고도 하는데, 현재의 만뢰산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시대에 지명을 본따서 그대로 붙인 이름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산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구기자, 들깨풀, 철쭉, 산수유, 복분자나무, 갯버들과 소나무숲길로 이어지는 등산길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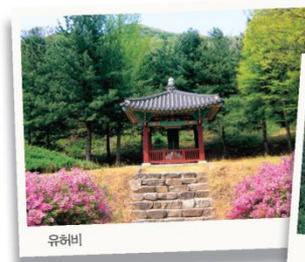
□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자연의 모든 기능과 구조에 관한 연구, 자연보전, 생태, 환경교육과 다양한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5월에 개원한 면적 118,507㎡(35,848평)의 생태공원으로 자연생태계에 대한 현장체험과 물놀이 체험장을 비롯하여, 생태연못, 자생수목원, 밀원식물원, 습생초지원, 열매나무원, 허브원, 생태교육장, 곤충관찰원 등, 도심형 공원과는 차별화 된 체험형 자연생태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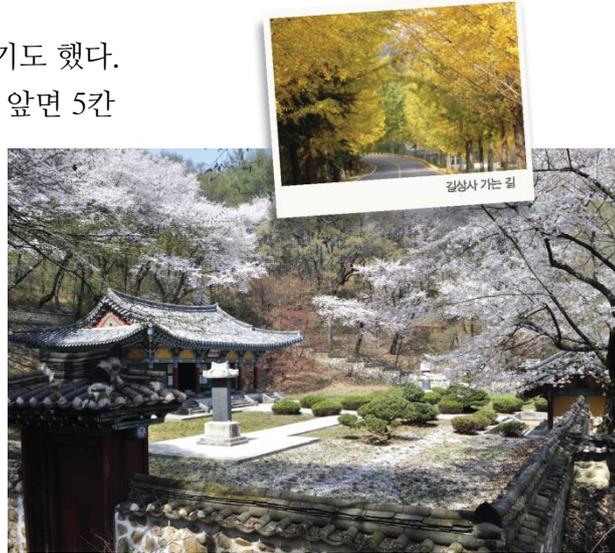
□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김유신 장군인 탄생한 곳으로 계양마을 입구 장군터라 불리어 지는 곳에 1983년 유허비가 건립되었다. 이곳에서 북서방향 0.2km 지점에는 당시의 우물터 연보정과 김유신 장군이 어릴 적 무술 연습을 했다고 전해오는 투구바위와 치마대가 있다. 김유신 장군의 태실은 해발 461.8m 태령산 정상에 위치한다.



□ 길상사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신라 때부터 김유신의 태(胎)가 묻힌 태령산 아래 사당을 건립하고 나라에서 제를 지내 오다가 조선 태종 때부터 관행제로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당이 불타 없어졌고, 고종 때에는 서원 철폐령으로 헐리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지금의 사당은 1975년 세운 것으로 앞면 5칸 옆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집인 흥무전, 흥무대왕신성비, 초상화 등이 있으며, 지방기념물 제1호로 지정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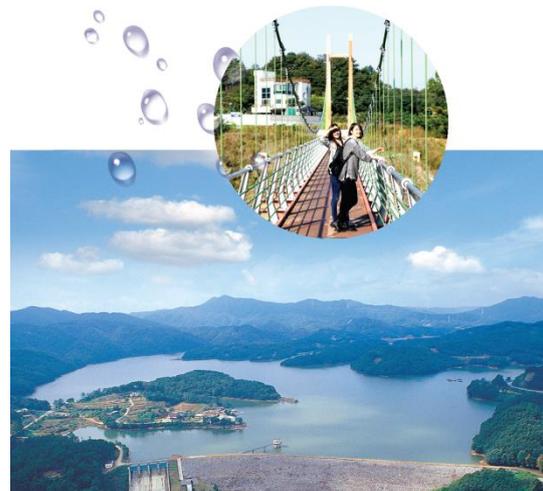
□ 정송강사



정송강사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시인인 송강정철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경내 기념관에는 정철 선생의 유품인 은배, 옥배를 보관 하고 있으며, 사당 남쪽에는 송강의 묘소와 시비, 신도비가 있다. 지방 기념물 제 9호로 지정되어 있다.

□ 백곡호

백곡호는 진천읍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저수지로 1949년 축조 되었고, 1984년 제방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총 저수량은 약 2,200만 톤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188개의 저수지들 중 가장 많은 저수량을 가졌다. 진천지역의 3대 낚시터로 꼽혀 많은 낚시 객이 방문하는 곳이며, 주로 잉어의 입질이 좋다고 정평이 나왔다.



□ 물안뜰길

2013년 진천군이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전국 346편의 응모자 중에서 최우수 작인 '백곡 물안뜰길'로 백곡호 주변 옛길 이름을 결정하였다. '아름답고 깨끗한 백곡 저수지의 물과 자연이 안마당처럼 감싸는 길'이라는 의미로, 백곡 저수지 둘레의 3.7km 옛길을 복원하고 테크로드, 로프난간, 통나무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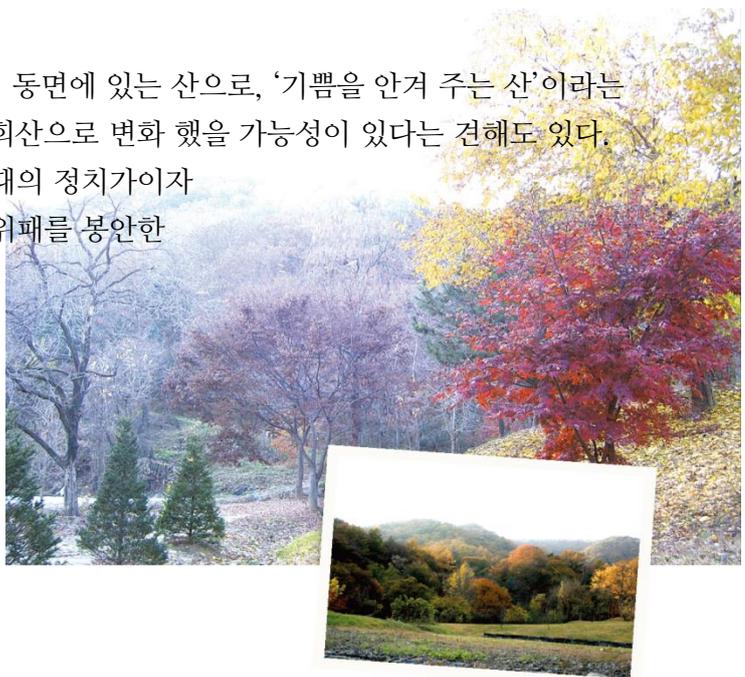
□ 물안뜰 체험관

백곡저수지 상류의 저습지로 둘러싸인 곳으로 11개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곳으로 숲부작 체험, 장뇌삼 체험, 오이따기 체험, 올갱이 잡기 등 즐거운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유명한 목판화 작가인 김준권 작가의 판화 체험실과 목판화 체험관도 자리해 있어 다양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멋진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642㎡ 규모로 전시실, 카페테리아, 목판화 체험실, 목공예 체험실, 식당, 민박 체험관, 건강체험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 환희산

높이 402m 문백면과 충남 천안시 동면에 있는 산으로, '기쁨을 안겨 주는 산'이라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하늘산이 환희산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산 아래 어은마을에는 조선 선조때의 정치가이자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의 위패를 봉안한 정송강사와 유물 전시관이 있다. 산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정송강사에서 약 30분이면 정상에 도착한다.



4) 북동부 권역 (진천읍, 초평면, 광혜원면, 덕산면)

- 북동부 권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관광지 및 문화재 4개소, 시설 3개소로 총 7개소로 나타남
- 이중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1개소로 삼흥관광농원이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

[진천군 북동부 권역 관광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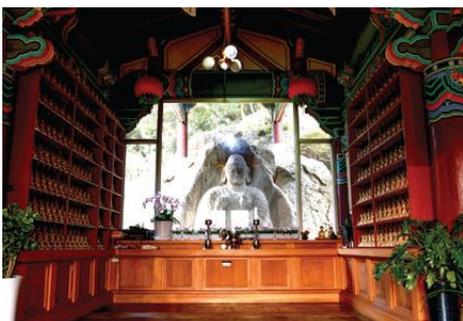
구분	명칭	위치
관광지 및 문화재	이상설 생가	진천읍 이상설안길 10
	산수리마애여래좌상	덕산면 인화길 83
	두타산	초평면
	영수사	초평면 영구리길 60-125
시설	꽃마당 교육농장	이월면 삼용길 35-1
	삼흥관광농원	덕산면 이영남로 127
	진천~음성 혁신도시	덕산면

□ 이상설 생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정사로 파견되었으며 순국 할 때까지 국권회복 운동에 힘썼던 보재 이상설선생의 생가와 사당이 있는 곳이다. 생가는 안채와 헛간채 2동으로 잡석기단 위에 흙벽돌로 벽을 쌓고 진흙으로 마감 하였고, 지붕은 초가로 되어 있다. 1987년 3월 충청북도 기념물 제 77호로 지정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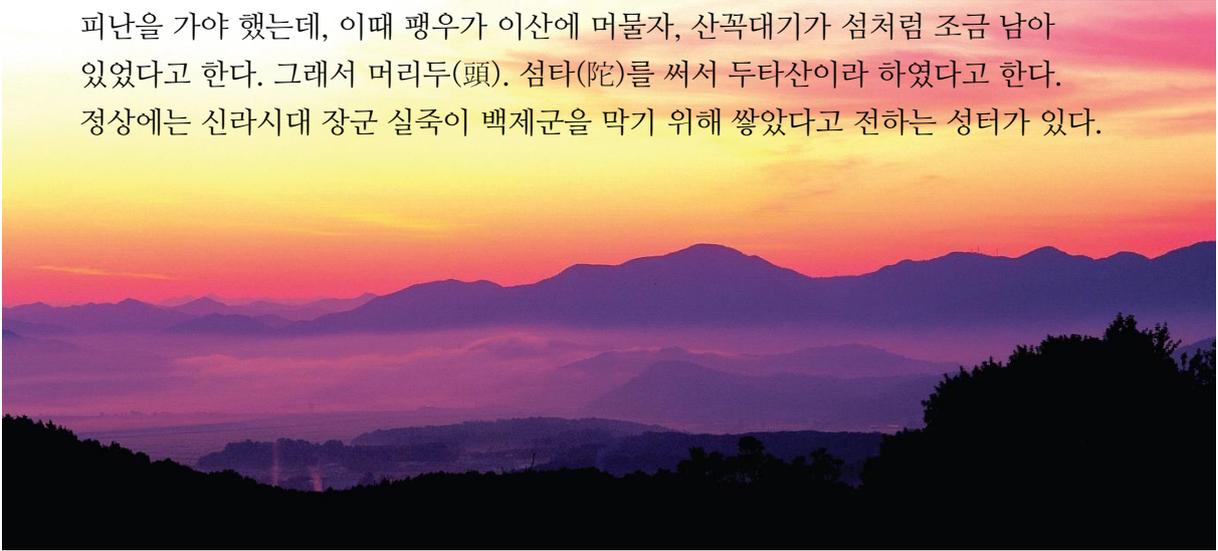
□ 산수리마애여래좌상



머리높이 68cm, 귀 길이 36cm, 어깨 폭 84cm, 손 길이 33cm, 손 너비 29cm, 크기의 고려시대 불상으로 신체 하부는 조각하지 않고 선이 둥글고 원만하여 신체는 풍만하게 표현 되었다. 진천 지역의 불교 조각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998년 1월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0호로 지정 되었다.

□ 두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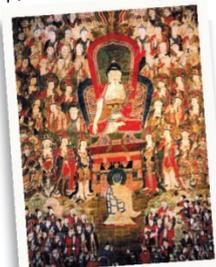
진천군의 상산팔경 중의 하나인 영수사가 있는 높이 598m의 명산으로 두태산으로 불린다. 지명의 유래는 한민족의 시조 단군이 팽우에게 높은 산과 냇물 등 산천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비가 날마다 내렸고, 산천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어 높은 곳으로 피난을 가야 했는데, 이때 팽우가 이산에 머물자, 산꼭대기가 섬처럼 조금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머리두(頭), 섬타(陀)를 써서 두타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정상에는 신라시대 장군 실죽이 백제군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전하는 성터가 있다.



□ 영수사

진천군 두타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범주사의 말사로 918년(태조1년)에 고려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 증통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나 확실한 문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10~1937년까지의 인문지리 현황을 담은 국내 최대지리서인 <조선환영승람>등에는 ‘삼한시대의 고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수사에는 1653년(효종4)에 제작된 보물 제 1551호의 ‘영수사 영산회괘불탱’과 함께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317호의 ‘영수사 신중도’가 보존 되어 있다.



영산회괘불탱 (보물 제 1551호)



신중도 (유형문화재 제 317호)

□ 꽃마당 교육농장

진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문화 체험활동을 위해 만든 체험 농장으로 관엽식물, 꽃식물, 다육식물, 조류생태 등의 테마별 체험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교육농장으로 원예치료사, 체험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의 지도로 가족단위부터 성인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 농촌의 재배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농촌의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러 식물들을 관찰하고 느끼며, 창의적인 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다.



□ 진천~음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 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가 진천~음성지구에 건설된다. 각종 산업단지의 개발, 아파트 분양, 상가계약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주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등과 발 맞추어 충북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진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음성)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임대아파트,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5) 중부권역 (진천읍, 초평면, 광혜원면, 덕산면)

- 중부권 권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시설 3개소로 총 3개소로 나타남
- 이 중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없음

[진천군 중부권 권역 관광자원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시설	포석조명희문학관	진천읍 포석길 37-14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진천읍 원덕로 390
	진천중앙시장	진천읍 중앙동6길

□ 포석조명희문학관

우리 민족 문학의 선구자인 조명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문학관으로 2015년 5월 14일 개관하였고 1층 전시실, 2층 문학사랑방, 창작사랑방, 문학연수실, 학예연수실, 수장고, 3층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진천읍 일원 도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전래된 명맥을 이어 오던 진천장을 1976년 현 시장으로 노점상을 유도하여 군민의 농산물 거래 및 생필품 구매에 활용토록 하는 현대식 재래시장이다.

1980년대 중반의 진천장은 진천군에서 가장 큰 시장 면적과 이용 인구수를 가지는 중심 시장으로서 군내 가장 큰 규모의 우시장도 있었다고 한다.



□ 진천중앙시장

일명 진천중앙시장이라고 불리는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1950년 1월에 개설 되었으며 2004년 3월에 정식 시장으로 등록 되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환경 개선과 공영 주차장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인근의 대형마트 등의 업체들과 경쟁하며 시장의 현대화와 경영혁신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6) 남동부 권역 (진천읍, 초평면, 문백면)

- 남동부 권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관광지 및 문화재 5개소, 시설 6개소, 골프장 1개소로 총 12개소로 나타남
- 이중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진천 농다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진천군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집결되는 곳임

[진천군 남동부 권역 관광자원 현황]

구분	명칭	위치
관광지 및 문화재	진천 농다리	문백면 농다리로 1032-11
	초평호, 한반도 지형	초평면
	초롱길, 하늘다리	초평면
	진천향교	진천읍 문화5길 30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진천읍 문화3길 72
시설	진천 공예마을	문백면 공예촌길 116-3
	선촌(신선마을)	문백면 평산1길 162
	충북대학교 천문대	문백면 은진로 29
	마차박물관	문백면 농다리로 34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초평면 평화로 403-132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진천읍 대학로 66
골프	크리스탈카운티 컨트리클럽	문백면 농다리로 809

□ 진천 농다리

고려 초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면, 오래된 돌다리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지네모양이다. 교각은 모두 28칸으로 하늘의 기본 별자리인 29숙과 같고, 대나무바구니를 엮는 것처럼 견고하여 천 년의 세월에도 변함이 없다. 지방유형문화재 제 28호로 지정 되었다.



□ 초평호, 한반도 지형

초평호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담수량을 자랑하는 큰 호수이자 한해 관광객이 8만 여명이 찾아올 정도로 진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광복 이후 축조된 저수지로 충주호와 양대 산맥을 이루며 낚시터로 유명하다. 얼음낚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잉어, 가물치, 붕어, 뱀장어 등이 서식하고 있어 연간 약 3만 명 이상의 유어객들이 찾고 있으며 주변에는 향토음식인 ‘붕어찜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초평호내에는 미호팔경이라 불리는 명소가 곳곳에 숨어 있어 찾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한반도지형에 근접하다 하여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초평호 한반도지형은 두타산(598m) 삼형제봉에서 초평호를 굽어보면 위로는 중국이, 아래로는 한반도 지형과 제주도의 형상과 일본 열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반도 지형 전망대를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한다.



□ 초롱길, 하늘다리

천년의 신비한 농다리와 초평호를 잇는 초롱길은 나들이 철인 봄, 가을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데, 농다리 건너편에서 시작하는 길은, 산 쪽으로는 농암정까지 트래킹코스가 이어지고, 언덕길 너머로는 초평호의 전망이 펼쳐진 수변 탐방로가 시작된다. 주변에 야생화와 수목이 어우러져 정취를 더한다. 하늘다리까지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나무들의 시원한 바람소리와 자연의 향기로 피곤함은 사라지게 된다.



□ 진천향교

〈신증독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진천현 관아에서 남쪽으로 2리 떨어진 교성리에 조선 태조 때 창건 되었다고 하며 〈충북향유회집〉에는 고려 충숙왕 때 창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지방 교육 기관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재정비된 사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성전과 동·서무로 이루어진 문묘와 강당인 명륜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구조로는 순조 4년(1804) 지방의 유지 최흡이 사재를 들여 지은 외삼문에 해당하는 삼문인 풍화루(정면 6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건물)이 있다.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기초한자, 예의범절, 생활예절 등을 교육하는 충효교실을 열고 있으며 1981년 지방유형문화재 제 101호로 지정 되었다.



□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충북지역에 최초로 지어진 전형적인 한옥성당으로 이 지역에서 전도활동을 벌인 W.N.거니(W.N.Gumey:한국명 김우일)의 감독 아래 학교와 병원 등을 포함하여 60칸 정도의 규모로 1908년 설립 되었으나 화재로 소실 된 후 1923년 주임사제인 조지 어니스트헬렛(George Ernest Hewlett:한국명 유신덕)의 관리로 다시 건립하였다. 지금의 성당은 200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복원 되었으며, 동쪽에 정면 출입구, 서쪽에 제단을 둔 긴 직사각형 평면으로 정면 4칸, 측면 8칸 규모이다. 서양건축의 수용과 전통건축의 근대적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건축사적 의의를 지닌 중요한 건물로 평가 받으며 2002년 등록문화재 제 8호로 지정 되었다.



□ 강세황 묘소

문백면 도하리에 위치해 있으며 충북도 문화재자료 제 83호다. 조선 후기의 문인, 서화가이자 진경산수화를 발전시켰고 풍속화와 인물화를 유행시킨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이며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다.



□ 진천공예마을

진천군은 철기 유적지와 함께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목탄요와 상산자석 및 청석이 분포되어 있어 상산자석벼루 등이 유명한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 공예 산업의 육성과 고품질의 공예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내 최대의 공예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 곳 진천공예마을은 1997년 충북에 거주하던 공예인들이 진천지역에 공예마을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여 진천군이 이를 받아 들여 추진하게 되었고, 2001년 3월에 진천공예마을 협동조합을 설립 하였다. 도자기, 목공예, 한지공예, 금속공예, 천연염색 등 공예 전 분야의 예술인이 모여 사는 곳으로, 작가들의 작업장인 동시에 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학습·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 선촌(신선마을)

신선마을이 있는 평산리 예부터 경치가 아름다운 ‘상산팔경’ 중 한곳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이런 자연경관 수려한 곳에 ‘회초리 훈장님’으로 유명한 청학동 김봉곤 훈장님이 참된 인성교육을 펼치기 위해 선촌이 조성 되었다. 투호, 활쏘기 등의 전통 민속놀이부터, 효, 인성, 전통서당 교육 등과 함께 두부, 인절미 만들기 체험, 한옥 체험 행사를 운영 하고 있다

□ 충북대학교 천문대

2008년 개관 하였고, 전국 대학보유 망원경으로는 최대 규모인 1m 망원경을 갖춘 곳이다. 지상에서 약 45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축구궁을 식별 할 수 있고, 사람 눈으로 식별 할 수 있는 별보다 약 2만 배 어두운 별까지도 감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며,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원격 자동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별학교, 천문우주교실, 천문과학캠프와 같은 각종 행사가 펼쳐지며, 오토캠핑장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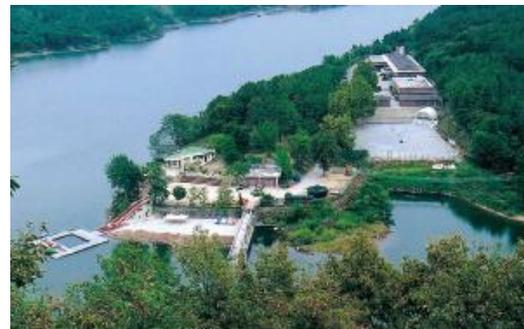
□ 마차박물관

전통수레의 무형문화재 이대길 선생의 수제자가 관리하고 있는 마차박물관은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전통수레 외에도 당나귀 승마, 트랙터 마차타기, 방앗간체험 등이 가능한 곳이다. 추억의 마차들과 어릴 때 타고 놀던 목마까지 아이들과 함께 잠시 추억의 여행을 떠나 볼 수 있는 명소이다.



□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및 각 참가 단체의 정서 함양과 신체 건강 증대에 도움을 주는 수련 현장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청소년 문화 복지 시설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초평호반 위에 위치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과 정서 함양을 위한 장소로 부족함이 없으며, 기업체와 사회단체의 교육장소로도 각광 받고 있다.



□ 우석대 진천캠퍼스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는 영국 런던대 정치경제대학(LSE) 과정을 포함한 국제대를 비롯하여 3개 단과대 12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육 특구지정 등 명품교육 도시 진천시 건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 위치 및 관광지간 거리]

7) 진천 축제 및 이벤트

- 주요축제는 생거진천 농다리축제와 생거진천 문화축제이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농다리를 테마화하여 개최 되고 있다.
- 이외 특산물 이벤트로는 초평마을에서 진행되는 ‘붕어찜축제’가 있음

□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붉은 자연 음양석을 이용해 축조한 천 년의 신비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농다리를 널리 알리고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움은 물론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체험하는 농다리를 테마로 하는 축제로 2000년 8월 23일 제 1회 농다리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주요 행사로는 농다리 기원제, 소원성취 답교놀이, 맨손물고기잡기 등의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생거진천 문화 축제



1979년부터 ‘상산축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기 시작한 진천군 최대의 문화축제이다. 2008년부터는 생거진천과 관련된 통합문화제로 만들기 위해 명칭을 ‘생거진천문화축제’로 변경하였다. 주요 행사는 개막식과 함께 쌀 품평회, 축하공연을 비롯하여, 명품쌀 전시, 공예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예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 즉 ‘살아서는 지년, 죽어서는 용인’이라 하였는데 진천을 상징하는 ‘생거’라는 말을 상표 등록하여 고유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

□ 초평붕어마을 붕어찜축제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의 향토음식인 붕어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최 되고 있다. 매년 축제를 개최하여 향토음식인 붕어찜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며 작년 2016년 기준 지역민·관광객 3,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들고 관광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먹거리’ 축제이므로 앞으로 더욱 관광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음

3 진천 공예마을 현황분석

<1> 위치 및 면적, 현황

- 1) 위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공예촌길 116-3 일원
- 2) 면적 : 125,386.2㎡(37,929평)
- 3) 세대 및 인구 (2018. 12. 1. 현재) : 25세대 54명(남 31, 여 23)
- 4) 입주업체 현황 :
 - 준공 : 28업체 ○ 공사중 : 7업체 ○ 생산 및 작품 활동 : 20업체

<2> 연혁

일시	내용
2002~2006	기반시설 조성 (5년)
2003. 9. 19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충북도)
2006. 9. 12	협동화 단지 준공 인가 (충북도)
2008. 11. 25	전시·체험장 준공 (586.4㎡)
2009. 9. 17	공예마을로 행정구역 개정 (진천군조례 제2053호)
2009. 12. 19	진입도로 확·포장 및 가로등 설치 (B-8m, L-650m)
2010. 7. 9	전시·체험장 내부 전시시설 준공
2010. 12.	진천미술 협회전
2011. 5. 1	제1회 공예마을축제 및 공예미술관개관기념국제전개최
2011. 6. 1	Rural-20 지정마을 (농림식품수산부)
2011. 7. 1	색깔있는 마을 지정 (농림식품수산부)
2011. 9.21	청주공예비엔날레 "손으로만나는 세상전" 개최
2011. 11.7	충청북도미술대전 순회전
2011. 11.11	신용일 개인전
2011. 12.	진천미술 협회전
2012. 3.31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 마을기업지정(행정안전부)
2012.10. 5	제2회 진천공예마을축제 및 진천미협초대연합전 개최
2012.11. 8	충북판화가협회초대전
2012.12. 3	공예의 달인전
2013. 4. 1	공예마을 쉼터 조성사업
2013. 7. 1	마을기업「진천 진품명품」사업체결
2013. 9. 1	융·복합지원 협약체결

일시	내용
2013. 10.2	진천공예마을 쉼터 (낭미루) 준공식
2013. 10 2~10.18	제3회 진천공예마을 축제 및 진천미협전시회
2014. 9.26~ 10.10	제4회 진천공예마을 축제 및 공예전시회
2015. 5.24.~6.3	"공예가 맛있다 " 전시회 참가
2015. 9.21	옥동 공예장터 개설
2015.10.17	옥동 공예장터 개설
2015.11.20	이진우의 나무 이야기전
2015 11.21	옥동 공예장터 개설, 충북 순회 음악회 공연
2015.12.01	진천학생수련원 상호협력협약체결
2016. 1. 8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내방
2016. 1. 22	햇빛 발전소 EBS 촬영
2016. 3. 21	한국교통대학교 마을기업 재능기부협력 내방
2016. 3. 30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자문기구, 주민, 협의회-공예미술관
2016. 4. 6	전북 완주군 오스캘러리. 삼례문화마을, 완주군청 답사
2016. 4.16	공예장터개설-낭미루앞
2016. 6.30	낭미루에서 (진도예) 김진규님 결혼식 진행
2016. 5.21	공예장터개설-낭미루앞
2016. 6.18	공예장터개설-낭미루앞
2016. 6.23	광주광역시 디자인센터 내방
2016. 9.24	공예장터개설-낭미루앞
2016. 10.5	청주공예페어 공예창조벨트 사업 부스참여
2016. 10.22	공예장터개설-낭미루앞
2016. 11. 4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내방
2017. 11	공예마을 간판 정비사업, 세계문화대회, 젓가락페스티벌 참여
2019. 10	손부남 화가 기획전 개최
2019. 10	국제교류전 개최

<3> 용지 및 시설

용 지			시 설		
생산용지	녹지	공공시설	공방	전시.체험장	주차장
66,486.9㎡ (53%)	45,823.1㎡ (36.5%)	13,076.2㎡ (10.5%)	31업체 66,487㎡	건평:586.4㎡ 대지:3,382.6㎡	3개소 4,335.3㎡



<4> 공예분야(업종) : 13분야 31업체(세대)

도자기(12), 목공예(7), 염색(3), 금속(2), 보석(2), 유리, 한지, 조명, 알공예, 디자인, 미술공예, 전통차, 각 1

[진천공예마을 입주작가 현황]

No	업체명	대표자	생산품목	주소	비고
1	여울	손종목	현대도예	665-1	
2	진천민속공예	김세진, 박옥순	목공예	667-1	이장
3	벽촌도방	김장의	전통도예	665	
4	다오네	김남이	발효효소	667-6	
5	장승호	장승호	금속	667-5	
6	목우당	박한준	전통가구	669-8	
7	슬티공방	이정순	한지공예	669-7	
8	범곡미술공예	손부남	미술공예	675	
9	서원도예	김동일	도자금형	665-8	
10	구봉공방	이병용	전통고가구	669-6	
11	두드림	윤을준	금속, 목, 공예	669-5	
12	엘지조명	신병하	조명기구	677-4	
13	박성진	박서진	규방공예	669-2	
14	채움공예원	정영훈	현대도예	663	
15	도미원	김종태	도자연구	663-1	
16	선범도예	박기철, 김동진	현대도예	665-3	
17	강경속도자연연구소	강경속	도자박물관	665-4	
18	소요공방	박경자	현대도예	665-5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19	보배코리아아트	주민종	보석가공	677-2	
20	고래실	연방희	천연염색	665-6	이사장
21	연나라	박덕주	전통연	677	
22	금낭(동아전업)	김연아	미술공예	677-3	
23	김현선디자인연구소	김현선	상징물	677-1	
24	별마루예술원	김필레	섬유공예	665-2	
25	미리내공방	문순봉	유리공예	663-2	
26	에그아트컬렉션	박복남	알, 보석공예	665-9	
27	원종사	원원식	종, 주물	662	
28	무아공방	이무아, 권기형	현대도예	669-4	
29	모던하우스	조삼숙	천연염색, 칠보	665-10	
30	진도예	김진규	현대도예	669-3	
31	흙도예	성병화	옹기	665-7	



<5> 진천공예마을 특징

1. 다양한 공예 장르가 모인 국내 유일 공동체

- 금속, 도자, 목칠, 섬유 등 다양한 장르 망라, 체류형 마을
 - 주거+창작(작품활동)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
-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공동체 활동 전개
 - 마을 조성 단계부터 조합 결성 및 정부 승인
- 공예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국내·외에서 주목
 - 기획전, 초대전, 아트페어, 국제교류 등 크고 작은 행사 매년 전개



2. 편리한 교통망과 접근성 용이

- 서울, 수도권과 1시간대의 **편리한 교통망**
 - 중부고속도로 인천 (진천IC, 오창IC 이용)
- 청주국제공항 인접, 글로벌 관광지 여건 갖춰
 - 청주국제공항 5분, KTX오송역 25분 거리
- 청주, 세종시, 천안 등 대도시 접근성 용이
 - 청주(10분), 천안(25분), 세종시(40분), 대전(50분) 등
 - 1시간 이내의 거리에 500만 명 거주



3. 아름다운 숲속의 마을

- 숲과 계곡이 있는 공예마을
 - 공예마을 조성시 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을 최우선 가치로 여김
- 자연 + 공예 조화로움
 - 도자, 목칠, 염색 등 고예의 전 장르는 자연의 소재를 활용
 - 자연 속에서 공예창작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곳
- 전국적인 문화마을 주목주목
 - 색깔 있는 마을 지정(2011년 농림부), Rural-20 지정(2011년 농림부)



4.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 풍부

- 15분 이내의 거리에 진천 대표 관광지 위치
 - 농다리, 초평호(초롱길), 선춘서당, 미호천, 송강사 등
- 상산팔경 중 4경이 문백면에 위치
 - 평사낙안, 우담제월, 적대청람, 어은계석 등 비경 위치



5. 교육체험 특화공간 인접

- 충북청소년수련원, 은여울중학교(공립대안학교), 국제교육원
 - 충북도교육청이 주관 및 운영하는 특수 교육시설 위치
- 추북대학교 천문대, 천문체험관
 -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천문관 및 천문 체험시설 인접



6. 농촌문화 + 힐링콘텐츠 최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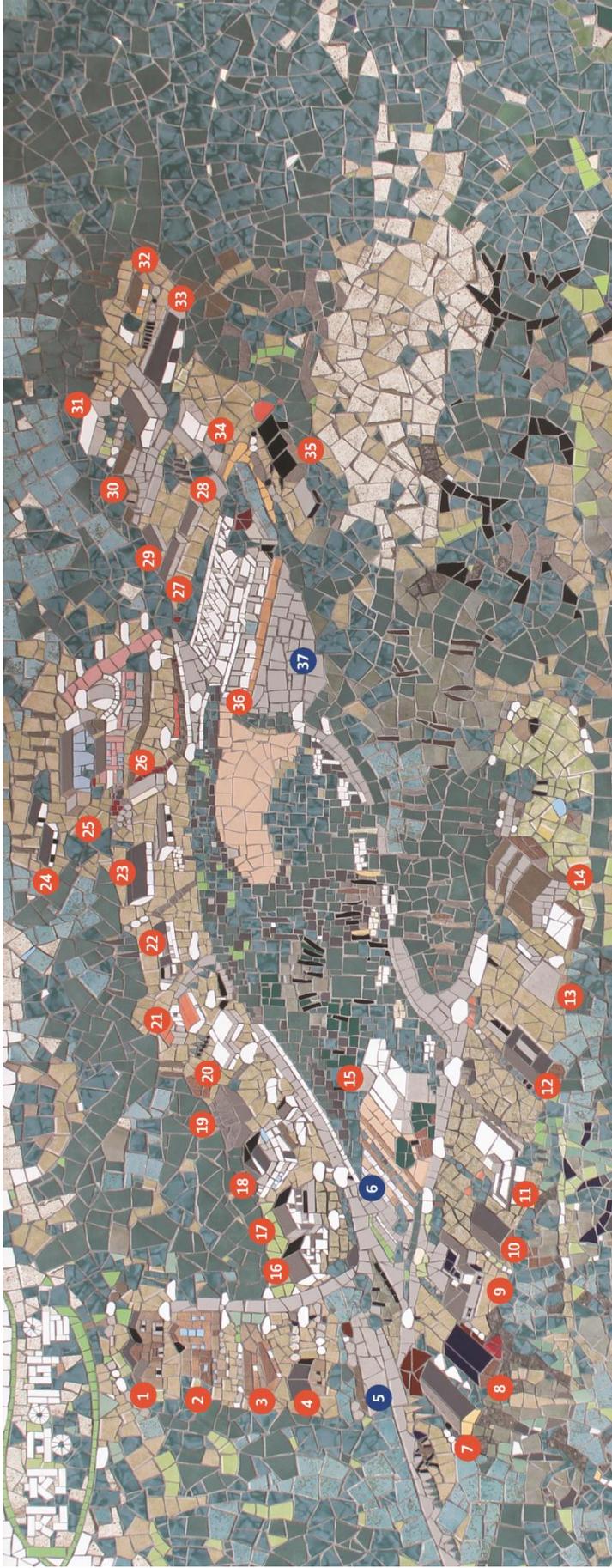
- 소확행, 힐링과 치유의 시대정신 깃들여 있는 곳
 - 역사문화 + 예술 +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 농경문화의 보고(寶庫)
 - 논과 밭, 마을 등 농경문화 오롯이 살아 있는 곳
- 농촌중심지 사업 전개
 - 문백면 소재지 일원의 농촌중심지 사업 전개, 쾌적한 환경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진천군의 정책적 접근 미흡
 - 공예마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문화예술+관광정책 지원 미흡
- 주변공간과의 연계협력 부족
 - 농다리, 송강사, 청소년수련원 등 주변 자원과의 네트워크 부족
- 공예마을 대중교통 열악
 - 버스 운행 제한적, 청주~공예마을 근거리임에도 방문객 미미
(2018년 방문객 2만여 명 불과)
-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 게스트하우스, 카페, 아트샵, 여행코스 등 미비





- 1 체험공예원
- 2 도시원
- 3 미래네공원
- 4 원종사
- 5 현 위치
- 6 주차장
- 7 연나라
- 8 김현신디자인연구소
- 9 보배코리아
- 10 공간 휴

- 11 엘리조명
- 12 대장장이
- 13 디오네
- 14 진천민속공예
- 15 범곡미술
- 16 모던하우스
- 17 에그아트갤러선
- 18 서원도예
- 19 홀도예
- 20 고래실

- 21 소요공원
- 22 강경속도자연구소
- 23 루이스스토리
- 24 벽촌도방
- 25 어울공원
- 26 별마루예술원
- 27 극동공원
- 28 우암갤러리
- 29 박성진공방
- 30 진도예

- 31 권도예공방
- 32 두드림
- 33 구룡공방
- 34 슬터공방
- 35 목우당
- 36 진천공예미술관
- 37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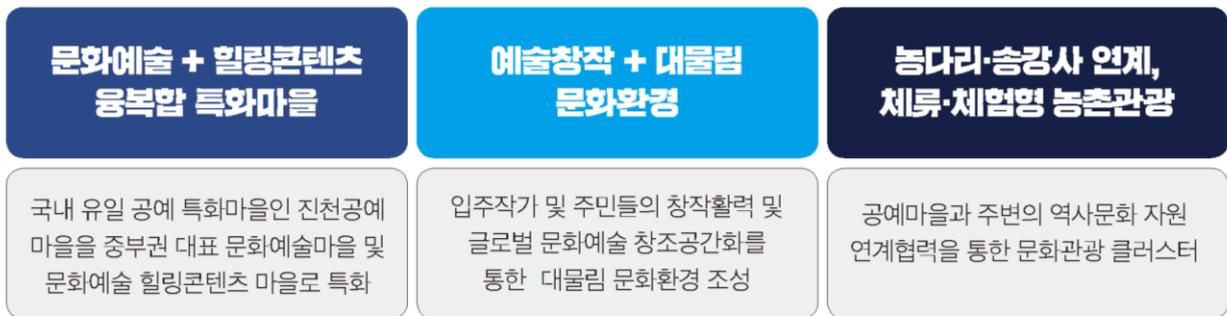
제4장 콘텐츠 전략

1. 비전과 목표
2. 사업 대상지
3. 주요 사업
4. 세부사업

1 비전과 목표

<1> 비전

- <문화예술 + 힐링콘텐츠 융복합 특화마을>
국내 유일 공예 특화마을인 진천공예마을을 중부권 대표 문화예술마을 및 문화예술 힐링콘텐츠 마을로 특화
- <예술창작 + 대물림 문화환경>
입주작가 및 주민들의 창작활력 및 글로벌 문화예술 창조공간화를 통한 대물림 문화환경 조성
- <농다리·송강사 연계, 체류·체험형 농촌관광>
공예마을과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체류형·체험형 농촌관광 실현



<2> 목표

<정성적 목표>

- ① 중부권 대표 문화예술 특화 마을 조성
 - ▶ 도자, 목칠, 금속, 섬유, 회화 등 공예의 전 장르 집적화
 - ▶ 체류형·체험형 문화예술+힐링콘텐츠 마을 특화
- ② 주변 마을 및 역사문화 자원 연계 관광클러스터 조성
 - ▶ 농다리(생태)~공예마을(예술)~송강사(인문) 연계 관광벨트 구축
 - ▶ 브랜딩, 문화상품, 콘텐츠 특화를 통한 대물림 관광환경 마련
- ③ 공간활력, 농촌활력, 관광활력의 새로운 지평 확장
 - ▶ 마을, 문화재,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
 - ▶ 특화된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관광지 도약

관광객
500만명

100년 가는
관광환경!

<정량적 목표>관광객 500만 명, 100년 가는 관광환경!

- ▶ 2044년 방문객 목표 500만 명(공예마을 관광객 100만 명)
- ▶ 힐링 테마의 지역 특화 콘텐츠 50개 개발
- ▶ 청년일자리, 문화이모작 등 일자리 창출 250명
- ▶ 대물림 문화창작 및 관광업소 45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방문객 (공예마을)	100만 명 (5만 명)	200만 명 (30만 명)	300만 명 (50만 명)	400만 명 (70만 명)	500만 명 (100만 명)	연간 500만 명
지역 콘텐츠	5개	10개	10개	10개	15개	50개
일자리 창출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250명
100년 가게	5개	10개	10개	10개	10개	45개

2 사업 대상지

○ 위치 : 진천군 문백면 일원

- ▶ 핵심공간 : 진천공예마을
- ▶ 연계공간 : 농다리(천년농다리 명소화), 초롱길(힐링과 치유의 길), 송강사(인문학 테마파크)
- ▶ 협력공간 : 청주(문화제조창C, 국제공예비엔날레), 진천(중 박물관, 판화미술관 등)



3 | 주요사업

[1] 핵심 사업 : 진천공예마을 예술+힐링콘텐츠

- ① 공예디자인학교 : 대한민국 대표 공예디자인 교육의 장
<교육시스템구축>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체험>
- ② 청년예술인보금자리 : 청년예술인 입주, 창작 및 정착
<주거공간> <창작공간> <공유공간>
- ③ 예술가와 함께 살기 : 입주작가 주택 활용 게스트하우스 특화
<예술가의 집 게스트하우스> <예술치유 프로그램> <한 달 살아보기>
- ④ 공예+힐링프로그램 : 주요 기업, 각급학교, 관광객 대상 특별한 체험
<공예교육특화프로그램> <협업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 ⑤ 공예의 숲(거리) : 공예마을의 거리, 숲, 광장을 활용한 테마공간 조성
<공예간판> <공예거리> <공예숲>
- ⑥ 진천군립공예미술관 + 예술카페: 예술을 테마로 한 카페, 인문+예술콘서트 등 특화
<군립공예미술관 운영> <예술카페> <예술테마 레스토랑> <인문예술콘서트>
- ⑦ 공예농업 육성 : 닥나무(한지), 산초나무(젓가락), 천연염색 등 삼림+농업
<공예나무숲> <천연염색 정원> <농업부산물 공예센터>
- ⑧ 특화콘텐츠 유치 : 유리공방, 모자이크학교 등 유치 등 콘텐츠 차별화
<유리공방> <모자이크 학교> <원데이클래스>
- ⑨ 여행자센터 + 공예쇼핑몰: 입주작가들의 창작활동 결과물 체계적인 전시 판매
<여행자 센터 조성 및 운영> <아트샵> <온라인쇼핑몰>
- ⑩ 브랜딩사업 : 공예마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체계화
<스토리텔링> <스토리북> <BI> <마케팅>

[2] 연계사업 : 농다리~공예마을~송강사 연계

- ① 공공미술프로젝트 : 공예마을과 주변 공간을 연결하는 퍼블릭아트
<디자인간판거리> <예술생태공원> <버스승강장 갤러리> <대지예술정원>
- ② 농다리권역 생태예술 : 농다리 초롱길 일원 생태예술 정원 및 거리
<생태예술길> <국제자연예술제> <거리마켓>
- ③ 송강사권역 인문힐링 : 송강 정철의 인문학적 가치의 관광자원화
<시문학공원> <디지로그 인문숲> <인문창작센터> <맛있는 인문학>
- ④ 청소년수련원 일원 교육예술 :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자연예술 체험활동
<지붕없는 자연학교> <공예디자인학교> <희망학교>
- ⑤ 스마트관광플랫폼 :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
<스마트플랫폼> <여행자안심거리> <마이크로 모빌리티> <bbb코리아>

- ⑥ **축제** : 사계절 테마가 있는 체류형 축제
 <봄_예술의 봄> <여름_역사 한 상> <가을_풍경 물듭> <겨울_삶의 향기>
- ⑦ **관광프로그램** : 문백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예술택시&마차택시> <문화상품> <힐링테마 뮤지컬+음식>
- ⑧ **문백길** : 농다리(초롱길)~공예마을~송강사 연계한 백리길
 <숲길> <물길> <들길> <공예의 길>

[3] 협력사업 : 청주, 진천 일원 자원 연계협력

- ① **문화제조창C** : 공예클러스터, 콘텐츠코리아랩
- ② **공예비엔날레** : 공예마을 초대전, 국제교류 워크숍, 관광네트워크
- ③ **진천군 일원** : 테마형 문화관광, 공예문화 창의환경, 치유+힐링프로그램

[4] 확산사업 : 글로벌 확산, 대물림 환경 조성

- ① **역량강화** : 역량강화 교육, 100년 가게, 커뮤니티, 공유경제, 문백화페
- ② **진천관광 DMO** : DMO 조직, DMO 운영
- ③ **홍보마케팅** : 스토리텔링, 브랜딩, 글로벌 네트워크, 온라인마케팅

핵심사업 진천공예마을 예술+힐링콘텐츠	연계사업 농다리~공예마을~송강사 연계	협력사업 청주, 진천 일원 자원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예디자인학교 ② 청년예술인보금자리 ③ 예술가와 함께 살기 ④ 공예+힐링프로그램 ⑤ 공예의 숲(거리) ⑥ 공예미술관+아트카페 ⑦ 공예농업 육성 ⑧ 특화콘텐츠 유치 ⑨ 여행자센터+공예쇼핑몰 ⑩ 브랜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미술프로젝트 ② 농다리권역 생태예술 ③ 송강사권역 인문힐링 ④ 청소년수련원 일원 교육예술 ⑤ 스마트관광플랫폼 ⑥ 축제 ⑦ 관광프로그램 ⑧ 문백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제조창C ② 공예비엔날레 ③ 진천군 일원
		확산사업 글로벌 확산, 대물림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역량강화 ② 진천관광 DMO ③ 홍보마케팅

4 세부사업

<1> 핵심사업

[1-1] 공예디자인 학교

< 배경 및 방향 >

- ▶ 공예 전 장르가 입주한 마을의 특성을 살려 민간 주도형 특성화 아카데미 운영
- ▶ 마을 내 교육환경 조성, 입주 작가들의 역량발휘 및 창의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 산업혁명을 완성한 독일의 바우하우스처럼 21세기 한국형 바우하우스 실현

<한국공예의 브랜딩 및 산업화를 꿈꾸는 글로벌 창의교육의 장>

- 장 소 : 공예마을 678·679 일원(총 대지면적 5,800㎡/조합부지)
- 내 용 : 공예디자인 교육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교육 및 사업화

① 교육시스템 구축

▶ 공예디자인학교 신축

- 위치 :
- 시설 : 교육실(5개실), 융합콘텐츠실(5개실), 디자인실, 커뮤니티실, 갤러리, 아카이브, 행정지원실 등 교육시스템 체계화

▶ 관련 기자재 구비

- 3D 기자재 시스템화, 도자·금속·목공·섬유 등 공예실습 장비
- 디자인 실습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구축

② 교육콘텐츠 개발

▶ 공예+디자인 융합 콘텐츠 개발

- 금속, 도자, 목칠, 섬유 등 공예 + 디자인을 통한 혁신 가능한 프로그램
- 전통공예 + 디자인 융합을 통한 창의콘텐츠 특화

▶ 입주작가 + 외부 전문가 + 기업 협업 시스템 구축

- 입주작가 : 공예마을 입주 작가의 적극적인 참여(강사 및 멘토)
- 외부 전문가 : 무형문화재, 명장 등 국내 주요 기능인, 디자이너 위촉
- 기업 : 산업현장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전문가 위촉
- 충북 및 국내 주요 기업 연계한 협력망 구축

③ 교육프로그램 운영

- ▶ 단기과정(3개월), 장기과정(2년) 등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 ▶ 청년과정, 일반인과정, 기업체과정 등 세분화
- ▶ 강좌별 10명 이내 소규모로 교육프로그램 운영(멘토와 멘티 제도화)

④ 주요 성과물 즉시 사업화

- ▶ 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물은 즉시 사업화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실습> → <캡스톤디자인> → <평가회> → <시제품 개발> → <기업제품화>
 → <시장진입> 등



○ 예산 및 추진일정

- ▶ 소요예산 : 30억 원
 - 설계 및 감리비 3억 원, 건축비 20억 원(400평), 기자재비 7억 원(도자, 금속, 염직, 3D 등)
- ▶ 추진일정
 - 1단계(2020) : 기존의 건물 활용
 - 메이커스페이스(중기청 공모사업 참여_3년간 최대 10억 지원)
 - 2단계(2021~) : 공예마을 내 유희부지 활용 신축
 - 체계적인 교육환경 및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자인의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공예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공예디자인 상품 개발 및 즉시 사업화, 한국형 바우하우스 실현

<사례1_ 독일 바우하우스>

- 1919년 월터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독일의 바이마르에 설립된 조형학교
- 독일공작연맹의 이념을 계승하고, 예술적 창작과 공학적 기술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 기관으로 '모든 조형의 예술적 교의(敎義)와 기술적 교의를 하나의 건축 예술에 불가불한 성립 요소를 종합하는 것이 특징
- 인간이 기계에 노예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계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장점도 희생하지 않은 채 기계의 단점을 제거하고 디자인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전문가 양성 시스템으로 산업혁명의 완성에 기여 및 창의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만들



<사례2_ 일본 가나자와 공예학교 '우다쓰야마'>

- 도자, 옷칠, 금속 등 다양한 장르의 공예전문가를 교육시키는 시립 공예학교
- 세계 각국의 공예+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융·복합 교육을 통한 차별화 된 공예전문인력 육성
- 2년제로 매학기 글로벌 전시 및 교류활동을 의무화 하면서 세계적인 역량 배양
-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가나자와에 머무르면서 창업활동을 전개, 공예 및 디자인의 도시 가나자와의 명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가나자와는 공예디자인+역사문화+현대미술 등이 조화를 이루는 아시아 최고의 문화관광지로 도약



[1-2] 청년예술인 보금자리

< 배경 및 방향 >

- ▶ 문화의 시대, 예술의 시대 공예디자인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 급증
- ▶ 창작공간 부족, 창작활동 열악해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창작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 지방소멸 등 농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한 창의적인 전략 마련 및 실행

<공예마을에 살면서 창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예술인 보금자리>

○ 장소 : 공예마을 일원 공유지

- ▶ 위치 : 공예마을 673·674 일원(총 대지면적 20,000㎡/조합 부지)

○ 입주대상 : 20세 이상 ~ 40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

① 주거공간

▶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 단독주택 20여 채(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연립주택 1개 동(10여 호 입주 가능한 공간)

② 창작공간

▶ 공동작업장

- 입주 작가들이 공동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방 조성
<금속, 도자, 목칠, 섬유, 디자인 등 시스템화>

▶ 개별 창작실

- 공예창작 스튜디오 개념으로 조성, 개인 창작활동 공간
- 열린 문화 형태로 특화, 외부 방문객 탐방 가능토록 시스템화

③ 네트워크공간

▶ 다목적실

- 입주작가들의 회의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등 구비
- 방문객 등과 함께 네트워크 파티 개최 공간

▶ 아카이브실

- 주요 자료 열람실, 작품 보관실(수장고), 기자재실 등

④ 공유공간

▶ 입주 작가간의 휴먼네트워크 공간

- 협업을 통한 창작활동 가능한 공간

▶ 외부인 방문 시 활용 공간

- 외국인 등 방문 시 게스트 하우스 기능
- 주요 행사 개최 시 입 주민+방문객 활동공간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70억 원

- 설계 및 감리비 7억 원, 시설비 50억 원(1,000평), 조경 7억 원, 운영비 6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정부 공모 참여 또는 정책사업화(정부 제안)
 - 농촌 청년예술인 육성 사업,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 등
- 2단계(2021~) : 시설 및 시스템 구축
 - 실시설계, 시설 및 환경조성
- 3단계(2022~) : 사업화 및 본격 운영
 - 입주 청년예술인 모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공예마을 입주작가 협력, 멘토와 멘티 프로그램 특화

○ 기대효과

- 청년예술인들의 보금자리 마련, 창작 및 창업환경 마련
- 청년예술인 유치를 통한 젊음의 마을 특화
- 도시와 농촌, 문화와 예술의 교류 및 역동적인 청년예술마을 조성

<사례1_ 캐나다 하버프론트스튜디오>

-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공예디자인 전문 레지던시 공간
〈금속, 도자, 목공예, 염직, 유리공예 등〉
- 캐나다 청년 뿐만 아니라 국제 공모를 통해 세계의 청년 예술인들을 유치,
주거형 창작활동 전개(창작, 교육, 전시, 마켓 등 시스템화)
- 2년 과정으로 입주, 심사를 통해 입주기간 연장



<사례2_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내 세라믹창작센터>

-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도자전문 미술관으로, 미술관 내 세라믹창작센터 운영 중
- 국일 유일의 세라믹 전문 창작 스튜디오로 건축, 도예, 디자인, 회화, 도작 등 여러 분야의 시각예술가에게 건축도자 또는 도예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미술관 내 전시, 학술, 교육,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한 입주작가의 역량강화 지원 및 공예문화 소통의 장



<사례3_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 청주시립미술관 소속으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
- 2년 단위로 미술작가 모집 및 입주, 창작 및 전시활동, 교류활동 전개



[1-3] 예술가와 함께 살기

< 배경 및 방향 >

- ▶ 공예마을이 공업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용도 전환에 따라 문화 및 집회활동 가능
- ▶ 다양한 장르의 공예 예술가들이 입주, 도시민과 함께 예술체험, 예술치유 특화
- ▶ 머무르는 마을, 예술로 치유하는 마을의 새로운 트렌드 창조

< 예술가의 집에서, 예술가와 함께, 예술로 힐링하기 >

○ 장 소 : 공예마을 일원(입주작가의 집)

- ▶ 참여가능 주택 : 20가구

○ 참여대상 : 국내외 방문객 누구나(가족단위, 직장단위, 개인별 등)

- ▶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공예+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

○ 내 용 : 예술가의 집 게스트하우스, 예술 치유, 한 달 살아보기

① 예술가의 집 게스트하우스

▶ 입주작가의 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특화

- 기존 공간 중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
<숙박시설, 휴게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특화>

▶ 유휴공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 입주작가의 개별 유휴공간을 활용해 숙박시설 조성
<뷰피크호텔 형식으로 차별화, 예술로 힐링 하는 공간>
- 미술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미술 및 여행서재, 미니갤러리, 음악 등)

② 예술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입주작가의 다양한 작품으로 공간 연출

- 금속, 도자, 목칠, 섬유, 미술 등 다양한 작품으로 게스트하우스 특화

▶ 예술 치유 프로그램 특화

- 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장르별 원데이클래스)
- 예술로 치유 가능한 상품 개발(공예체험+음악+음식+스토리의 조화 등)

▶ 맞춤형 예술힐링 프로그램 개발

- 가족단위, 청소년, 직장인 등 타깃별 프로그램 개발
- 예술치유 및 예술힐링 상품 개발 및 홍보

※ 예시_ 손부남 작가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 1일차 : 도착 → 작가와 인사 → 스튜디오, 갤러리 탐방 → 음악과 다도
→ 작가 따라하기(원데이클래스) → 가든파티 → 1박
- 2일차 : 작가 따라하기(원데이클래스) → 마을탐방 → 가든파티 → 종료

③ 예술가와 한 달 살아보기

▶ 입주작가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무르며 다양한 체험활동 전개

- 외국인을 위한 ‘한 달 살아보기’ : 외국인의 한국문화 체험의 장
- 내국인을 위한 ‘한 달 살아보기’ : 참여하고 싶은 공예장르 선택, 체계적인 공예활동 및 마을 주민과 공감 및 소통의 장 마련

▶ 타깃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을 위한 한 달 체험 프로그램
- 내국인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 참가자에 대한 운영 및 경비 매뉴얼 마련

- 재료비, 숙박비, 식비, 가이드비 등 현실화를 통한 투명·공정 운영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0억 원

- 설계 및 감리비 2억 원, 시설비 14억 원(0.7×20개소), 조경비 2억 원, 운영비 2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정부 공모 참여 또는 정책사업화(정부 제안)
 - 농촌 관광콘텐츠 지원사업, 농촌 문화마을 가꾸기 특화 사업 등
- 2단계(2021~)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 및 운영
 - 음식, 교육콘텐츠 등 체계화, 글로벌 홍보마케팅

○ 기대효과

- 예술로 치유하는 특별한 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 활력
- 마을 주민 소득증대(상품 판매 및 체류에 따른 제반 경비)

<사례1_ 깊은산속 응달샘>

- 고도원의 아침편지 재단이 운영하는 힐링 테마의 마을로 충북 충주시 노은면 우성 1길 산속에 마을 조성
- 숙소, 회의실, 체험실, 명상센터, 숲속 힐링길 등 조성
- 가족단위, 기업체, 각급학교 등 단체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링컨학교 독서캠프> <예술힐링캠프> <명상캠프> <요가프로그램 등>



<사례2_ 숲속의 작은 책방>

-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책 전문 게스트하우스
- 2011년 귀촌한 김병록 씨와 부인 백창화 씨가 가정집을 개조해 문을 연 뒤 책을 테마로 한 체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됨
-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되는 등 인기



[1-4] 공예+힐링 프로그램

< 배경 및 방향 >

- ▶ 입주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와 경험 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충분
- ▶ 각급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기업체 연수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가치 우수
- ▶ 진천공예마을의 차별화된 공예+예술교육 프로그램 특화를 통해 창의적인 마을 육성

<공예+힐링이 있는 교육프로그램 특화, 체험형 관광자원 육성>

○ 장 소 : 공예마을 일원

▶ 참여가능 주택 : 20가구

○ 참여대상 : 국내외 방문객 누구나(각급학교, 가족단위, 직장단위)

▶ 체계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 시스템화, 마을의 자원으로 활용

○ 내 용 : 타깃별 교육콘텐츠 개발, 공동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① 타깃별 교육콘텐츠 개발

▶ 각급학교 공예체험 프로그램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 단계별 체계화
- 정부의 자유학년제, 현장학교, 창의교육, 코딩교육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이야기가 있는 공예체험, 놀이와 함께하는 공예체험, 동네 한 바퀴 등

▶ 기업체 연수 프로그램

- 중부권 주요 기업체, 전국의 주요 기업체 연수프로그램 특화
- 공예체험을 소재로 한 1일 코스, 1박2일 코스 차별화
 - 1일 코스 : 체험 + 가든파티 + 마을탐방 + 작가와의 대화
 - 1박2일 코스 : 원데이클래스 + 가든파티 + 힐링음악회 + 작가와의 대화
+ 마을 및 주변 역사문화공간 탐방(기업 세미나 병행)

▶ 가족단위 프로그램

- 주중과정, 주말과정 구분 공예를 테마로 한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 특화
- 방문객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1박2일 원칙)
〈금속〉 〈도자〉 〈목칠〉 〈섬유〉 〈회화〉 등 장르별 특화

② 공동프로그램 운영

▶ 마을 탐방 프로그램

- 25개의 공방 별 순례하면 예술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공예+생태 융합)
- 탐방 시 입주 작가가 공방 안내 및 작가와의 대화 전개

▶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 송강사, 농다리 등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 탐방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차량 확보, 신속하고 안전한 탐방 전개

③ 전문인력 양성

▶ 입주작가 교육인력 양성

- 입주작가 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토록 전문역량 강화
- 교육 전문가 초청,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 및 시스템화

▶ 외부 전문가 협업시스템 구축

- 자체 인력 수용 불가시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
-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등 교육기관 협력 추진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7억 원

- 교육기자재 구입비 4억 원, 프로그램 가이드북 5천 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2억 5천만 원(교재개발 등)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정부의 공모사업 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화부 및 충북도의 토요 문화학교(8천만 원 지원) 참여
- 2단계(2021~) : 정책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 단체 교육 체험장 조성,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기대효과

- 공예마을의 전문인력 효율적인 활용 및 일자리 창출
- 공예마을 및 주변 공간 연계협력, 지역 활력

<사례1_ 청주시 문의면 마불갤러리>

- 닻나무 한지와 대청호의 자연을 소재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닥나무 재배 ~ 한지생산 ~ 아트상품 개발>
- 어린이들을 위한 토요문화학교 운영
 <닥나무와 종이, 대청호와 대지예술, 마을 탐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농업 운영, 전국적인 모범 사례
 <닥나무 한지 등의 소재를 활용한 어르신, 다문화 일자리 만들기 전개>
- 예술인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시의 예술인 중 희망자 모집, 창작활동 및 전시회 등 사업 전개>



<사례2_ 라폼르현대미술관 예술교육프로그램>

-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에 위치한 사립 미술관으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 및 미술체험 프로그램 체계적인 운영
- 경찰청, 법원(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의 기관단체 협력, 탈선 청소년의 치유 프로그램 개발로 주목 받고 있음



[1-5] 공예숲, 공예거리 조성

< 배경 및 방향 >

- ▶ 공예마을 진입로부터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형 공예공간화 필요
 <현재는 개별적인 입주작가의 공간으로 운영 중>
- ▶ 공예를 테마로 한 공예거리, 공예숲, 공예쉼터 등 공간 디자인 및 공간 특화

<입주작가들이 직접 만드는 공예숲, 공예마을>

○ 장 소 : 공예마을 일원

- ▶ 마을 입구, 마을길, 마을주차장, 마을 광장, 마을뒷산(산림청·군청 소유)등

○ 내 용 : 공예간판, 공예거리, 공예 숲, 공예쉼터 등 공간 특화

<입주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 설치 및 운영>

① 공예간판

- ▶ 마을 입구 안내판의 특화된 공예작품으로 제작 설치

- 현재, 일부 안내판을 도자타일로 제작 설치, 방문객 높은 관심 끌고 있음
- 마을 진입로, 마을 주요 공간에 공예적 디자인 간판 제작 설치

- ▶ 공방 안내 간판의 공예작품화

- 공방, 주차장, 전시장 등 주요 공간 안내 간판의 공예디자인화
- 공예마을 브랜드 사업을 통한 BI 개발, 이미지 통합 작업 병행

- ▶ 나이트 디자인 특화

- 야간에는 마을 전체가 어둠에 묻혀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 마련
- 야간경관 디자인 체계적 도입을 통한 안전한 마을 조성

<1단계사업 완료_ 총 20개의 이정표 제작 설치>



② 공예거리

▶ 공예마을 주요 골목길 테마거리 조성

- 골목길, 물길, 디자인길 등 거리별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
〈공예마을 계곡 물길 확장〉 〈골목길의 공예디자인 예술작품화〉
- 공예적 요소 + 생태적 요소 융합된 예술 힐링길 특화

▶ 공예마을 주요 도로 퍼블릭아트 특화

- 전봇대, 주차장,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작업
- 주요 거리에 예술벤치 제작 설치

<공예마을 현장 사진>



③ 공예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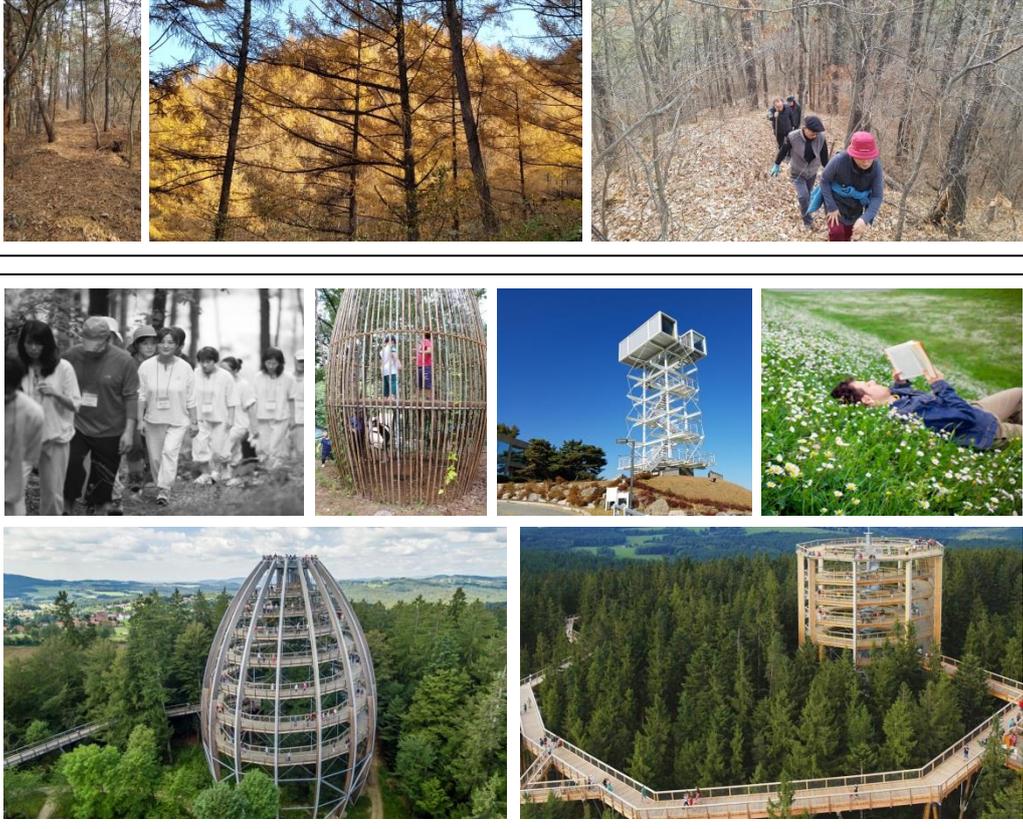
▶ 공예마을 뒷산을 활용한 공예숲 조성

-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공간 조성(숲속 힐링길, 목재 데크길 등)
- 공예적 요소를 활용한 예술치유 공간 조성(예술작품 제작 설치 등)

▶ 공예마을 둘레길 조성

- 공예마을을 한 바퀴 돌며 치유와 힐링의 시간 제공
〈총 거리 3km 구간, 1시간 안팎 소요〉
〈나무향기~예술향기~책향기~삶의 향기를 테마로 한 숲길 조성〉
〈공예마을 숲길 예술전망대 설치, 관광명소화〉
- 마을의 주요 공방 및 시설물을 탐방하는 스토리텔링 투어길

<공예마을 현장 사진>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9억 원

- 설계 및 감리비 2억 원, 디자인비 1억 원, 간판 제작비 3억 원, 마을길 정비 및 조성 5억 원, 공예숲길 조성 5억 원, 스카이워크(전망대) 3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정부공모 마을미술프로젝트 참여
 - 국비 1억, 지방비 1억 등 2억 원으로 1차 사업 전개
- 2단계(2021~) : 정책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 테마숲 조성, 예술힐링길 조성 등

○ 기대효과

- 진천공예마을만의 독창적인 마을 이미지 구축
- 예술 + 힐링 테마의 테마공간 조성을 통한 공간 활력

<사례1_ 예술의 섬 나오시마>

- 일본의 섬 나오시마는 산업폐기물 야적장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섬이었으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예술 특화사업이 전개되면서 세계적인 예술의 섬으로 도약
-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뷰티크호텔 등 최고의 컬리티를 자랑하는 콘텐츠 배치
- 섬 전체에 예술적인 공공미술작품(벤치, 이정표 등) 제작 설치로 이슈화
- 3년에 한 번씩 국제예술제 개최, 세계의 미술인과 관광객들로 문전성시



<사례2_ 영국 헤이온와이 책마을>

- 영국의 산골짜기 마을로 쇠락해 가던 에이온와이에 '책'을 소재로 한 콘텐츠 중심의 마을 조성,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발전
- 책을 소재로 거리미술, 거리책방, 거리갤러리 등 특화하고 북페스티벌 등 개최 마을 활력 및 지역발전 견인



[1-6] 군립공예미술관+예술카페

< 배경 및 방향 >

- ▶ 공예마을의 다양한 예술작가 + 예술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 휴식공간 필요
<예술 + 힐링을 소재로 한 카페, 레스토랑 인기>
- ▶ 워라벨, 소확행, 뉴트로 등 시대적 트렌드를 담은 예술 특화 경제공간 조성, 이슈화
<공예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특별한 공간>
- ▶ 현재의 공예전시장(공예미술관)을 군립 공예미술관으로 재편, 공예문화의 체계적인 전시, 교육 및 아카이브 활동 전개

<예술 + 힐링이 있는 특별한 시간여행>

○ 장 소 : 공예마을 672 일대(총 대지면적 4,500㎡/조합부지)

○ 내 용 : 아트카페, 아트레스토랑, 인문+예술 콘서트홀
<입주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 설치 및 운영>

① 진천군립 공예미술관 운영

- ▶ 장 소 : 진천공예마을 내 현 진천공예미술관
- ▶ 주요시설 : 전시장, 창고, 화장실, 기계실 등(부지 3,382.6㎡, 연면적 606.4㎡)
- ▶ 문 제 점 : 미술관 미등록, 위탁운영비 절대 부족, 큐레이터 미 배치
- ▶ 개선방안 : 진천군립미술관으로 특화,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운영
<전시실, 학예실, 아카이브실, 수장고, 회의실 등 시스템화(항온·항습 등)>
 - 전 시_ 기획전, 특별전, 대관전 등 연중 개최(대관전은 유료)
 - 교 육_ 공예아카데미, 인문콘서트, 공예체험 등
 - 아카이브_ 공예마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및 자료 아카이브
- ▶ 예 산 : 연간 250백 만원
 - 인건비(2명) 70, 전시비 70, 교육비 40, 아카이브비 30, 운영비 40
- ▶ 기대효과 : 공예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 특화, 공예전문 미술관으로서의 다양한 활동 가능, 공예마을 활성화 기틀 마련
<조례개정 및 위탁조건 개선 필요, 등록미술관 절차 추진 요망>

② 아트 레스토랑 '맛있는 공예'

- ▶ 마을 입주작가 작품 연출 및 활용
 - 공예마을 입주작가들의 작품으로 공간 연출(목공예, 염색, 도자, 회화 등)
 - 공예마을 입주작가들의 작품 활용(주요 식기 등 예술적인 담음새)
- ▶ 마을 입주작가 공유기업 형식 운영
 -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운영
 - 한식·양식 구분 운영, 또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
- ▶ 공예작품 담음새 + 음식콘텐츠 개발
 - 공예작가의 작품을 담음새로 한 힐링음식 개발
 - 지역 특산품 + 스토리텔링 + 웰빙음식 특화

③ 인문+예술콘서트홀 '삶의 향기'

▶ 인문+예술로 특화된 콘서트홀 건립

- 입주작가들의 작품 등으로 연출, 색다른 풍경 제공

▶ 인문+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예술 테마의 인문토크콘서트 상설 개최
〈공예마을 인문콘서트〉 〈공예마을 인생학교〉 〈공예 한 상, 이야기 한 상〉
- 공예를 소재로 한 공연 콘텐츠 개발
〈어린이 뮤지컬〉 〈어른을 위한 뮤지컬〉 〈힐링 음악〉 등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0억 원

- 설계 및 감리비 1억 원, 시설비 7억 원, 환경연출비 2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정부공모 사업 참여
· 사업제안 및 예산 확보, 기본계획 수립
- 2단계(2021~) : 시설 및 공간 조성, 운영
· 체계적인 운영전략 수립 및 실행

○ 기대효과

- 공예마을의 예술을 맛보는 특별한 공간으로 이슈화
- 지역활력, 공간활력, 경제활력 기틀 마련
- 교육, 연수 등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공간 활용 및 체험기회 제공

<사례1_ 삼례예술촌>

- 전북 완주의 폐 창고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 레스토랑, 공방, 갤러리 등 7개의 테마가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활용
- 이 중 아트카페는 폐공간에 문화적 가치를 담은 곳으로 방문객들의 휴식공간 및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음



<사례2_ 프랑스 지베르니 모네마을>

- 화가 모네가 마지막을 보냈던 곳을 예술정원 및 카페, 레스토랑 등 관광자원화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곳
- 모네의 마지막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작품, 생태정원, 저택 등을 활용하면서 모네의 미술세계를 여행하는 느낌을 주고 있음



<사례3_ 뷰띠끄 카페 청주시 북문로 '광순'>

- 단순 카페가 아니라 디자인, 미술, 공예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특화 시키면서 젊은이들의 명소로 인기. 옛 건물을 활용한 예술공간화라는 테마로 도새 재생 및 예술과 공간의 융합 콘텐츠 사례로 주목



[1-7] 공예농업 육성

< 배경 및 방향 >

- ▶ 공예의 모든 소재(재료)는 자연에서 나오며, 농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
〈도자, 목공예, 염색, 한지 등의 공예소재 대부분이 자연 및 농업 유산임〉
- ▶ 농촌의 위기를 공예+농업으로 특화시키고 살리며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을 만듦
〈자연속의 공예, 농산물 활용한 공예, 농촌공예의 새로운 장 개척〉

<공예 + 자연 + 농업이 하나되는 마을>

- 장 소 : 공예마을 일원(숲, 들, 정원 등)
- 내 용 : 공예나무숲 조성, 천연염색정원 조성, 농업부산물 공예센터
〈입주 작가들이 직접 재배 및 수확, 공예작품 활동 전개〉

① 공예나무 숲

▶ 닻나무 숲

- 한지의 원료인 닻나무를 매년 대규모로 식재(1년생, 다년생)
- 닻나무 수확, 한지 뜨기 등 한지생산 원료로 사용

▶ 산초나무 숲

- 산초나무는 고려가요 ‘동동’에 “12월 젓가락”으로 소개될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소중한 나무임(나무젓가락, 산초기름, 산초장아찌 등)
- 산초나무를 활용한 젓가락공예, 산초기름, 산초나무 정원수 등 특화

▶ 느티나무, 은행나무 숲

- 느티나무는 단단하고 결이 부드러우며 향이 있어 최고의 목공예 재료임
- 은행나무는 잘 자라고 가을 풍경이 좋으며 가구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 공예마을 주변 임야에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체계적으로 식재 및 특화

② 천연염색 정원

▶ 천연염색 생태원

- 쪽, 갈대, 녹차, 황토, 감물 등 천연염색 소재로 사용되는 식물 식재
- 공예마을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면서 염색 소재로도 활용, 일석이조

▶ 천연염색 힐링센터

- 천연염색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콘텐츠 특화, 치유프로그램 운영
- 한식·양식 구분 운영, 또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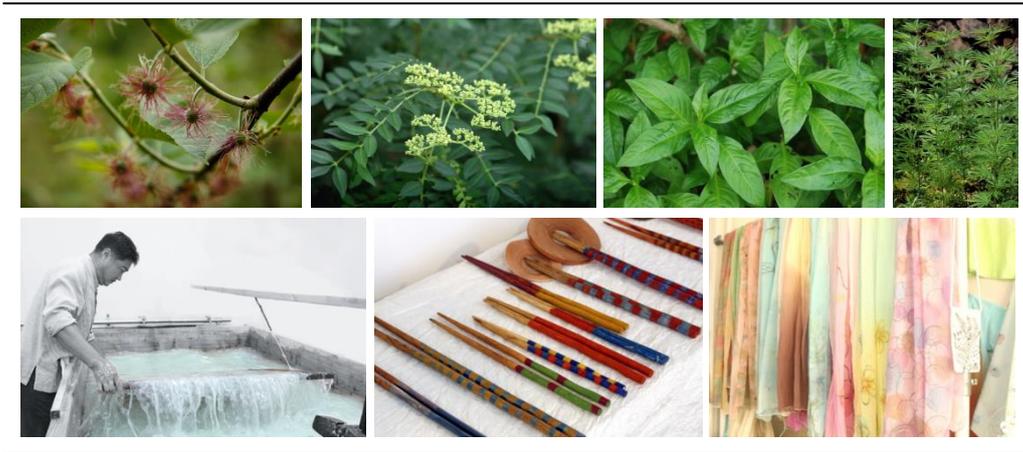
③ 농업부산물 공예센터

▶ 농업부산물 활용 매뉴얼 제작

- 진천군 일원에서 수확되는 다양한 농업 부산물을 활용,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북 제작

▶ 농업부산물 공예센터 조성

-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공예문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 마련
- 짚풀공예, 나무공예, 삼베공예, 염색공예 등 교육 및 창작활동 전개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5억 원

- 공예나무숲 조성 5억 원, 천연염색정원 조성 3억 원,
농업부산물 공예센터 조성 7억 원(설계,시설,기자재 등)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정부공모 사업 참여
 - 사업제안 및 예산 확보, 기본계획 수립
- 2단계(2021~) : 숲, 정원, 공예센터 등 조성 및 특화
 - 체계적인 운영전략 수립 및 실행

○ 기대효과

- 자연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공예마을
- 소중한 자연 및 농업 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 자원화 기여

[1-8] 특화콘텐츠 유치

< 배경 및 방향 >

- ▶ 공예의 장르 중 유리공예, 모자이크 공예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공예마을에는 유리공예와 모자이크 공예작가가 없음
- ▶ 지역 내 관련학과 연계협력 및 글로벌 작가 초청, 장르의 확산 및 세계화 촉진 필요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에 유리공예강좌 운영 중> <모자이크는 산업성이 뛰어남>

<유리공예 + 모자이크공예 특성화 및 문화관광 자원화>

- 장 소 : 공예마을 일원 664, 665 일원(총 부지 면적 1,600㎡/개인소유)
- 내 용 : 유리공방 유치, 모자이크 공방 유치, 원데이클래스 특화

① 유리공방

- ▶ **유리는 도자와 달리 작품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어 체험콘텐츠 인기**
 - 램프워킹, 블로잉, 스테인글라스, 캐스팅 등 다양한 기법 활용
 - 창작활동 및 방문객과 함께 하는 체험 콘텐츠 인기
- ▶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과 협력, 유리공방 운영**
 - 유리공방 시스템화 및 유리공예 작가 유치
 - 학생들의 현장학습 장, 교육체험 장으로 적극 활용(워크샵, 심포지엄 등)

② 모자이크공방

- ▶ **모자이크 공예는 공예를 뛰어넘어 산업현장의 다양한 소재로 활용됨**
 - 이탈리아 모자이크 공예가 세계 최고를 자랑(모자이크 학교 및 기업 운영)
- ▶ **이탈리아와 협력 모자이크 콘텐츠 특화**
 - 모자이크 공방 : 공예마을 내 모자이크 공예 시스템 구축한 공방 유치
 - 모자이크 학교 : 이탈리아 최고의 장인(작가) 초빙, 체계적인 교육활동
 - 모자이크 워크샵 : 정기적인 시연 및 세미나 개최
- ▶ **모자이크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화**
 - 공방 및 학교를 통해 전문인력 배출
 - 기업체와 협력해 아트폴라보 생산 및 산업 현장 보급

③ 원데이클래스 특화

- ▶ **공예의 전 장르 원데이클래스 특화**
 - 금속, 도자, 목칠, 염색, 유리 등 전 장르에 걸쳐 체계적인 창작 체험활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커리큘럼, 강사, 교육시스템 등 체계화)
- ▶ **방문객 맞춤형 원데이클래스 운영**
 - 청소년, 장애인, 가족, 기업체, 일반 관광객, 외국인 등 체계화
 - ‘나만의 행복한 공예품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사계절 문전성시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5억 원

- 유리공방 유치 5억 원, 모자이크공방 유치 5억 원, 원데이클래스 5억 원(콘텐츠개발, 운영 등)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정부공모 사업 참여
 - 사업제안 및 예산 확보, 기본계획 수립
- 2단계(2021~) : 공방 시설 및 입주작가 유치, 프로그램 특화
 - 체계적인 운영전략 수립 및 실행

○ 기대효과

- 공예의 전 장르가 망라된 지구촌 최고의 공예마을 도약
- 공예교육 및 공예체험의 체계화, 산업화 도약

<사례1_ 유리의 섬, 이탈리아 무라노>

- 이탈리아 베니스 인근의 섬인 무라노는 500년 역사를 간직한 유리공예 마을로 세계 최고의 유리공예 장인들이 체류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음
- 세계적인 유리에술품, 향수병 등 최고급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관광지로도 명성을 얻고 있음



<사례2_ 이탈리아 모자이크>

-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모든 건축양식은 모자이크 기술을 통해 완성되고 있으며, 1000년 이상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
- 모자이크 공예는 유럽을 넘어 전세계에 실내건축 및 예술장르로 확산되고 있어 사업성이 매우 높음



[1-9] 여행자센터+예술카페

< 배경 및 방향 >

- ▶ 공예마을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 필요
〈전시 및 판매 기능〉 + 〈온라인 마케팅 기능〉
- ▶ 공예품 판매 형식의 공간이 아니라 갤러리형 전시공간을 조성, 특성화 필요
〈보고 체험하며 감동하는 문화 공간형 쇼핑몰〉
- ▶ 공예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서비스 체계화, 편의제공 및 감동의 문화관광 행정 실현

<마음에 담고, 장바구니에 담은 진천공예>

○ 장 소 : 공예마을 680(총 부지면적 11,985㎡/조합부지)

○ 내 용 : 아트샵, 아트갤러리, 온라인쇼핑몰, 여행자 센터

① 아트샵

▶ 공예마을 작가의 작품 체계적인 전시 및 판매장

- 갤러리형 전시공간 조성, 전 장르 + 전 작가의 작품 소개
- 계절별, 테마별 기획 상품전 개최, 이슈화

▶ 전문가의 샵매니저 채용

- 전문가를 샵 매니저로 채용, 체계적인 마케팅 기능토록 운영

▶ 기업 및 기관단체 등 연대

- 주요 공예품의 체계적, 지속적 판로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 주요 기업체, 관공서, 기관단체 등과 협력 및 협약을 통한 판로 개척

② 아트갤러리 및 아트폴라보

▶ 아트샵과 연계한 갤러리 운영

- 시즌별 기획전, 특별전, 테마전 개최

▶ 기업과 협력, 아트폴라보 특화

- 기업의 기념품 등을 예술공예 작품과 연계시킨 아트폴라보 특화
- 기업의 후원을 통한 미술+공예 아트폴라보 특화

③ 온라인 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특화를 통한 세계 시장 공략

-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쇼핑몰 제휴(아마존 등)

④ 여행자 센터

▶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 시스템 체계화

- 진천공예마을 정보 체계화(홍보물,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각종 자료 비치)
- 여행자를 위한 관광 안내(스토리텔러 상시 근무)
- 숙박, 교육, 체험, 판매 등 체계적인 서비스 활동 전개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9억 원

- 설계 및 감리비 8천만 원, 시설 6억 원, 기자재 및 디자인 2억 2천만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정부공모 사업 참여

· 사업제안 및 예산 확보, 기본계획 수립

- 2단계(2021~) : 설계, 시설, 환경연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체계적인 운영전략 수립 및 실행

○ 기대효과

- 돈이 되는 공예, 세계인이 마음에 담은 공예의 새로운 환경 마련

<사례1_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아트샵>

- 서울 인사동거리에 전문 매장 운영 중이며 5층 건물에 공예장르 시스템화
 - 지하 : 회의장 및 공예디자인 자료실
 - 1층 : 공예문화상품 아트샵
 - 2~3층 : 기획전, 특별전 등의 전시 공간
 - 4~4층 : 세미나 등의 커뮤니티 공간
- 매년 젊은 작가 기획전, 아트상품 공모전, 지역문화 상품전 등 다양한 기획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진흥원 플랫폼 기능 수행



<사례2_ 영주 대장간 '호미'>

- 영주시의 대장간에서 생산된 호미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통해 유럽에 소개
- 2018년 4만 개 매출 등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음



<사례3_ 통영 12공방>

- 통영시가 전통공예 12개의 공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 나전칠기, 갓, 소반 등 12개의 공방을 특화 시키고 통합 쇼핑몰 조성



[1-10] 브랜딩 사업

< 배경 및 방향 >

- ▶ 공예마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콘텐츠화 하기 위해서는 브랜딩 사업 필수
- ▶ 진천공예마을의 특성이 담긴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딩 사업을 통한 마케팅 촉진

<공예마을 + 힐링콘텐츠 테마의 브랜딩>

- 장 소 : 공예마을 일원
- 내 용 : 스토리북, 공예맵, BI, 상품개발 등

① 스토리북

▶ 공예마을 탄생의 비밀 체계화

- 마을 조성단계의 각종 자료, 비화 등 집대성
- 사진 + 글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히스토리 특화

▶ 스토리북 제작

- 공예마을 히스토리, 작가들의 창작활동 체계적인 소개
- 단행본으로 제작 및 전국 서점 등에 판매

< 스토리북 콘텐츠(안) >

<1부> 탄생의 비밀(공예마을 탄생 비화 소개)

- 왜 공예인가 ○ 공예는 나의 운명 ○ 뭉쳐야 산다 ○ 진퇴양란
- 여기는 옥성리 ○ 상처깊은 풍경 ○ 첫 삽 ○ 꽃피는 봄 등

<2부> 다시 불꽃의 시간(창작활동 소개)

- 공예마을 사람들 ○ 창작의 시간 ○ 이웃과 함께 ○ 교류와 협력
- 견뎌 그리고 쓰임 ○ 옥성리의 밤 ○ 자연을 담은 예술 등

<3부> 공예마을 풍경(자료 및 사진)

- 공예마을 풍경 ○ 공예마을 사람들의 이모저모 등

② 공예마을 맵 제작

▶ 스토리가 있는 공예마을 맵

- 공예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맵
- 스토리, 캐릭터, 이미지 등을 활용해 흥미요소 특화

③ 공예마을 대표브랜드 BI 개발

▶ 공예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BI 개발

- 스토리텔링 + 디자인 융합형 BI 특화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함

④ 공예마을 대표 문화상품 개발

▶ BI를 활용한 문화상품

- 입주작가들이 각자의 창의성을 담은 문화상품 개발
- BI 활용, 패키지 상품화 및 판매 촉진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5억 원

- BI개발 5천만 원, 상품개발 3억 원, 마케팅 1억 5천만 원

▶ 추진일정

- 1단계(2019~2020) :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지역특화 브랜딩 공모사업 선정(2019년 12월)

* 사업비 3천만 원 확보, 2020년 2월까지 1차 사업 추진 중

- 2단계(2020~2021) : 브랜딩 성과물을 활용한 마케팅 촉진

· 공예마을 이미지 통합작업, 패키지 개발, 글로벌 마케팅 등

○ 기대효과

- 진천공예마을 이미지 통합 및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문화상품 지속 개발 및 특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사례1_ 대전 성심당>

-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찌빵집에서 시작, 1970년대 은행동 153으로 이전해 대전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 라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맛있는 빵, 경이로운 빵, 생명의 빵을 통해 사랑의 문화를 이루고자 한다는 히스토리 간직
- “성심당은 대전의 문화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단순한 음식을 뛰어넘어 지역을 대표 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를 스토리북, 캐릭터, 문화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브랜딩 사업 추진해 주목 받고 있음



<사례2_ 극작가 한운사>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출신의 <빨간 마후라> 극작가, <잘 살아 보세> 작사가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로 최근에 한운사를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 스토리북 제작 및 한운사 예술제 개최 등을 통해 청안 지역의 콘텐츠로 특화 하기 시작 하면서 주목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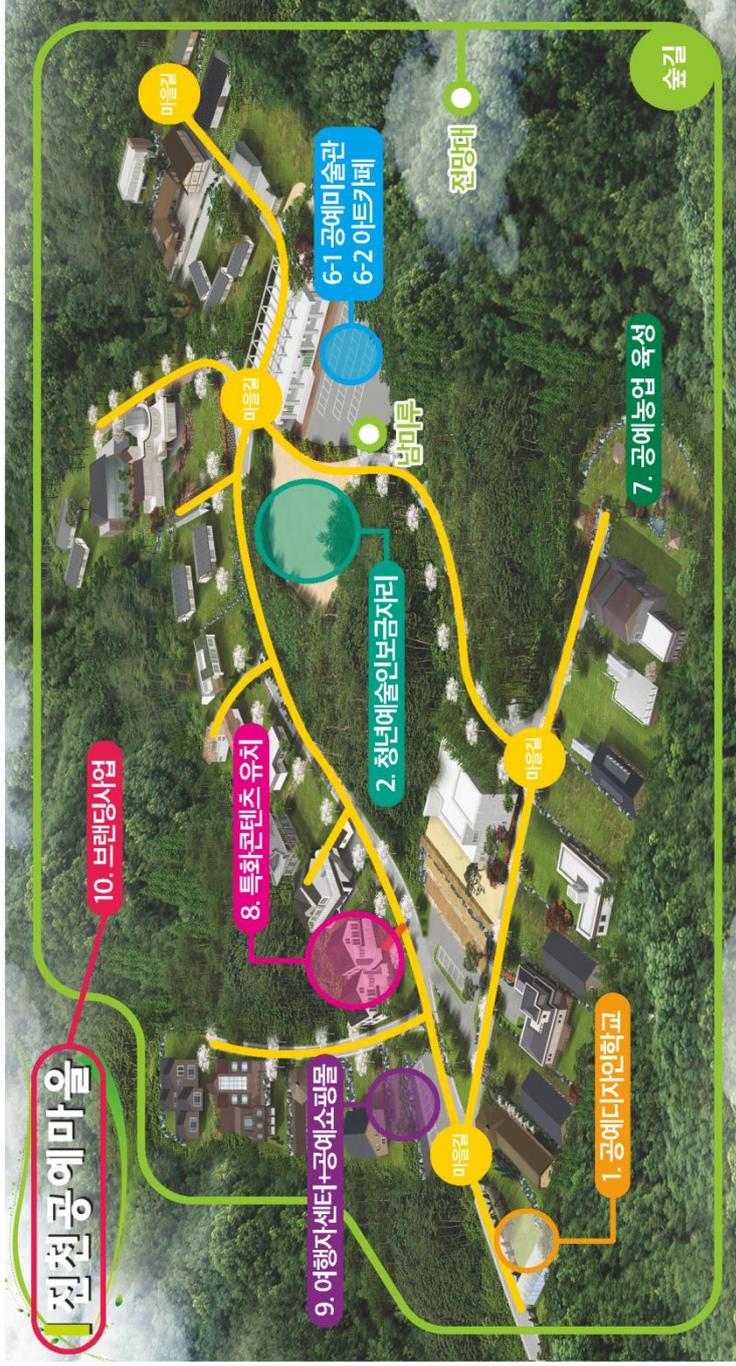
진천공예마을 활성화 MAP

마을현황

문화예술 + 힐링콘텐츠 융복합 특화마을

- 위치 : 충북 진천군 문매면 공예촌길 116-3 일원
- 면적 : 125,386㎡(37939평)
- 연혁 : 공예마을조성을 통한 특화마을, 20년의 역사
 - 2002~2006년 기반시설 사업 전개
 - 2006년 9월 활동화단지 중흥 인가
 - 2008년 전사체질정 종공(686㎡)
 - 2011년 Rural-20 지경마을(농림부)
 - 2011년 새길있는 마을 지정(농림부)
 - 2012년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
마을기업지정 (행안부)
 - 2015년 옥공예장터 개설
 - 2017년 공예디자인정보센터 사업 전개
(충북도, 충주시, 진천군 협력)
 - 2019년 국제교류전 개최, 브랜드 공모사업 선정
(충북콘텐츠코리아랩)

• 입주 : 31개 공방 35명의 작가 입주



주요사업

- 1. 공예디자인학교**
대한민국 대표 공예디자인 교육의 장
교육시스템구축 |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체질
- 2. 청년예술인보금자리**
청년예술인 입주, 창작 및 정착
주거공간 | 창작공간 | 공유공간
- 3. 예술가와 함께 살기**
입주자가 주택 활용 게스트하우스 특화
예술가의 집 게스트하우스 |
예술치유 프로그램 | 한 달 살이보기
- 4. 공예+힐링 프로그램**
주요기업, 각급학교, 관광객 대상
특별한 체험
공예교욱특화프로그램 |
힐링프로그램 | 전문인력 양성
- 5. 공예의 숲(거리)×마을길+숲길**
공예마을의 거리, 숲, 광장을 활용한
테마공간 조성
공예거리 | 공예숲
- 6-1 공예미술관**
6-2 아트페어
군립공예미술관 특화
전시 교육체험, 아카이브
예술카페 특화
작가 작품 등으로 연출(자+음식문화공간)
- 7. 공예농업 육성**
다나무(양지), 신초나무(장기타),
천연염색 등 삼림+농업
공예나무술 | 천연염색 정원 |
농민부산물 공예센터
- 8. 특화콘텐츠 유치**
유리공방, 모자이크학교 등 유치 등
콘텐츠 차별화
유리공방 | 모자이크 학교 |
원데이클래스
- 9. 여행자센터+공예쇼핑몰**
여행자서비스+공유공간
안내시스템 | 온라인쇼핑몰
- 10. 브랜딩사업**
공예마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체계화
스토리텔링 | 스토리북 | 미 |
마케팅

마을특징

- 1 다양한 공예장르가 모인
국내 유일 공동체
- 2 편리한 교통망과 접근성 용이
- 3 아름다운 숲속의 마을
- 4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 풍부
- 5 교육체험 특화공간 인접
- 6 농촌문화 + 힐링콘텐츠 최적지

<2> 연계사업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관광벨트 조성

※문백길(문백의 문화예술 100리) 조성을 통한 연계사업 추진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일원의 왕복 100리
- 권역내 킬러콘텐츠 9개(문백 9경) 발굴
- 물길, 들길, 숲길 등으로 체계화 및 브랜딩, 농촌형 문화관광 특화

① 농다리

-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돌다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 초평호의 초롱길과 연결돼 있어 물길+숲길의 조화로 인기를 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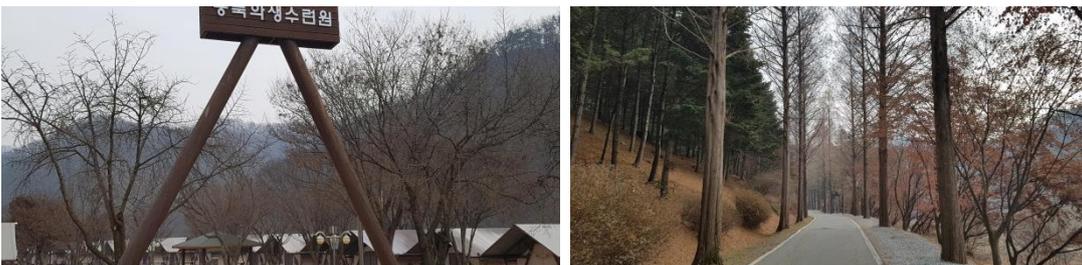
② 평사낙안·평사십리

- 평산리에서 은탄리 소두머리로 이어지는 십리의 모래길(평사낙안)이 일품인 곳



③ 충북청소년수련원

- 충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수련원 외에 은여울중학교, 국제교육원, 캠핑장 등의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 미호천의 빼어난 물길과 자연환경이 일품인 곳으로 유명



④ 천문대

-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천문과학 체험장
- 청소년을 위한 천문체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소두머니(우담제월)

- 미호천이 갈궁저리 마을을 휘감고 지나 펼쳐진 드넓은 강
- 물길과 들길의 조화를 이루면서 천혜의 비경으로 주목받고 있음



⑥ 마차박물관

- 한국의 마차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물과 자료 등 체계적으로 소개
- 마차교육, 마차체험 등 다채로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



⑦ 진천공예마을

- 금속, 도자, 목칠, 섬유 등 공예의 다양한 장르가 함께 모인 체류형 공예마을
- 창작, 교육, 소비, 유통 등 다양한 공예문화 활동을 하는 특화된 공예공동체
- Rural-20, 색깔 있는 마을 지정 등 전국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곳



⑧ 금성정원

- 금성개발에서 조성한 20,000㎡ 규모의 정원
- 1,000년 된 분재 등 희귀본 5,000여 점 식재 및 테마공원으로 조성 중



㉠ 송강사(어은계석)

- 문백면 송강로 523에 위치한 곳으로 송강 정철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며
- 상산팔경 중 하나인 주변의 계곡과 수림을 어은계석(물고기가 숨어사는 곳)이라고 부름



※ 표암 강세황의 묘

- 문백면 도하리에 위치
- 시·서·화 삼절로 불렸고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총수'로 불리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김홍도의 스승임.



[2-1] 공공미술프로젝트

< 배경 및 방향 >

- ▶ 공예마을과 주변의 역사문화 및 관광지에 대한 연계협력 및 통합시스템 필요
<공예마을 간판 부재, 주변 관광지 안내시스템 부족>
- ▶ 공예마을과 주변공간을 잇는 주요 도로변의 문화적, 생태적 환경 마련 시급
<가까운 거리인데도 연계성이 떨어지고 심리적 거리감 존재>
- ▶ 역사문화와 예술디자인으로 특화된 거리 조성, 방문객들의 호기심 및 편의성 도모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예술의 길 조성>

○ 장 소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① 농다리권역

농다리(초롱길)~평사낙악~학생수련원(은여울중+국제교육원)~천문대(천문체험학교)

② 공예마을권역

은탄리 우담제월~마차체험마을~공예마을

③ 송강사권역

문백정원~문백면 농촌중심지~송강사

○ 내 용 : 주요 도로 및 주변공간의 공공미술(퍼블릭아트) 사업

① 예술+디자인 간판거리

▶ 주요 도로변 예술+디자인 특화

- 주요 이정표(간판)의 예술성이 가미된 디자인 특화
-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촘촘한 디자인 작업

▶ 통합 브랜드 작업

- 해당 구역에 대한 통합 브랜드(BI) 작업 필요
- 단계적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안내 및 홍보시스템 구축

② 예술생태 거리공원

▶ 예술생태 한 뼨 숲

- 주요 도로변의 유휴 공간 활용한 생태 공간 조성
-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생태 특화

▶ 스트리트 퍼니처

- 한 뼨 숲의 예술벤치, 주변 공간의 거리조형물 제작 특화

③ 버스 승강장의 작은 갤러리

- ▶ 역사문화+예술이 있는 승강장<그린 하우스>
 - 해당지역의 역사문화 정보를 소개하는 스마트 정보센터
 - 공예마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
- ▶ 안전하게 지역의 공간을 투어 하는 거점 공간
 - 미세먼지,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간
 - 주요 정보를 실시간 소개하는 스마트 플랫폼 기능

④ 대지예술정원

- ▶ 주요 도로변의 숲, 물, 들을 활용한 예술프로젝트
 - 숲길, 물길, 들길 등의 자연 풍경을 살린 디자인 사업
 - 사계절 주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 조성



○ 예산 및 추진일정

- ▶ 소요예산 : 20억 원
 - 설계 및 디자인 2억 원, 간판제작 3억 원, 버스승강장 작은갤러리 5억 원(0.5×10개소), 예술생태거리 5억 원, 대지예술정원 조성 5억 원
-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시범사업으로 1~2개소 추진
 - 버스승강장, 한뼘공원, 거리벤치 등 시범사업
 - 2단계(2021~) : 전구간 사업 확대
 - 거리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기획

○ 기대효과

- 주요 공간 이미지 통합 및 유쾌한 거리 특화, 용이한 접근 환경 마련

[2-2] 농다리 권역 생태예술정원

< 배경 및 방향 >

- ▶ 농다리, 초평호 일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나 연계 콘텐츠 부족
- ▶ 역사문화 +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생태예술 공간으로 특화, 글로벌 이슈화 필요

<역사의 길, 자연의 길, 예술의 길>

- 장 소 : 농다리 ~ 초롱길(초평호) 일원
- 내 용 : 주요 거리 및 공간 생태예술정원, 국제자연예술제, 리버마켓

① 생태예술정원

▶ 농다리~초평호 생태예술 거리 조성

- 역사 + 생태 +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공간
- 공예마을 입주작가 등이 참여하는 생태예술 프로젝트 특화

▶ 디지로그 힐링콘텐츠 거리 조성

- 역사 + 생태 + 예술을 소재로 한 치유의 거리(공간) 특화
- 아날로그 공간에 디지털(ICT) 기술 특화(디자인, 영상, 음악 등 디지털탐방)

② 국제자연예술제

▶ 진천공예마을 + 농다리 일원을 연계한 국제자연예술제

- 매년(또는 격년) 국내외 자연예술 전문가 초청
- 기획전, 특별전, 워크숍,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

- 생태예술정원 + 자연예술제 성과품 체계적인 관리
- 자연 속의 미술관 특화, 글로벌 관광자원 조성

③ 리버마켓

▶ 진천공예마을 입주작가 + 지역 주민 협력 주말마켓

- 농다리 일원에 매주 주말마다 리버마켓 개최
- 공예 및 농특산품 등 전시 및 판매, 음식시연 및 거리공연 등 체계화

▶ 리버마켓의 브랜드 사업

- 지속적인 리버마켓으로 성장하기 위한 브랜딩 사업 전개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농다리 권역 정책사업 연계 추진(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등)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 리버마켓 등 일부 행사 시범 운영
- 2단계(2021~) : 사업 실행 및 운영
 - 예술정원 조성, 국제예술제, 리버마켓 등

○ 기대효과

- 공예마을의 역량을 주변의 문화관광 자원에 발휘, 지역활력
- 글로벌 관광지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사례1_ 문호리 리버마켓>

- 경기도 양평의 강변에서 열리는 거리마켓으로 매회 100여 팀 참여
- 수도권 대표적 문화마켓으로 정착, 양양 등 타 지역으로 확산
- 체계적인 회원 관리,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으로 대한민국 대표 거리마켓으로 자리잡음



<사례2_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후 이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 글로벌 관광지 도약
- 역사, 문화, 자연환경이 오롯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특화 시켜 365일 관광객 유치



[2-3] 송강사 권역 인문힐링정원

< 배경 및 방향 >

- ▶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지만 특화된 콘텐츠 부족, 관광자원으로 의미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 천혜의 자연환경 + 가사문학이 조화를 이루는 인문콘텐츠, 힐링콘텐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자연환경 +인문 융합, 힐링콘텐츠 특화공간>

- 장 소 : 송강사 일원
- 내 용 : 시문학공원, 디지로그 인문숲, 인문창작센터

① 시문학공원

▶ 한국의 시문학 집대성, 테마파크 조성

- 가사문학, 시조문학, 근·현대 시문학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 유명 시인 및 시 작품을 소재로 한 조각공원 조성

▶ 한국의 시문학 아카이브

- 한국의 가사문학, 시조문학, 근·현대 시문학 체계적인 아카이브
- 시를 읽고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특화

② 디지로그 인문숲

▶ 시문학 디지로그 플랫폼 구축

- 한국의 시문학을 디지털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시문학 아카이브와 연계해 스마트 시문학관 구축, 상용화

▶ 시문학 디지로그 숲 조성

- 가사문학, 시조문학, 근·현대 시문학 등의 주요 작품 디지털화
- 시문학 공원 내에 디지털 오디오+미디어 시스템 구축
- 방문객들에게 문학의 길을 걸으며 시를 즐길 수 있도록 특화

③ 인문창작센터 '시인의 집'

▶ 시인 창작촌

- 시인들이 일정 기간 머무르며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곳 조성
- 집필실, 자료실,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 시스템화

▶ 인문학 게스트하우스

- 인문학을 통해 치유와 힐링을 희망하는 자들의 휴식공간
- 머무르며 송강사 및 주변의 문화공간 탐방

④ 맛있는 인문학

▶ 시인과 함께하는 시문학 토크쇼

- 국내·외 주요 시인 및 저명인사 초청 토크콘서트 전개
- 시노래 가수 초청, 이야기 콘서트 병행

▶ 치유가 되는 음식 콘서트

- 숲 속에서 인문학 + 힐링음식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힐링음식 전문가 함께하는 상설 교육 및 체험 콘텐츠 특화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송강사 권역 정책사업 연계 추진(송강사 유교인문테마 정원 등)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 시문학콘서트 등 일부사업 추진
- 2단계(2021~) : 사업 실행 및 운영
 - 문학공원 조성, 시문학 아카이브, 디지로그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 시문학공원 조성 시 지역 공예작가 참여, 문화적 자긍심 고취
- 인문+힐링 콘텐츠로 특화된 관광지 발돋움, 공간활력

[2-4] 청소년수련원+은여울학교, 지붕없는 자연예술학교

< 배경 및 방향 >

- ▶ 충북을 대표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인접하고 있으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 ▶ 충청도교육청이 직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은여울중학교 역시 창의적인 교육환경 및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필요하지만 진천공예마을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 ▶ 따라서 수련원, 대안학교 등의 기관과 협력해 공예디자인 체험을 특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마련 필요

<꿈을 담고 예술을 빛는 지붕 없는 자연학교>

○ 장 소 : 충북청소년수련원, 은여울중학교

* **충북청소년수련원** : 111,781㎡ 규모에 숙소, 관사, 강당, 샤워실, 야외공연장, 글램핑 텐트(26동) 등의 시설 구비

* **은여울중학교** : 청소년수련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활동 전개하는 곳(단계적으로 중학교+고등학교 확장 계획)



○ 내 용 : 공예디자인학교, 자연학교, 희망학교

① 공예디자인학교

▶ 공예디자인 커리큘럼 체계화

- 금속, 도자, 목칠, 유리 등 공예의 장르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창의적인 실습 중심의 교육콘텐츠 특화

▶ 진천공예마을과 협력 교육 시스템화

- 공예마을 입주 작가들이 주 강사(교사)로 참여
- 공예마을에서 현장 실습 활동 전개(멘토와 멘티)

▶ 졸업 후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졸업생 중 희망자는 공예마을에 입주 지원
- 공예디자인을 통한 창의적인 창작활동, 전문가 역량 배양

② 자연학교

▶ 주변의 자연환경 연계한 자연학습 체계화

-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예술의 가치 학습
- 자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 전개

▶ 자연치유, 예술치유 프로그램 특화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반영, 자연과 예술로 치유환경 조성
- 자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공예, 생태, 자연과학 등)

③ 희망학교

▶ 노매드 캠퍼스

- 자연 및 역사문화 속에서 전문가와 함께 마음껏 놀며 탐구하는 프로그램
- 멘토와 멘티제를 통한 맞춤형 교육, 창의교육 지원

▶ 온라인 캠퍼스

- 오프라인 캠퍼스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으로 소개, 아카이브 시스템화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5억 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5천만 원, 기자개 및 체험장비 구입비 2억5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 교과과정 중 일부 시범 실시
- 2단계(2021~) : 사업 실행 및 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요망(충북도교육청 등)

○ 기대효과

- 관내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창의적인 예술교육, 자연교육의 새로운 지평 확장

[2-5]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 배경 및 방향 >

- ▶ 스마트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화환경도 스마트 시스템 구축 필요
- ▶ 역사문화, 자연환경, 관광자원, 주요 행사 및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
-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체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

○ 장 소 : 진천공예마을 및 주변의 주요 공간

* 농다리 ~ 진천공예마을 ~ 송강사 일원

○ 내 용 : 스마트플랫폼, 여행자안심거리, bbb코리아, Micro Mobility

① 스마트 플랫폼

▶ 진천형 스마트관광도시 솔루션 개발

-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 협력, 외국인 전용 스마트관광도시 솔루션 개발
<관광 및 교통정보, 통번역, 주요 콘텐츠 등 플랫폼 기반 환경 시스템>

▶ 촘촘한 스마트시티 구현

- 주요 거리, 공공기관, 숙박, 식당, 시장 등 곳곳에 온라인 서비스망 구축
-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도시의 모든 정보 실시간 검색하고 이용토록 정착
<영상, 사진, 스토리, 정보 등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사물인터넷, AR, VR 등의 콘텐츠 특화를 통한 관광이 되는 스마트시티

② 여행자 안심거리

▶ 여행자 안심존 설치

- 여행자를 위한 온·오프라인정보 비치, 긴급 요청 시 바로콜 서비스
- 주요 구간에 안심존 설치, 체계적인 안내 및 서비스 활동 제공

▶ 제로하우스 운영

- 여행자 및 주요 공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등을 친환경 처리하는 곳

③ bbb코리아 네트워크

▶ 휴대폰 통화로 다국어 통역 서비스

- bbb코리아는 다국어를 전화(휴대폰)으로 통역하는 자원봉사 단체임
- 진천군과 협약을 통해 즉시 통역, 즉시 안내 시스템 구축

④ Micro Mobility(Tourism Mobility)

▶ 친환경 + ICT 기술 접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 중·저속 전기차, 1인용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 등 공공자전거
- 예술성+조형성을 담은 아트바이크 등 특성화를 통한 친환경시스템 구축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0억 원

- 스마트플랫폼 구축비 3억 원, 안심존 및 안심거리 조성비 3억 원, 친환경 교통시스템 4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 2단계(2021~) : 사업 실행 및 운영
- ※ 관련 연구기관 업무협력 및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일원의 스마트관광 시스템 구축
-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광환경 조성, 글로벌 관광지 특화

[2-6] 문백의 사계, 축제 프로그램

< 배경 및 방향 >

- ▶ 진천공예마을, 농다리, 송강사 일원을 통합하는 차별화된 사계절 축제 필요
- ▶ 역사문화 + 공예디자인 + 자연환경 융합형 특화된 콘텐츠 개발
- ▶ 체류형, 체험형, 감동이 있는 축제를 통한 100년 가는 관광환경 마련

<문백의 멋, 맛, 풍류가 있는 사계절 축제>

- 장 소 : 진천공예마을, 농다리, 송강사 일원
- 내 용 :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테마가 있는 축제 콘텐츠

① 봄시즌 : 예술의 봄

- ▶ 공예마을 작가들의 봄마중 페스티벌 <아트페어>
 - 작가들의 겨우내 창작활동 결과물 전시 및 판매
 - 공예체험, 공연이벤트,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 해외작가 초청 행사 <로컬리즘&글로벌리즘>
 - 해외 주요 공예작가 초청 기획전 및 교류전 개최
 - 참여 작가간의 작품 시연 및 워크샵 개최

② 여름시즌 : 역사 한 상

- ▶ 송강사의 인문학 페스티벌
 - 전국의 문학인이 참여하는 시문학 잔치마당, 인문콘서트 등 개최
 - 문인협회, 작가회의, 박물관협회 등 전국단위 기관단체 협력 추진
- ▶ 농다리와 초평호의 숲속 보물찾기
 - 물길, 숲길, 들길을 따라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전개
 - 힐링을 테마로 한 인문콘서트, 여름 밤 문화캠프 등

③ 가을시즌 : 풍경 물듭

- ▶ 송강사, 공예마을, 농다리 등 가을풍경 기행
 - 힐링과 치유를 테마로 한 자연예술 프로그램 전개
 - 공예, 인문, 역사 등 지역성을 담은 콘텐츠 특화(토크콘서트, 공연, 전시, 체험 등)
- ▶ 진천 유튜브 영화제
 - 진천의 아름다움을 사진, 영상 등 유튜브로 담은 공모전
 -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는 시상, 유튜브 영화상영

④ 겨울시즌 : 삶의 향기

- ▶ 고쿠락페스티벌
 - 고쿠락은 '아궁이'를 뜻하는 충청도 사투리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추억의 농촌문화 축제
 - 떡거리(고구마, 감자, 옥수수, 찔빵 등), 불거리(주요 관광지 투어), 살거리(공예품, 문화상품), 추억거리(겨울 민속체험, 빙어축제 등)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0억 원(연간 소요예산)

- 기획비 5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4억 원, 시설 임차비 2억 5천만 원, 인력 운영비 5천만 원, 홍보 마케팅비 1억 5천만 원, 성과관리비 5천만 원, 아카이브 5천만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2단계(2021~) : 사업 실행 및 운영
- ※ 축제 전문가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 가동

○ 기대효과

- 사계절 테마가 있는 축제로 연중 콘텐츠 특화 및 관광활성화
- 체류형, 체험형 축제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축제환경 마련

[2-7] 문화관광 상품

< 배경 및 방향 >

- ▶ 진천공예마을, 농다리, 송강사 일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환경 조성 필요
- ▶ 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문백지역의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먹거리 특화, 맛있는 여행 추구

<문백에서 즐기는 특별한 맛과 멋>

- 장 소 : 진천공예마을, 농다리, 송강사 일원
- 내 용 : 예술택시+마차여행, 문화상품, 문백의 춤과 노래, 문백의 맛

① 신 활력 교통수단 예술택시+마차여행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일원 예술택시

- 현재, 3개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환경 불편, 청주 등 대중교통망 부족
- 지역 내 주요 택시 중 공모를 통해 예술택시 선정, 3개 지역 집중 배치
- <바로콜>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택시 이미지의 예술 디자인
- 이용객은 대중교통 요금을, 손실금은 진천군에서 보전토록 함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일원 마차여행

- 공예마을 앞 마차박물관과 협력, 마차를 타고 관광여행
- 마차에 대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스토리텔링 여행 상품 특화

② 문화관광상품 특화

▶ 관광기념품 제작

- 진천공예마을 작가들과 협력 농다리, 송강사 등의 역사문화 소재의 상품

▶ 농·특산품 특화

- 문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품 등을 활용한 농·특산품 특화

▶ 거점별 문화상품 샵 운영

- 관광기념품 +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 관광안내 + 상품판매 + 힐링카페 기능 병행토록 함

③ 힐링테마 문화콘텐츠 특화

▶ 힐링이 되는 공연콘텐츠 개발

- 공예, 농다리, 송강사 등의 자원을 소재로 한 힐링음악
- 지역 콘텐츠를 소재로 한 뮤지컬 제작
- 춤, 노래, 뮤지컬 등 상설공연 시스템 구축

▶ 몸에 좋은 대표음식 개발

- 농다리, 송강사 등의 역사적 고증 및 배경을 통한 음식 개발
-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개발(발효음식 등)
- 문백의 물+숲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통주(발효주) 개발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5억 원

- 예술택시 운영 2억 원, 상품개발 1억 원, 힐링콘텐츠 개발 1억 5천만 원, 마케팅 5천만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2단계(2021~) : 사업 실행 및 운영
 - ※ 관련분야 전문가 협력, 체계적인 사업 추진
 - ※ 일부 사업 군 자체 예산 추진(음식개발 등)

○ 기대효과

- 문백의 아름다운 비경을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문백의 노래, 문백의 춤, 문백의 맛을 자원으로 특화 및 이슈화

[2-8] 문백길(문백의 문화예술 백리)

< 배경 및 방향 >

- ▶ 초평호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를 잇는 역사문화의 길, 힐링길 조성 필요
- ▶ 차로 이동하는 길 외에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며 역사문화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지역활력, 공간활력, 풍경활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문백의 역사문화, 예술, 자연의 100리길>

- 장 소 : 초평호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 물길, 들길, 숲길, 마을길 등을 연결하는 왕복 100리길
- 내 용 : 100리길 조성, 100리길 콘텐츠 특화

① 100리길 조성

▶ 구간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왕복 100리

▶ 구간 내 주요 거점 공간<문백 9경>

- ① 농다리(초롱길) :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다리 + 초평호 연결 힐링길
- ② 평사십리 : 평사십리의 절경 + 힐링길 조성
- ③ 학생수련원(+은여울중+국제교육원) : 청소년 교육공간 + 하천의 비경
- ④ 충북대 천문대(천문체험학교) : 천문체험 + 주변의 풍경
- ⑤ 은탄리 우담제월 : 상산팔경 중 하나 + 주변의 절경
- ⑥ 마차체험마을 : 마차박물관 + 마차체험
- ⑦ 공예마을 : 공예마을 풍경 + 공예체험
- ⑧ 문백정원 : 아름다운 조경 + 희귀 분재
- ⑨ 송강사 : 송강 정철의 인문학 + 어른계석

▶ 구간 내 주요 거점 공간<문백 9경>

- 물길, 숲길, 들길, 마을길을 중심으로 한 걷기길 조성

- ① 물길 : 농다리, 평사십리, 학생수련원, 천문대
- ② 들길 : 우담제월, 마차체험마을, 문백면 농촌중심지
- ③ 숲길 : 송강사, 공예마을, 문백정원

- 자연 및 공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기획

- 걷기길, 자전거길로 특화, 주요 거점별 문화쉼터, 예술힐링공간 조성

② 100리길 콘텐츠 특화

▶ 자연예술

- 100리길 일원의 역사문화, 자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
- 100리길 내의 주요 공간과 마을을 잇는 연계 콘텐츠 특화
〈농가맛집〉 〈마을풍경〉 〈농촌호텔〉 등

▶ 퍼블리아트

- 공예 + 예술성 높은 공공미술 작품으로 100리길 특화
- 진천공예마을 작가 주도적 참여, 외부 전문가 협력

▶ 스토리텔링

- 구간내 주요 역사문화 자료 발굴
- 스토리텔링(글+사진+그림 등) 및 스토리북 제작, 스토리맵 제작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5억 원

- 100리길 조성 15억 원(숲길+물길+들길 연결), 문백9경 거점시설 9억 원, 콘텐츠 특화 1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2단계(2021~) : 사업 실행 및 운영
 - ※ 관련분야 전문가 협력, 체계적인 사업 추진
 - ※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 보존, 구간별 연계성 고려

○ 기대효과

- 문백의 아름다운 비경을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자원, 힐링콘텐츠 테마의 길 조성

문백면 물길~들길~숲길 <문백 9경>



물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다리 평사심리 청소년수련원 송강사
들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문대 마치마을
숲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예마을 금성정원 송강사

<3> 협력사업 : 청주 ~ 진천의 주요 공간 및 콘텐츠 연계협력

[3-1] 문화제조창C

< 배경 및 방향 >

- ▶ 진천공예마을과 20분 거리에 중부권 최대규모의 문화재생 공간 '문화제조창C' 위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공예클러스터>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등
- ▶ 연중 지역 및 글로벌 행사 전개, 충북의 대표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전개
<콘텐츠코리아랩>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장> 등

<진천~문화제조창C 맞손, 세계로 도약하는 진천공예>

○ 장 소 : 문화제조창C

○ 내 용 : 공예클러스터 연계협력, 콘텐츠코리아랩 연계협력

※ 문화제조창C 개요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 국내 최대규모의 담배공장 문화공간 재생
<90,000㎡ 규모에 제조창, 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광장 등으로 구성>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종합쇼핑몰, 공예클러스터 특화>



① 공예클러스터

▶ 공예클러스터 내 공예마을 홍보존 운영

- 공예마을 주요 작가 작품, 창작세계 홍보
- 클러스터 내 워크샵, 심포지엄 등 수시 개최 및 참여

▶ 공예클러스터 내 공예마을 아트샵 운영

- 주요 작가의 작품 전시 및 판매
- 기획전, 특별전, 교류전 등 다양한 사업 전개

▶ 공예클러스터 ~ 공예마을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작가 및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 운영

② 충북콘텐츠코리아랩

▶ 공예디자인콘텐츠 개발 협력

-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은 문화부, 충북도, 청주시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간
- 공예디자인을 테마로 한 문화상품 개발, 브랜딩 개발 등 사업 추진
- 글로벌 교류 및 사업화, 마케팅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토록 협력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5억 원

- 클러스터 내 쇼핑몰 입점 5억 원(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수립

(청주시의 공예클러스터 계획에 진천공예마을 협력 안 포함)

- 2단계(2021~) : 사업 실행 및 운영

※ 콘텐츠코리아랩은 연계협력 사업 추진 중

○ 기대효과

- 진천공예마을의 콘텐츠를 도시민,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는 환경 조성

- 로컬리즘의 글로벌리즘으로 확장, 100년 가는 문화환경 구축

[3-2] 공예비엔날레

< 배경 및 방향 >

- ▶ 1999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간헐적으로 공예마을 작가들이 전시,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연계협력은 미흡하였음
- ▶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공예비엔날레와 전시, 학술, 워크샵, 투어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협력 모델 마련 필요

<공예비엔날레와 함께 글로벌 성장하는 진천공예마을>

- 장 소 : 문화제조창C 내 비엔날레 행사장, 진천공예마을
- 내 용 : 공예클러스터 연계협력, 콘텐츠코리아랩 연계협력

※ 공예비엔날레 개요

- 1999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공예 전문 비엔날레
- 본전시, 특별전시, 국제공모전시, 공예페어, 학술 및 워크샵 등 개최
- 대회 3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작가 참여, 30여 만 명의 관람객 방문



① 진천공예마을 초대관

- ▶ **공예비엔날레 행사장 내 초대관 운영**
 - 공예마을 작가 참여, 대표 작품 전시 및 소개
 - 대회 주제에 맞는 작품 소개를 통해 작가 창작 활동 지원 및 홍보
- ▶ **공예비엔날레 행사장 내 작가 워크샵 개최**
 - 도자, 목칠, 금속, 섬유 등 입주작가 릴레이 워크샵
 - 방문객 및 해외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시연활동 전개

② 국제교류 워크샵

- ▶ **공예마을 내에서 <국제교류전> 운영**
 - 공예마을의 전시공간 활용, 입주작가 + 해외작가 교류전 개최
 - 전시회 기간 중 워크샵,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 전개

③ 관광네트워크

- ▶ 공예비엔날레 ~ 공예마을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내국인, 외국인 등 방문객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공예비엔날레 관람하고 공예마을에서 즐기기(전시, 체험, 탐방 등)
 - 〈1일 코스〉 〈1박2일 코스〉 〈주중코스〉 〈주말코스〉



○ 예산 및 추진일정

- ▶ 소요예산 : 5억 원
 - 공예비엔날레 기간 중 공예마을 특별관 운영 5억 원(전시, 시설, 운영비 등)
-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 업무협약)
 - 2단계(2021~) : 사업 실행
 - ※ 격년제로 전시, 워크샵, 투어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활동 전개

○ 기대효과

- 진천공예마을의 역량을 공예비엔날레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
- 국내외 전문가 및 기관단체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3-3] 진천군 일원 문화관광 연계협력

< 배경 및 방향 >

- ▶ 진천군의 주요 문화관광지와 관련 프로그램에 공예마을이 부각되지 않으며, 연계 협력 사업이 미흡에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 ▶ 단순 홍보 및 마케팅 수준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가치를 살리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활력 방안 제시

<진천의 문화예술, 세계의 문화예술>

- 대 상 : 진천지역 주요 역사문화공간
- 내 용 : 문화관광 네트워크, 공예문화 창의학습, 치유·힐링프로그램

- ※ 종박물관·판화미술관 : 국내 유일의 종 제작 및 전시공간, 판화특화 미술관
- ※ 베틀성지·보탑사 : 천주교 성지, 사찰 등의 문화재로 진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 ※ 관내 각급학교 : 초등학교·중고등학교·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등 위치
- ※ 진천선수촌 :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스포츠 꿈나무 육성의 장
- ※ 혁신도시 및 관내 기업 : 국가 혁신도시 내 정부 산하기관 입주, 관내 기업체

① 문화관광 탐방 네트워크

▶ 진천군 문화관광 체계화

- 역사문화권, 예술체험권, 자연힐링권 등 테마별 투어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권역별 '뭉뚱관광'으로 체류형, 참여형 관광콘텐츠 육성

▶ 공예마을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국내 최고의 공예작가·공예마을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시, 탐방,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② 공예문화 창의학습

▶ 각급학교 현장학습, 창의학습의 장

-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 공예문화 체험 및 창의학습장으로 특화
- 타깃별 차별화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마련

▶ 대학 및 성인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와 협력, 공예교육학습관으로 특화
- 진천군청, 교육지원청, 읍·면별 주요 기관단체 연수 특화

③ 치유·힐링프로그램

▶ 관내 주요 기업 연수 프로그램 적극 유치

- 힐링+치유가 있는 연수, 공예문화가 있는 연수 프로그램 특화
- 관내 기업체 연수 활동 시 지자체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충북도, 전국의 기업 연수프로그램 확산

-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 및 환경 조성을 통한 전국적인 콘텐츠 부각
- 연중 공예문화 테마의 힐링+치유가 있는 연수공간 특화
<공예문화 테마의 힐링+치유가 있는 기업연수원 유치 필요>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5억 원

- 문화관광 탐방 네트워크 2억 원, 공예문화 체험프로그램 2억 원, 치유힐링 프로그램 1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단계별 사업실시
- 2단계(2021~) : 사업 실행

※공예문화의 치유+힐링콘텐츠 정착 가능하도록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공예문화로 소통하는 마을, 머무르는 마을, 세계와 함께하는 마을

<4> 확산사업 : 글로벌 확산, 대물림 환경

[4-1] 역량강화

< 배경 및 방향 >

- ▶ 공예마을 입주작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으나 공동체적 시선 및 협력 시스템 부족, 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필요
- ▶ 주변 연계공간의 주요 관계자 참여하는 관광협의회(DMO) 구성 및 대물림 관광 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마련,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

<함께하는 공예문화, 세계로 뻗는 한국문화>

- 장 소 : 공예마을 및 연계공간 관계자
- 내 용 : 역량강화 교육, 100년가게, 공유경제 시스템, 문백화페

① 역량강화 교육

▶ 공예문화 및 마케팅 교육

- 전문기관 협력,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증서 수여(관광도시 지정업소 인증서)

② 100년 가게 만들기

▶ 공예공방 100년 가게

- 공예마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방 운영자에게 인증
- 체계적인 홍보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 우선 참여

▶ 음식+농·특산품 대물림 가게

- 문백의 맛집 육성 및 특화
- 문백의 농·특산품을 활용한 글로벌 마켓 선도

③ 커뮤니티

▶ 권역 내 주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자율적인 관광 동아리, 자원봉사 활동 지원
- 관광두레 운영, 우수팀의 시상 및 포상

④ 공유경제 환경 구축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 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활동지원 및 우수 기업(단체) 시상 및 포상

⑤ 문백화페 도입, 지역경제 활력

▶ 지자체 또는 특정 관광지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 인기

▶ 공예마을과 주변의 관광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페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억 원

- 주민교육 5천만 원, 공유경제 환경 특화 5천만 원, 커뮤니티 운영 5천만 원, 문백화폐 발행 5천만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교육
(공예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변 마을 거버넌스 구축)
- 2단계(2021~) : 사업 실행
 - ※ 역량강화, 공유경제, 문백화폐 등 체계적인 운영

○ 기대효과

- 공예마을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 마련

[4-2] 진천관광DMO

< 배경 및 방향 >

- ▶ 자발적 지역관광 환경 마련 및 지속가능한 문화환경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관광 협의회(DMO) 구축 필요<정부 권장사항>
- ▶ 행정 + 전문가 +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체계화,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형 관광협의회 운영

<대물림 관광, 자생적 문화환경>

○ 조직명 : 사단법인 진천관광협의회(또는 문백관광협의회)

○ 사무국 : 진천군 관내

○ 내 용 :

① DMO 조직 구성

▶ 조직의 중장기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 진천 일원의 관광플랫폼으로서 기능
- 관광산업을 통한 수익창출 및 자생력 있는 민간단체
- 지역연계 DMO로 중장기적 도약
- 관광아카데미사업 확대

▶ 조직의 역할 및 기능

- 구성 : 진천군청, 관광종사자, 경찰, 소방서, 교육지원청, 기관단체 대표, 관내 주요 기업 대표 등 참여
- 사무국 : 관광, 여행, 행정, 조직관리 등 DMO업무 유관경력자로서 사무국장 1인과 행정인력 확보

총 회	- 진천군관광협의회 전체회원으로 구성 -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 사 회	-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계획, 예·결산 및 재산관리,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등 의결
운영 위원회	- 각 분과위원회별 1명 등 10~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진천군관광협의회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
분과 위원회	- 관광진흥·서비스·축제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별 현안과 문제점을 토의·조정하기 위한 기구

② DMO 운영 활성화

▶ DMO 주요 사업

- 진천군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등)
- 주요 사업 발굴 및 실행(상품개발, 축제 및 행사 개최, 교류활동 등)
- 회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체계적인 교육활동 등)
- 관광센터(플랫폼) 운영 및 홍보마케팅 활동

▶ 진천공예마을조합과 연계협력

- 진천공예마을조합 : 조합 및 조합원 관리 운영,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 중
- 진천공예마을조합과 진천DMO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진천관광 및 공예마을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견인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3억 원

- 교육활동 5천만 원, 조직구성 및 운영 2억 5천만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진천DMO 설립(관내 전문가 등으로 구성, 법인 설립)
- 2단계(2021~) : 체계적인 운영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사업전개 등

○ 기대효과

- 진천의 문화관광, 공예마을의 문화관광을 체계적이고 주민 주도형으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마련

[4-3] 홍보마케팅

< 배경 및 방향 >

- ▶ 공예마을 및 주변의 문화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로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콘텐츠 마을로 도약
- ▶ 국내외 주요 기관단체 및 공예마을 등과 휴먼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관광지로의 위상 확보,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 마련

<지역과 세계가 함께하는 진천의 문화>

○ 내용 : 스토리텔링 및 브랜딩, 글로벌네트워크, 온·오프라인마케팅

① 스토리텔링 및 브랜딩

- ▶ **공예마을 및 주변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 전문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 글+그림+사진 등을 활용한 스토리북, 스토리맵 제작
- ▶ **브랜드 개발**
 -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가능한 BI 개발
 - 기본 매뉴얼, 응용매뉴얼 등 체계화를 통한 즉시 사업화

② 글로벌 네트워크

- ▶ **공예마을 네트워크**
 - 세계 각국의 주요 공예마을 네트워크, 교류활동 전개
- ▶ **공예마켓 네트워크**
 - 세계적인 마켓 및 박람회 네트워크, 지역작가의 해외 교류 확산

③ 온라인마케팅

- ▶ **다국어 유튜브 채널 운영**
 - 진천의 문화관광 소식을 전달하는 채널 운영
- ▶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 관광협력**
 - 해외각국 순회 관광설명회, 관계자 팸 투어, 기관단체 협약 등 체계화
- ▶ **청주맘스카페, 오창맘 연계협력**
 - 청주권 최대의 온라인 그룹과 협력, 체계적인 홍보
 - 공예문화+자연예술 테마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



○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5억 원

- 브랜딩사업 2억 원, 휴먼네트워크 사업 2억 원, 온라인마케팅 1억 원

▶ 추진일정

- 1단계(2020) : 종합계획 수립, 스토리텔링 사업 전개

(관내 전문가 참여 종합계획 수립, 문백면 주요 자원 스토리텔링))

- 2단계(2021~) :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 스토리텔링, 브랜딩, 글로벌네트워크, 온라인마케팅

○ 기대효과

- 지역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문화관광 환경 조성

- 365일 체류형, 체험형 관광객 문전성시를 통해 지역활력

제5장 운영 전략

1. 예산계획
2. 예산확보 방안
3. 운영방안
4. 네트워크 구축방안
5. 당면과제
6. 기대 효과

1

예산계획

■ 예산분석 <총 사업비 : 30,000백만 원>

구분	사업비 (백만 원)	재원조달	비고
핵심사업	20,000	농림부, 문화부 등 정부공모사업	
연계사업	7,500	농림부, 문화부 등 정부공모사업	진천군 추진계획사업연계
협력사업	1,500	충북도, 청주시 등 연계협력	
확산사업	1,000	농림부, 문화부 등 정부공모사업 및 진천군 자체예산 확보 추진	
합 계	30,000		

구분	단위사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 원)	비고
핵심사업	1. 공예디자인학교	①교육시스템 구축 ②교육콘텐츠 개발 ③교육프로그램 운영 ④교육성과물 사업화	3,000	HW/SW ※중기청, 메이커 스페이스
	2. 농촌 청년예술인 보급자리	①청년예술인 주거공간 ②공예디자인 창작공간 ③입주작가 네트워크공간 ④공유공간	7,000	HW/SW ※농림부
	3. 예술가와 함께 살기	①예술가의 집 게스트하우스 ②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③예술가와 한달 살아보기	2,000	HW/SW ※문화부
	4. 공예힐링 프로그램	①타깃별 교육콘텐츠 개발 ②공동 프로그램 운영 ③전문인력 양성	700	SW ※문화부
	5. 공예숲 조성	①공예간판 특화 ②공예거리 조성 ③공예숲 조성	1,900	HW ※문화부, 마을미술프 로젝트
	6. 군립공예미술관 +예술카페	①아트카페 '행복 한 잔' ②아트 레스토랑 '맛있는 공예' ③인문+예술콘서트홀 '삶의 향기'	1,000	HW/SW
	7. 공예농업 육성	①공예나무 숲 ②천연염색 정원 ③농업부산물 공예센터	1,500	HW/SW ※농림부 ※산림청
	8. 특화콘텐츠 유치	①유리공방 ②모자이크공방 ③원데이 클래스	1,500	HW/SW
	9. 여행자센터 +공예쇼핑몰	①아트샵 ②아트갤러리 및 아트폴라보 ③온라인 쇼핑몰 ④여행자센터	900	HW/SW ※문화부 ※산자부
	10. 브랜딩 사업	①공예마을 스토리북 ②공예마을 맵 제작 ③공예마을 BI 개발 ④대표 문화상품 개발	500	SW ※문화부 ※CCL

구분	단위사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비고
연계사업	1. 공공미술 프로젝트	①예술+디자인간판 거리 ②버스승강장 작은갤러리 ③예술생태 거리 ④대지예술 정원	2,000	HW/SW ※문화부, 마을미술프로젝트
	2. 농다리권역 생태예술정원	①생태예술정원 ②국제자연예술제 ③리버마켓(유기농프리마켓)	-	HW/SW ※문화부 ※농림부
	3. 송강사권역 인문힐링정원	①시문학공원 ②디지로그 인문숲 ③인문창작센터 '시인의 집' ④맛있는 인문학	-	HW/SW ※문화부
	4. 청소년수련원 자연학교	①청소년 공예디자인학교 ②청소년 자연학교 ③청소년 희망학교	500	HW/SW ※교육청
	5.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①스마트 플랫폼 ②여행자 안심거리 ③bbb코리아 ④Micro Mobility	1,000	HW/SW ※문화부 ※농림부
	6. 문백의 사계 축제프로그램	①봄시즌 '예술의 봄' ②여름시즌 '역사 한 상' ③가을시즌 '풍경 물뭍' ④겨울시즌 '삶의 향기'	1,000	SW ※문화부 ※농림부
	7. 문화관광 상품	①예술택시, 마차택시 ②문화관광상품 개발 ③힐링테마 문화콘텐츠	500	HW/SW ※문화부 ※농림부
	8. 문백길 (문화예술 백리)	①100리길 조성 ②100리길 콘텐츠 특화	2,500	HW/SW ※문화부 ※농림부
협력사업	1. 문화제조창C	①공예클러스터 ②충북콘텐츠코리아랩	500	SW ※충북도 ※청주시
	2. 공예비엔날레	①공예마을 초대관 운영 ②국제교류 워크숍 ③관광네트워크	500	SW ※충북도 ※청주시
	3. 진천군 관내 문화관광 협력	①문화관광 탐방 네트워킹 ②공예문화 창의학습 ③치유힐링 프로그램	500	SW ※진천군
확산사업	1. 역량강화	①역량강화 교육 ②100년가게 ③커뮤니티 ④공유경제 ⑤문백화페	200	SW ※농림부 ※진천군
	2. 관광DMO	①DMO 조직 ②DMO 운영	300	SW ※문화부 ※진천군
	3. 홍보마케팅	①스토리텔링 브랜딩 ②글로벌 네트워크 ③온라인마케팅	500	SW ※문화부 ※농림부 ※진천군

<1>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

- 주관부처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사업예산 : 200억 원 이상(국비 70%)
- 사업내용 : 지자체 + 정부 협약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발전 도모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및 대표 콘텐츠 중심으로 추진>
- 대응방안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를 연결하는 관광콘텐츠
특화전략(관광벨트) 수립 및 공모 참여

▶ 2019년 시범사업에 청주시(세종대왕 초정약수 클러스터) 선정

<2>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

- 주관부처 : 농림부
- 사업예산 : 80억 원(국비 70%)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한 주택 건립 지원사업
<40세 이하 청년가족 입주 시 무상 사용, 관리비만 부담>
- 대응방안 : 공예마을 연계, 청년예술인 보금자리사업 특화

▶ 2019년 시범사업에 괴산군 청안면 선정

<3>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육성

- 주관부처 : 문화부
- 사업예산 : 200억원(국비 50%)
- 사업내용 :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 대응방안 :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를 연결하는 관광콘텐츠 개발,
역사문화+예술힐링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 발굴

▶ 2019년 시범사업에 합천(영상테마파크), 서천(휴양체험마을) 선정

<4>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

- 주관부처 : 농림부
- 사업예산 : 70억 원(국비 70%)
- 사업내용 : 농촌문화, 농촌 특화전략사업 발굴 추진
- 대응방안 : 2021년 공모사업 준비

※ 기타 중소기업청 메이커스페이스, 문화부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공모사업 참여

※ 마을길 조성 및 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진천군 자체사업 선 추진 가능

3 운영방안

<1> 진천공예협동조합

- 마을기업으로 지정(2012년, 행안부), 체계화된 조합 운영 중
 - ▶ 공예마을의 주요 사업 의결 및 실행기구
 - ▶ 주민간의 효율적이고 신속합 의사결정 및 사업 실행 가능
- 공예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전담 추진
 - ▶ 조합 내 콘텐츠 기획 및 실행전문가 총괄사업단장 위촉
 - ▶ 관련분야 전문가 + 행정 협력망 구축을 위한 자문단 운영

<2> 관광 DMO(관광협의회)

- 목 표 : 진천군 관광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수행, 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산업 육성 및 활력화
- 역 할 :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실행, 네트워크, 평가 및 관리 등 체계적인 관광DMO 운영
- 조 직 : 전문가, 행정, 주민 등으로 구성
 - ※ 행 정 : 진천군청(문화관광, 지역개발, 농촌개발 등)
 - ※ 전문가 : 문화기획, 축제, 마케팅, 공간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 ※ 주 민 : 해당지역 마을 대표, 관광분야 종사자, 예술인 등
 - ※ 기관단체 :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기관단체
- 사무국 :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구성
 - ※ 사무국장 1인, 사무국 직원 2~3인



4 네트워크 구축 방안

<1> 한국도자기 & 젠한국

- 충북의 향토기업으로 독자브랜드 국내외 인기
- 공예마을 작가 연계한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 ▶ 산업화 된 도자기 + 손으로 빚은 도자기
 - ▶ 손부남 화가의 작품을 활용한 아트콜라보 작품 특화

<2>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 공예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등 관련학과
- 산학연계협력 추진, 학생들의 창작환경 지원시스템 구축
 - ▶ 대학생들의 현장학습, 청년인턴제도 운영
 - ▶ 대학 내 커리큘럼 강사진에 공예마을 작가 참여

<3> 공예비엔날레 조직위

- 공예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 전략적 참여 및 협력
- 공예클러스터 내 진천공예마을 특화 공간 마련
 - ▶ 공예비엔날레·공예클러스터 ~ 공예마을 휴먼 네트워크

<4> (주)디자인하우스

-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을 발간하는 국내 대표적인 디자인 전문회사
- 국내 최대 디자인 박람회인 ‘리빙디자인페어’ 20년째 주관
- 이영혜 대표, 2016년에 공예마을 방문, 주요 작가 취재 및 지원
 - ▶ 디자인 자문, 공예마을 주요 홍보 지원, 디자인페어 등 참여

<5>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공예디자인분야 정책사업, 지원사업 전개
- 전시, 상품개발, 공예문화의 해외 진출 등 지원
 - ▶ 공예마을의 브랜딩 및 문화상품 홍보마케팅, 글로벌 홍보 협력

<6> 충북도교육청

- 충북청소년수련원, 대안학교 은여울중학교 등 운영
- 자유학년제, 현장학습, 창의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중
 - ▶ 공예마을과 협력, 창의교육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요람으로 발전

<7> 진천혁신도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등 11개 기관 이전
 - ▶ 기업연수, 창의교육, 예술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

<8> 진천선수촌

-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연습장으로 2,000여 명의 선수들 활동 중
- 국가대표 선수들의 스포츠 + 문화예술 융합적 사고 필요
 - ▶ 공예마을 체험 및 창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9> 충북대학교

- 권역 내 천문대, 천문교육장 운영 중
- 충북대학교 미술과 학생 연계한 현장학습
 - ▶ 공예체험 + 천문체험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진천지역 관내 기관단체

- 교육지원청, 소방서, 경찰서, 우석대학교, 기업체 등
 - ▶ 현장학습, 관광체험, 안전지도 및 점검 등 협력

<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진천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창의교육도시로 선정
- 글로벌 창의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12> 글로벌 네트워크

- 중국 경덕진(도자기마을)
 - ▶ 도자기 창작활동 교류 및 협력
- 일본 가나자와(우다쓰야마공방)
 - ▶ 공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 및 공예작가 교류
- 일본 호쿠리쿠(전통공예마을)
 - ▶ 공예 작가 교류(전시, 워크샵 등)
- 핀란드 피스카스빌리지(공예마을)
 - ▶ 공예 작가 교류(전시, 워크샵 등)
- 캐나다 밴쿠버 그랜빌아일랜드(공예디자인 테마단지)
 - ▶ 공예 작가 교류(전시, 워크샵 등)



1. 한국도자기 & 젠한국

2.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3. 공예비엔날레 조직위

4. (주)디자인하우스

5.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6. 충북도교육청

7. 진천혁신도시

8. 진천선수촌

9. 충북대학교

10. 진천지역 관내 기관단체

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2. 글로벌 네트워크

5 당면과제

<1> 정책적 방향 설정

- 진천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수정 및 보완 필요
<진천공예마을 특화전략 및 주변 문화자원 연계협력 방안 추가>
- 진천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수정 및 보완 필요
<진천공예마을에 대한 진천군의 정책적 의지 및 정책사업화 필요>

<2> 지역민 공감대 형성

- 해당지역 주민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형성
<역사, 문화예술, 농경, 자연환경 조화를 통한 특화된 마을 가꾸기>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의지
<주요 사업 및 콘텐츠별 주민 참여 방안 및 의지 중요>

<3> 주민 역량강화

-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멘토+멘티제도 도입, 역량강화 교육, 기관단체 휴먼네트워크 등 구축>

<4> 정책사업 발굴

- 정부공모 즉시 대응, 정책사업 적극 추진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확보 전략 수립 필요>

<5>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

- 대물림 관광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광DMO 설립 및 운영, 공유기업 적극 발굴 지원 등>

정책적
방향설정

지역민
공감대
형성

주민
역량강화

정책사업
발굴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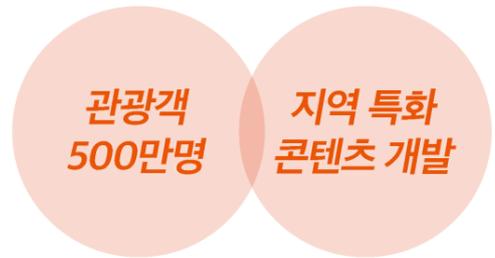
6 기대효과

<1> 정성적 효과

- 체류형·체험형 관광지 특화, 대한민국 대표 공예마을 도약
<창작, 교육, 전시, 마켓, 축제, 예술호텔 등 공예마을 브랜딩>
- 역사자원, 자연환경, 농경문화 융합 지역명소화
<농다리 ~ 공예마을 ~ 송강사 일원 문화관광벨트 구축>
- 체류형, 체험형 농촌문화를 통한 지역활력
<문화상품> <농·특산품> <마을체험> 등 공간활력, 지역활력, 사람활력
- 편리한 교통망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
<청주공항, KTX오송역, 중부·경부고속도로 등 연계, 관광도시화>

<2> 정량적 효과

- 2014년 방문객 목표 500만 명(진천공예마을 관광객 연간 100만 명)
- 힐링 테마의 지역 특화 콘텐츠 50개 개발
- 청년일자리, 문화이모작 등 일자리 창출 250명
- 대물림 문화창작 및 관광업소 45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방문객 ()은공예마을	100만 명 (5만 명)	200만 명 (30만 명)	300만 명 (50만 명)	400만 명 (70만 명)	500만 명 (100만 명)	500만 명 (100만 명)
지역콘텐츠	5개	10개	10개	10개	15개	50개
일자리 창출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250명
100년 가게	5개	10개	10개	10개	10개	45개

문화예술로 힐링하는 마을

진천공예마을